

조심스레 들어가는 말

— 말은 생각과 느낌이 흐르는 강이요, 글은 생각과 느낌을 담은 바다다.

우리는 잃은 게 너무 많다.

텔레비전을 얻은 대신에 대화를 잃었다.

컴퓨터를 얻은 대신에 생각하는 힘을 잃었다.

휴대전화를 얻은 대신에 독서를 잃었다.

인터넷을 얻은 대신에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잃었다.

키보드를 얻은 대신에 붓마저 잃어버렸다.

생각은 깊게, 느낌은 넓게 하면서 살았던 선조, 단세포적 반응으

로 살아가는 우리.

상상은 다양하게, 행동은 고상하게 하면서 살았던 선조, 게임을 통한 무한자극과 복권을 통한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은근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선조,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쾌락만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우리는 기술과 정보를 얻은 대신에 머리와 가슴을 잃어버렸다.

아바타를 얻은 대신에 나를 잃어버렸다.

허걱!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생각과 느낌의 씨앗인 말, 글에서 빛바랜 이성과 감성을 되찾고 느낌의 미학인 서예를 통하여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발음과 어원 속에 숨어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철학의 싹을 틔워야 하며 서예 퍼포먼스 라이브 서예를 통하여 붓끝림 전설의 봉인을 풀어야 한다.

붓과 함께한 지 40여 년, 문자와 함께한 지 50여 년.

붓, 먹, 벼루, 종이와 함께 지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말, 글 속에 숨겨진 은밀한 의미를 찾으며 슬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라이브 서예라는 예술 실천으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글이 발하는 빛과 말이 내는 소리로 소통과 공유를

실천하는 미래의 나는 행복하리라.

눈을 뜨면 내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시간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며 말을 글로 남기란다.

사라지기 쉬운 말과의 짧은 만남이 글과의 긴 여운으로 남기를 기대하며 작은 생각, 큰 용기로 책 한 권을 내놓는다. 독자님의 천금 같은 시간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내 감냥 넘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용기를 낸다.

2013년 봄날

浮休室(부휴실) 창가에서

도정 권상호

차례

서예의 향기



서예, 나를 뽐내다

붓의 멋, 먹의 맛	15
먹 타령	21
나를 세워주는 붓	28
이슬 받아 먹 갈고	34
바람은 인수봉을 만들고, 붓은 나를 키운다	39
라이브 서예와 붓춤	44

서예, 인생을 노래하다

라이브 서예는 인생이다	51
붓질, 그 영적靈的 오르가슴	57
피트니스 라이브 서예Fitness Live Calligraphy	63
붓씨는 문명을 낳고, 글씨는 문화를 낳는다	68
붓과 벗	74

문자의 향기



문자, 사람에게 머물다

반안반심半眼半心	83
‘입 구口’ 이야기	86
약한 손, 강한 힘	90
촌寸과 조爪 이야기	94
‘얼굴 면面’ 이야기	98
웃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101
세상의 울타리, 서울	105
웃이 날개라	110
집은 창조의 공간이다	115
시간 + 공간 + 인간 = 삼간三間	122
잡병雜病 진단	126

문자, 자연에 머물다

겨울 동冬 이야기	131
화간시주花間詩酒	134
보춘삼화報春三花	137
굽벙이의 우화등선羽化登仙	142
여름과 벼 이야기	148
화禾 자 타령	151

비 내려 강으로 흐르다 156

태풍 颱風 160

문 자 , 마 음 에 머 물 다

인기 人氣 165

노합생주 老蛤生珠 168

덕담 德談 173

희로애락 喜怒哀樂 177

아는 것과 모르는 것 181

어떻게 볼 것인가 186

끝없는 미로, 인간의 감정 感情 190

휴식 休息 195

자웅 雌雄 을 겨뤄볼까 199

새처럼 비상 飛翔 하라 203

생활의 향기



도 정 , 것 을 예 찬 하 다

매화가 들려주는 봄소식 209

흙의 노래 불의 춤 214

진리의 샘물이 책에서 솟는다 219

도검설 刀劍說 225

사군자 四君子 의 멋 230

미국에서 건너온 차 茶 236

바람처럼 향기처럼 흔적 없이 다가가기 241

바위에 아로새긴 한민족의 꿈 247

한, 그리고 한옥 254

도 정 , 삶 을 조 언 하 다

새 학기 學期 준비 準備 261

이름 예감 264

바람과 믿음 269

성년 成年 의 날 274

끝없는 길 280

조율시리 棗栗柿梨 285

휴식 休息 없는 휴가 休暇 없다 289

늡음의 미학 美學 295

건강지성 健康至誠 300

예술에 풍덩 306

서예의 향기

생각의 여울 따라

마음이 지나간 길가에는

언제나 먹꽃이 피고,

붓이 지나간 강가에는

묵향(墨香)이 맑게 흐른다.

순간

온 천지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먹~울~림.

붓의 멋, 먹의 맛

서예, 나를 뽐내다

그대, 푹푹 찌는 여름날 오후 한줄기 소낙비의 시원한 대지 사랑의 노래를 들어보았는가? 어린 시절 호롱불마저 꺼져 버린 칠흑(漆黑) 같은 초가집 방 안으로 봉창(封窓)을 비집고 내리꽂히는 한줄기 달빛의 오싹한 전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잠에서 어렴풋이 깨어나는 순간 문틈으로 새어 드는 햇살이 방 안의 뽀얀 먼지를 흔들며 머리맡에 쏟아지던 그 상큼함을 기억하는가?

눈빛 부드러운 화선지 위에 윤기 넘치는 먹 자국이 소리 없이 번져 나가는 먹울림 역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시각의 오르가슴(orgasm)이다. 서예(書藝)는 격조 높은 흑백의 상상블이다. 낭창 낭창하고 튼실하게 생긴 총각 모필(毛筆)이 아무와도 손 한 번 잡은 적 없는 처녀 화선지(宣紙)에게 퍼붓는 강렬한 키스! 화선지 위

에 펼쳐지는 모필 무도회(舞蹈會)! 동지선달 긴긴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이 끝없는 붓꼴림! 화선지는 끝내 먹물을 함빡 뒤집어쓰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이처럼 붓과 종이의 스릴 넘치는 감동적 사랑의 야설이 지칠 줄 모르고 온몸에 저며 오기에 서예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하였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흑독할 정도로 먹물에 풍덩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예는 글자를 매체로 하여 표현하는 시공간 예술이다. 음악은 시간예술, 미술은 공간예술이지만, 서예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른 종합예술이다. 오케스트라 지휘봉 휘두르듯 붓은 허공을 누비니 서예 행위는 음악을 닮았고, 점(點)과 획(劃)의 절묘한 조합으로 나타난 서예 결과물은 미술을 닮았다. 교과서에서는 서예를 공간 예술로 보고 있지만, 붓 연주 과정에서 박자나 흐름 및 조화의 중요성이나 표현할 때의 끊고 맺고 다시 잇는 절묘한 타이밍을 생각하면 적어도 공간예술 중에서 시간예술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표현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어린아이에게 색연필을 쥐어주면 아무 데나 마구 긁고 짓이긴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의 장판이나 벽지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를 보았는가? 긁거나 찌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인간 본능의 자취다.

공이 있으면 누구든 공을 칠 수 있고 마이크를 잡으면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듯이, 붓을 잡으면 누구나 글씨를 쓸 수 있다. 잘 쓰고 못 쓰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즐겼느냐가 문제다. 지고한 붓 군(君), 지순한 종이 양(孃)과 더불어 지내다 보면 정신은 어느새 가을 물처럼 맑아지고, 육신은 거울 눈발처럼 깨끗해진다.

붓질은 생활의 리듬이요, 먹빛은 사고의 향기다. 묵향(墨香)은 맡을수록 영혼이 깨어난다. 붓을 잡은 손끝을 통하여 온몸에 전해지는 은근한 흥분과 감동은 천금의 놀음차로도 오히려 부족하다.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요즈음 세대에 은근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서예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삶의 여유와 여백의 맛은, 내게 있어서 그것은 서예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흑백(黑白)의 원시적 대비 효과, 농담(濃淡)의 그윽한 유희, 붓질의 강약(強弱)과 운필의 완급(緩急)이 빚어내는 하모니……. 이 화려하고 다양한 구애(求愛)에도 글씨는 쉬이 미소 짓지 않는다. 이는 글씨 잘 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그 많은 붓털을 동시에 다스림은 붓털 숫자만큼의 초대형 오케스트라 단원을 지휘하는 일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한 조건으로 구생법(九生法)이라는 게 있다. 생지(生紙), 생필(生筆), 생연(生硯), 생묵(生墨), 생수(生水), 생수(生手), 생목(生目), 생신(生神), 생경(生景)의 아홉 가지가 그것이다.

① 차분하고 부드러운 종이

오,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피부를 가진 화선지가 나를 부른다.

② 끝이 부드러우면서도 허리의 탄력을 잃지 않는 붓

어느 화선지도 이 붓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③ 언제나 이슬을 머금고 먹의 애무를 기다리는 벼루

먹만 기다리는 만고열녀(萬古烈女).

④ 빛깔이 맑으면서도 윤기가 흐르는 먹

자신을 갈아 역사를 기록하는 지사(志士).

⑤ 새벽에 새로 길은 맑고 깨끗한 생수

깊은 사랑은 언제나 새벽의 힘.

⑥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손

붓대를 껴안고 춤출 수 있는 쾌적한 몸 상태.

⑦ 붓털의 섬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 눈

붓길과 동행하며 끝없이 주고받는 눈길.

⑧ 고요하면서도 여유 있는 정신

조급하게 서둘러서 잘되는 일이 없다.

⑨ 기상이 넘치는 화창한 날씨

천기(天氣)를 받아야 옥동자를 낳는다.

구생법이란 붓풀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서, 이 아홉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득의작(得意作)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라이브 서예를 할 때는 환경 조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여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활용할 줄 아는 재치가 있어야 한다. ‘명필(名筆)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도 구생법과는 거리가 멀다. 용구 타령, 날씨 타령, 기분 타령만 하다가 보면 바쁜 일상에 서예를 즐길 기회가 없다. 반주 없어 노래 못 할까? 핑 잡는 것이 매다. 재수 좋으면 핑 잡으러 갔다가 매 잡는 수도 있다.

그런데 서예를 배로 즐기는 선행 조건은 독서(讀書)다. 문자를 매개로 하여 뿜어내는 명사들의 메시지를 접하다가 보면 더러는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여 오랫동안 가슴 깊이 새겨두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 붓 잡고 글씨를 써보자. ‘먹빛은 천 년 간다’고 했겠다. 당장 붓을 잡아보면 어느덧 세속의 자신은 잊고 선비가 된 기분을 만끽할 것이다.

‘글씨’란 ‘그’으면서 ‘씨’를 뿌리는 일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바뀔 말하면 글씨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치 있는 정서를, 붓이란 파종 도구를 이용하여, 화선지란 마음의 밭에, 먹알갱이란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다.

글씨라는 먹알갱이 씨앗도 화선지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꽃을 피운다. 그 먹꽃에서 배어 나오는 묵향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전해진다. 통일신라의 김생(金生)이나 고려의 이암(李崱)도 그들의 육신은 시간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붓으로 요리한 글씨 맛은 아직도 생기를 돋우고 있다.

오늘 하루쯤 먹 갈아 붓 잡고 자기의 생각을 종이 위에 우려내 보자. 못난 글씨면 어떠하랴. 진솔한 마음만 묻어나면 그만인 것을.

IT가 주는 편리함으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손 감각을 되찾자. 각박한 세상일수록 한묵유희(翰墨遊戱)를 통하여 마음의 발을 갈아보자. 서예를 익혀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자. 붓의 멋과 먹의 맛을 아는 선비가 되자.

먹 타령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박문호 박사에 의하면 46억 년이나 된단다. 지구의 나이를 24시간, 곧 하루로 친다면 인간은 언제 태어났을까? 정오에? 오후 6시쯤? 놀라지 마시라. 밤 11시 57분.

인간은 말과 글로써 언어생활을 한다. 말이 먼저 생겼을까, 글이 먼저 생겼을까? 당연히 말이 먼저다. 그러면 글은 언제 태어났을까? 충격 받지 마시라. 0시 3초 전. 그러니까 선사시대와 비교하면 역사시대는 너무나 짧다. 인간은 겨우 3초 전에 만든 글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글자와 마주하며 살다가 사망신고까지 글자로 정확히 마친다. 분명히 인간이 만든 글이지만 인간이 글을 지배하는지, 글이 인간을 지배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인간은 굶지 않고는 못 배기는 표현 본능이 있다.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입으로 가져가거나 그것으로 마냥 굶는 시늉을 한다. 그렇다. 먹고 배부르면 그다음엔 굶는다.

그림을 뜻하는 화(畫) 자는 본디 ‘그을 획’이었다. 나중에 이 글자가 ‘그림 화’ 자로 쓰이니, ‘그을 획(劃)’ 자를 다시 만든 것이다. 그러하고 보니 ‘굿다’, ‘금’, ‘글’, ‘글씨’, ‘그리다’, ‘그림’, ‘그림자’, ‘그림자’, ‘그늘’, ‘그림자’, ‘그을음’, ‘검다’, ‘곰’까지도 어원이 같으리란 생각이 든다.

금을 굶기 위해서는 먹물이 필요하다. 먹물은 먹을 갈아야 얻을 수 있다. 먹은 그을음으로 만든다. 결국 금을 그으려면 그을음이 필요한 셈이다.

나무는 세 번 죽는다. 물이 말라 고사목이 되면서 한 번 죽고, 불을 만나 숯이나 그을음이 되면서 두 번 죽고, 이 숯이나 그을음이 다시 불을 만나면 원래 없던 자리, ‘무(無)’나 ‘공(空)’으로 돌아간다. 그을음은 나무가 두 번 죽은 상태다. 숯과 흑연, 그을음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C)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타는 온도와 강도는 다르지만, 그 자체로는 영원불변하다. 그을음으로 만든 먹도 불에 타지만 않는다면 영원한 물질이다. 이 영원성 때문에 먹은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다. 송진을 함유한 소나무 뿌리나 관솔 등을 태워서 만든 그을음은 송연(松烟), 유채나 동백기름 등을 태워서 만든 그을음은 유연(油煙)이다.

아궁이나 가마 등을 마련해놓고 재료를 태우면 그을음이 그 굴뚝에 붙게 되는데 위쪽에 붙는 것일수록 품질이 좋다. 그을음을 채취하여 아주 가는 체로 쳐서 아교풀로 개어 반죽한 다음 절구에 넣어 다지는데, 많이 짙을수록 좋다. 다음은 틀에 넣고 눌렀다가 꺼내면 외형이 완성되는데, 이를 재 속에 넣고 수분을 서서히 빼내면 먹이 된다. 요즘에는 광물성 그을음 또는 카본 등을 재료로 대량 생산하므로 정품이 드물다.

게다가 편지 위주로 먹물[墨汁^{묵죽}] 사용이 일반화되어 가는데, 여기에는 방부제가 들어 있어서 붓이 상할 수 있으므로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먹은 말이 없다. 그래서 먹통이다. 먹통이지만 영원하고 변질하지 않기에 그를 묵우(墨友)라 칭하고 오늘도 더불어 살아간다. 말이 없는 먹통인 먹, 그래서 ‘먹 묵(墨)’이나 ‘조용할 묵(默)’ 자의 발음은 똑같다. 중국 발음도 /mò/로서 성조까지 똑같다.

먹을 뜻하는 묵(墨)은 ‘검을 흑(黑) + 흙 토(土)’로 이루어져 있다. 흑(黑) 자를 살펴보면 창이나 굴뚝에 그을음 두 점이 붙어 있다. 창 밑의 토(土)와 화(火)는 원래 ‘불탈 염(炎)’ 자였다. 묵(墨) 자 밑에 흙 토(土)를 더한 것은 그을음을 흙처럼 굳혀야 먹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고체인 먹을 다시 액체로 만들어야 한다. 곧 먹을 가는 일인데, 이를 ‘마묵(磨墨)’이라 한다. 마묵은 단순히 먹만을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동시에 간다. 이를 ‘마심(磨心)’이라 한다. 글씨를 쓰기 전에 벌써 수양에 들어간 것이다.

초는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데, 태우지도 녹지도 못 하는 모래알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화들짝 놀라게 된다. 그러면 먹은 어떠한가. 먹은 자신을 갈아 글씨를 낳는다. 오, 의로운 먹이여. 먹에 대하여 차렷, 경례!

먹(墨硯)은 지필연(紙筆硯)과 함께 문방사우(文房四友)의 하나로 자라나 선비의 친구 반열에 든다.

먹의 형태는 초기에는 원기둥 모양이었으나 점차 다양한 패션으로 모양을 달리했다. 지금은 모든 먹이 글씨나 그림으로 메이크업까지 한다.

먹은 언제 발명되었을까. 후한(後漢)의 위탄(韋誕)이 발명했다는 설이 있으나, 이보다 훨씬 전인 은대(殷代)의 갑골문(甲骨文)에서 이미 검거나 붉은 액체를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인류는 기원전 2천500년 전에 벌써 먹을 사용했다. 이때 사용한 먹은 석묵(石墨)으로 짐작된다. 대개 지금과 같이 그을음을 이용하여 만든 먹의 사용은 한대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먹 가운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의 쇼소인(正倉院^{정창원}, 왕실 유물창고)에 소장된 신라의 먹 두 점이다. 모두 배 모양이며 각각 먹 위에 ‘신라양가상묵(新羅楊家上墨)’, ‘신라무가상묵(新羅武家上墨)’이란 글씨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때 두 집안에서 이미 상묵(上墨), 곧 좋은 먹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말(元末) 명초(明初)의 도종의(陶宗儀)가 쓴 <철경록(輟耕錄)>에는 고구려가 당(唐)에 송연묵(松煙墨)을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고구려 고분에서는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삼국시대에 양질의 먹이 생산되고 널리 보급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 후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먹이 여러 곳에서 제작되었는데, 양덕(楊德)과 해주(海州)의 먹이 가장 유명했다.

먹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 바보 먹통아!”라고 할 때의 ‘먹통’은 멍청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먹통은 목재나 석재 등을 자르거나 다듬기 위해 줄을 긋는 도구인데, 먹통이 지니고 있는 ‘까맣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먹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

또 “그 친구가 오늘 행사에 먹칠했어”라고 할 때의 ‘먹칠’은 분위기를 더럽히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먹의 굴욕이다.

먹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말은 속담에 있다.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라는 말, 여기에 ‘근묵자흑(近墨者黑)’이란 성어까지 가세하여 먹을 욕되게 한다. 좋지 못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를 닮아 악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로서 먹의 입 장에서는 “하필 나야?” 하고 항변할 수 있는 기분 나쁜 속담이다.

이 대목에서 고려 말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선생의 시 <연(硯)> 중에서 함련(頤聯)과 경련(頸聯)의 대구를 옮겨본다.

累經墨齒虧新樣(누경묵치 휴신양)
幾沐毫頭學古書(기목호두 학고서)
滴露研時驚宿鳥(적로연시 경숙조)
和冰洗處動潛魚(화빙세처 동잠어)

여러 번 먹을 가니 새 모양으로 바뀌고
몇 번이나 붓끝 적서 옛글을 배웠던고?
이슬로 먹갈 때 잠든 새도 놀라고
얼음 녹여 벼루 씻는 곳에 물속 고기도 꿈틀대누나.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 제 몸을 값아가며 희생하는 먹의 의로운 모습과 잠든 새를 깨우고 쉬는 물고기를 헤엄치게 하는 먹의 살뜰한 경계가 신비롭기까지 하다.

피는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만들 수 없는 것이란다. 피가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준다면 먹은 정신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이렇게 보면 ‘먹은 정신의 피’라고 할 수 있다. DNA 구조가 복잡하다면 먹이 이론 글씨 또한 복잡하기 그지없다. 엄밀히 말해 평생 점을 찍어도 똑같은 점을 두 번 찍지 못하고 죽는다. 유사 이래 똑 같은 점은 하나도 없었다.

먹의 배필은 역시 벼루다. 먹이 낭군(郎君)이라면 벼루는 먹을 받아들이는 신부(新婦)였다. 먹 군의 부드러운 애무에 벼루 양은 속절없이 당하고 만다. 그들의 사랑 끝에는 언제나 윤택한 옥액(玉液)이 매운 향기와 함께 질펀하게 흐른다.

나를 세워주는 붓

붓은 나의 분신(分身)이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내 몸도 따라가듯, 내 생각에 따라 붓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임은 운신(運身)이지만, 붓을 움직임은 운필(運筆)이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금방 걸을 수 없듯이 붓도 금세 걸을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運轉)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수련 시간이 필요하듯이.

붓은 먼 인생길의 반려자(伴侶者)다. 삶의 유희에서 때로는 너를 잊고 멀리하고 미워할지라도, 너는 단 한 차례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어둡고 습한 길가에서 먼지를 옴팍 뒤집어쓰면서도 마냥 나를 기다리고 있다. 먹다 남은 말라빠진 먹밥 몇 알을 곱씹으며 그렇게 몇 달, 몇 해를 기다려주기도 한다. 도시 속에서 모래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사고의 윤희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붓이다. 더러는 필통 속에서 목을 빼죽이 내밀고 기다리거나, 더러는 기다림에 지쳐서 필가(筆架)에서 아예 목을 떨구고 늘어져 있다. 미안한 마음에 필세(筆洗)에 담그거나 수도꼭지에 사우나라도 시키면 여전히 너의 유연성과 탄력성은 나를 앞지른다.

붓은 쟁기다. 쟁기는 흙을 일구듯, 붓은 화선지를 일궈낸다. 쟁기는 흙 속에 산소를 공급하듯이 붓은 화선지 속에 언어를 공급한다. 씨앗은 흙을 만나 햇살과 속삭이기 시작하고, 붓은 화선지를 만나 나와 대화하기 시작한다. 붓의 씨앗은 먹알갱이다. 적당한 물을 만나 수묵(水墨)을 이루고, 흘러서 계곡을 이루고, 모여서 강을 만들고, 먼 훗날 예술의 바다인 예해(藝海)를 이룬다. 오늘도 내 붓길엔 영롱한 이슬방울 몇 점 맺혀 있다. 붓이 나를 부른다. 붓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붓은 지휘봉(指揮棒)이다. 그 지휘에 따르는 악단 구성원으로는 전서, 예서, 초서, 해서, 행서 등이 있다. 악곡의 리듬에 따라 지휘 모습도 다양하다. 전서는 굴림 자세로 지휘하고, 해서는 꺾음 자세로 지휘한다. 예서는 지휘봉을 올리는 듯 내렸다다가, 다시 우아하게 들어 올리는 멋스러운 동작이 글자마다 등장한다. 이런 동작을 특별히 파임이라고 한다. 세종대왕이 만들고 판본에 아로새긴 정음 고체는 지휘 자세가 장중하면서 어둡지 않다. 조선 후기 궁

녀들이 만든 궁체는 미끄러지듯 다시 일어서는 모양이 피겨스케이팅처럼 화려하면서도 정숙함을 잃지 않고 있다. 현대 서예라는 새로운 악곡 형식과, 캘리그라피라는 실용음악의 지휘봉은 현란하기 이를 데 없다.

나의 분신이자 반려자인 붓, 내 삶의 발을 일궈주고 내 생각에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붓, 그 붓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 내 인생길을 지휘해 주는데, 어찌 그를 붙잡지 않으리오.

붓을 잡는 일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는다. '붓을 잡아야지'라는 생각은 씨앗이고, 그 실천은 열매다. 그 실천 과정에서 먹꽃은 온 땅에 피어나고 묵향은 바람결에 스며든다. 그 붓길에서 사막을 만날 수도 있고, 더러는 질펀한 갯벌에 빠져 허덕일 수도 있다.

'먹은 어린아이처럼 잡고, 붓은 장군처럼 잡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먹은 부드럽게 같고, 붓은 넘치는 기상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쁜 세상에 언제 먹을 갈아 쓰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편리한 세월이라 지금은 먹을 갈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먹물이 이미 상품화되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먹을 가는 것은 마음을 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본다. 먹을 갈면 묘하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기 때문이다. 슬로푸드가 육신에 좋듯, 슬로아트 서예는 영혼에 좋다.

붓질을 하면 붓끝에 흐르는 먹물 소리가 들린다. 붓털 사이사이를 흘러내리는 먹물. 붓털 골짜기를 흐르던 먹물이 종이 바다에 이르면 파문을 일으키며 멀리멀리 퍼져 나간다. 어느덧 협곡을 달리던 아픔도, 바위에 부딪힌 상처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

붓창이여, 붓칼이여. 장군이 창과 칼로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각오로 잡아야 한다. 붓을 잡는 순간 가슴에 의기가 일어나고, 팔에 힘이 솟구친다.

가끔 붓을 타고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본다. 순간 붓은 비행기가 되고 나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된다. 눈앞에는 화선지라는 은빛 현란한 설원(雪原)이 펼쳐진다. 전설을 품은 태고의 신비한 붓바람이 일자 미묘한 전을 끝에 화선지 위에는 비가 내린다. 묵우(墨雨)랄까. 붓가락은 천상의 음악을 들려주고 붓춤은 문명의 긴 강물을 따라 흐른다. 붓이 지나간 자리는 흑룡강(黑龍江)이랄까.

이른 새벽부터 붓을 타고 천상유희를 즐기다가 보면 어느덧 홍시 같은 석양을 맞이하기도 하고, 기분 좋은 피곤함에 휩싸여 붓과 더불어 밤새 뒤척이다가 보면 숯불 같은 일출에 감동하기도 한다.

1988년 1월 경남 창원시 다호리에서 철기시대 초기의 나무널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섯 점의 붓이 출토되었다. 붓대는 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양 끝에 붓털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 붓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토된 것으로 기원전 2세기경에 이미

문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동검, 칠기, 철제 농기구, 오수전 등과 함께 출토된 붓의 존재는 우리의 역사시대의 시작까지 끌어올려 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

붓을 가리키는 최초의 글자 붓 율(聿)은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뒀다. 이 글자는 은(殷)나라 갑골문(甲骨文)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붓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몇몇 갑골편(甲骨片)에는 붓으로 써놓기만 했을 뿐 채 새기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붓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필기구도 없다고 본다. 주(周)나라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도 줄곧 율(聿) 자로만 사용해오다가 붓 필(筆) 자가 나타난 것은 진(秦)나라 대전(大篆) 이후로 본다. 붓대를 주로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율(聿)’ 자 위에 ‘대 죽(竹)’ 자를 올려놓았다.

우리는 조선 중기까지는 ‘붓’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당시의 동사 ‘붓들다(붓들다)’와 통한다. 이 ‘붓’이 일본으로 건너가 ‘후데(ふで)’가 된 것으로 본다. 은(殷)나라를 우리 선조 동이족(東夷族)이 세웠다고 믿는다면 우리말 ‘붓’에서 중국어 ‘筆(bǐ)’와 일본어 ‘후데(ふで)’가 나왔다고 보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말이다. 시간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 햇빛과 달빛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불공평하게 빛을 주지 않듯이, 시간도 빛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 시간 중에 ‘금’처럼 소중한 ‘지금’, 나는 붓을 잡는다. 힘들 때마다 나를 세워주는 붓, 그 붓질로 흐트러진 내 마음을 다잡는다.

이슬 받아 먹 갈고

밤낮의 일교차가 심해지면 하늘과 대지가 갈등하기 시작한다. 밤새 뜻밖의 서늘함에 목을 움츠리는 대지를 하늘이 슬쩍 안아준다. 천지의 비밀스런 사랑으로 옥액(玉液)이 맺히는 때가 바로 백로(白露) 철이다.

풀잎에 맺힌 그렇게 많은 이슬이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비치는 정경은 세상의 보석을 부끄럽게 만든다. 순간 발칙한 생각이 든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밤새 몰래 대지의 꽃들을 사랑하고 갔구나! 하늘의 별 군과 땅의 꽃 양도 연애질을 하는구나. 가을 안개는 바로 그들의 흠이불이로구나. 오곡백과가 익어가는데, 저희들도 별수 있으랴. 저렇게 영롱한 이슬들을 사랑의 흔적으로 남겨 놓다니…….

이슬 중에서도 비 온 뒤에 맺히는 비이슬은 별로다. 밤사이에 내리는 밤이슬이 그래도 낫다. 천하가 태평할 때에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달콤한 이슬이 감로(甘露)인데, 이것이 최상품이다. 아마 감로는 모든 식물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해주는 백로 즙음의 아침이슬을 두고 이른 말일 것이다. 감로는 모든 생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그래서 술은 감로주(甘露酒), 차는 감로차(甘露茶), 물은 감로수(甘露水)를 최고로 치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비유하여 감로법우(甘露法雨)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갖 번뇌와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에 감로(甘露)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리라.

내게는 승로연(承露硯)이라 명명한 벼루가 하나 있다. 승로반(承露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명명한 벼루다. 승로반은 하늘에서 내리는 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아먹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쟁반이다. 그렇다면 승로연이란 백로 절후의 꼭두새벽에 감로를 따서 먹을 갈 벼루가 되는 것이다. 떡알갱이 자체가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탄소 성분이라 영원불변이지만, 감로를 승로연에 떨어뜨리고 먹 갈아 쓰는 글씨는 영원에다가 생기까지 불어넣는 작업이다.

넌따랏게 붓글씨를 쓸 수 있는 제법 넓은 별장이 생겼다. 도봉산 무수골의 무수산방(無愁山房)이 그곳이다. 물론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아니지만. 집 앞에는 마당이 있고, 마당가를 작은 시내가 두르고 있다. 지우들과 더불어 속마음 없이 세상 이야기를

터놓을 수도 있다. 양중맛은 텃밭도 있고 밭두렁에는 100년 넘어 보이는 해묵은 은행나무도 집 지킴이처럼 우뚝 서 있다. 서울 안의 외딴 시골집이라 무섭기까지 하다. 비가 내릴 때나 낙엽이 질 때면 우수수 하는 소리에 '우수(憂愁)골'로 느껴질 때도 있다. 처음에는 워낙이 음습한 골짜기라서 속설대로 궁중의 무수리가 죽으면 묻는 골짜기인가 했다. 알고 보니 무수(無愁)골이란 '근심 없는 골짜기'였다.

오랜만에 더위를 피해 무수골에서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길옆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따다가 승로연에 송묵을 갈아 본다. 도시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새벽 방 안이라 먹알갱이가 감로를 맞아 스프르 잘게 부수어지며 갈려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광목처럼 하얀 화선지가 애타게 먹물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쉬이 붓질로 응답하지 않는다. 먹을 갈면서 어떤 글감을 어떤 서체로 쓸까 하고 기분 좋은 설렘으로 오랜 시간 먹을 가는 일 또한 일락(一樂)이기 때문이다.

먹물에 무지갯빛 기름이 돌자 샤워하고 기다리던 붓을 연지(硯池)에 푹 담근다. 갈증에 허덕이던 종이 위를 밟 갈 듯 붓이 지나가자 붓 끝에서는 낙엽 쓰는 소리가 난다. 하늘의 대지 사랑으로 빛과 비를 내려 초목은 꽃 피우고 열매 맺듯, 먹의 벼루 사랑으로 연지(硯池)에 먹물이 고이고, 붓의 종이 사랑으로 글씨는 화선지 틈새에 뿌리를 박고 먹꽃으로 피어난다.

인연이란 묘한 것이다. 붓글씨와 인연이 없던 내가 붓글씨를 밥 먹듯 쓰고 있으니 말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글씨는 교실 뒷벽에 붙어본 기억이 없다. 당시 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하던 친구들은 현재 서예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했던 내가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보니 글씨 잘 쓰는 친구에 대한 부러움이 동기유발이 되어 서예를 평생지락(平生之樂)으로 좋아하게 되었나 보다. 그렇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부러워하면 공부 잘하게 되고, 돈 잘 버는 친구들과 벗하면 좀 더 부자가 되리라.

글씨란 '그어서 먹이란 씨를 뿌리는 일'이다. 그 씨가 발아하여 내용을 갖고, 보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글씨라는 말에는 말씨, 마음씨, 솜씨 등과 같이 '씨'라는 말이 붙어 있어 참 아름답다. 인간도 김씨, 이씨, 박씨라고 부르는 것처럼 '씨'가 붙어 있다. 아버지의 씨앗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씨를 후손이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이다. 그렇지. 호박씨는 호박만을 낳고, 대추씨는 대추만을 낳지.

옛날에는 시라 하면 한시였고 글씨라 하면 당연히 붓글씨였다. 그런데 다양한 서사 도구의 등장으로 붓글씨만을 특별히 서예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구한말 누군가에 의하여 붓글씨를 예술의 한 장르로 보고 서예(書藝)라 부르게 되었다. 중국에서

는 서법(書法), 일본에서는 서도(書道)라고 일컫는다. 영어에는 캘리그래피(calligraphy)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문자 디자인적 의미가 강하다.

그러면 서예란 정녕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 있다는 말인가. 서예의 매력은 무엇인가. 우선 서예는 예술이라는 점이다.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을 가리키는데, 서예는 일종의 마술(魔術)이나 요술(妖術)과 같은 예술이다. 붓이 종이 위를 스치고 지나감은 일회성으로 순간의 작용이지만 천변만화(千變萬化)하며 나타나는 글씨는 언제나 뜻밖의 모양으로 큰 감동을 선사한다. 종지와 먹물 상태, 날씨는 물론이고 쓰는 사람의 감성에 따라 먹물이 튀고 번지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서예를 권유해보면 무척 어려워한다. 준비가 귀찮고 붓 다루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재미가 없다. 우선 붓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서예의 출발이다. 그리고 점획을 마음먹은 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붓을 이겨내야 한다. 꼭 글씨가 아니라도 좋다. 사군자(四君子)도 좋고, 먹그림도 좋다. 실물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듯, 뜻한 바대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가 아닌 서예다. 잘 쓰든 못 쓰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붓을 잡는 순간 우리는 모두 마술사로 태어난다. 얼썩.

바람은 인수봉을 만들고,
붓은 나를 키운다

이따금 삼각산 인수봉을 바라본다. 원만한 모습이 언제나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살아가라'라는 무언의 교훈을 준다. 저보다 더 멋진 조각 작품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싫증나지 않는 걸작이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일까. 정과 망치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어찌 저리도 장중하지만 어둡지 않게 다듬을 수 있을까. 그렇다. 단단한 저 바위를 둥글게 만든 조각가는 다름 아닌 부드러운 바람인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서예 작품과 엄정한 사초(史草)를 남기는 일은 놀랍게도 부드러운 붓의 몫이다. 모질고 빼뚱 이 몸을 다듬어주는 것도 붓이다.

붓으로 기록하는 일을 필기(筆記)라 하고, 필기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일러 필기구(筆記具)라 하겠다. 연필, 철필, 만년필, 볼펜, 샤프펜슬, 플러스펜, 매직펜, 분필, 보드마커 따위의 다양한 필기구가 있지만 여기서는 짐승의 털로 만든 모필(毛筆)만을 이야기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흔히 서재(書齋)에 필요한 종이[紙^지], 붓[筆^필], 먹[墨^묵], 베풀[硯^연] 등의 네 가지를 문방사우(文房四友)라 한다. 중국에서는 문방사보(文房四寶)라고 하는데, '보배[寶^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만큼 문구를 소중히 여김에서 온 말이겠지만 그 속내에는 물질 숭상의 사고와 출세 지향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본다. 고독한 실내에서 혼자 붓글씨를 쓰는 일은 지루하고 고독한 작업일 수 있다. 그래서 문구를 '벗[友^우]으로 본 점은 매우 정겹게 느껴진다. 문방사우 중에 가장 중요한 친구는 아무래도 붓이라 할 수 있겠다. 췌, 다른 친구들 합동으로 열 받을라…….

붓이 생기기 전에는 칼이 붓을 대신했다. 거북의 배뼈나 소의 어깨뼈, 돌이나 나무 등에다 칼로 글씨를 새기는 일이 먼저 생겼다. '새기다'는 뜻의 '각(刻)'이나, '긋다'는 뜻의 '획(劃)'에는 칼[刀^도]이 붙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칼은 붓의 조상이다.

지금과 같은 붓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은대(殷代)에는 나뭇가지나 뗏가지에 먹을 묻혀 쓰기 시작했으나, 그것이 불편하여 점차 부드러운 짐승 털로 바꾼 것이다. 앓싸.

그리고 붓을 뜻하는 최초의 글자는 '붓 율(聿)'이었다. '붓 필

(筆)' 자가 생긴 것은 진시황 이후의 일이다. '붓 율(聿)'에 '대 죽(竹)'을 얹은 것은 붓대를 대나무로 사용함에서 비롯되었다. 한때 지금 중국에서는 '붓 필(筆)'로 쓰고 있으니, 그렇담 한자도 진화한다는 말인가.

3세기 진(晉)나라의 학자 장화(張華)가 저술한 《박물지(博物志)》에 '몽염조필(蒙恬造筆)'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흔히 붓을 처음 만든 사람은 진(秦)나라 사람 몽염(蒙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박물지》에는 그 기록이 없고, 다만 구양순(歐陽詢)의 《예문유취(藝文類聚)》 등의 여러 책에서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은대(殷代)의 갑골문(甲骨文) 중에도 이미 붓으로 쓴 다음 새긴 것이 있고, 또 붓으로 쓴 도기 조각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몽염에 의한 붓의 발명설은 설득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붓털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붓털은 주로 동물의 털을 사용하고, 드물게는 수염을 이용하기도 한다. 붓털로 사용되는 동물은 양, 말, 개, 닭, 사슴, 여우, 이리, 담비, 토끼, 호랑이, 멧돼지, 살췍이, 족제비 등 매우 다양하다. 같은 동물의 털이라도 채취 시기와 신체 부위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붓대는 대부분 죽관(竹管)을 사용하지만 금관(金管), 은관(銀管), 상관(象管), 도자관(陶瓷管) 등도 있다.

붓은 호(毫)의 굵기에 따라 극대필(極大筆)로부터 쥐 수염 너덧 개로 만든 미세필(微細筆)까지 종류가 많다. 호의 길이에 따라서

는 장봉(長鋒), 중봉(中鋒), 단봉(短鋒)으로 나눈다. 호의 강한 정도에 따라 강호(剛毫), 겸호(兼毫), 유향(柔毫)로 나눌 수 있는데, 겸호는 강한 털과 부드러운 털을 겸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털을 섞어 만든 것이다.

좋은 붓은 네 가지 덕(德)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즉, 첨(尖), 제(齊), 원(圓), 건(健)을 말하는데 첨(尖)이란 붓끝이 날카롭고 흠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제(齊)란 굵은 털이 없이 가지런히 정돈된 것을 말하며, 원(圓)이란 보기에 원만한 모양을 지니고 회전이 잘 되는 것을 말하며, 건(健)이란 충실한 획이 꾸준히 그어지며 붓의 수명도 긴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 붓대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으며 각자가 잡기에 편하면 된다.

붓의 선택과 손질 역시 매우 중요하다. 붓을 고를 때는 털을 넓게 펼쳐 봐서 털끝이 가지런하고 투명한 부분이 많은 것이 질 좋은 것이다. 붓을 처음 사용할 때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풀기를 충분히 뺀 후에 먹칠 찍어 써야 한다. 다 쓰고 난 뒤에도 호가 뒤틀리거나 썩지 않게 잘 빨아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듯이, 붓도 글씨 쓰기 전후에 찬물보다 따뜻한 물에 빨면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어 좋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털 속에 남은 먹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 찌꺼기가 남으면 털이 썩거나 호의 모양이 변하며, 더러는 붓대마저 갈라지는 원인이 된다. 뺀 붓은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가끔은 화선지 위에 비스듬히 걸쳐놓고 말려보라. 빨리 마름은 물론, 이때 잔묵(殘墨)이 은은히 번지면서 아름다운 붓꽃이 탄생한다. 순간 세상에 단 한 장뿐인 화선지를 얻게 되는 즐거움에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필가묵무(筆歌墨舞)란 말이 있다. ‘붓이 노래하고 먹이 춤춘다’라는 뜻으로 자유자재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먹이 없으면 붓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붓은 언제나 먹물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반대로 붓이 없으면 먹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먹물은 언제나 붓의 피가 되어 붓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어 한다. 붓과 먹의 관계는 활과 화살의 관계와 같다. 필묵(筆墨) 모임은 붓과 먹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기보다 필(筆)과 묵(墨)처럼 상생(相生)과 공존(共存)의 만남이다. 활과 화살의 궁시(弓矢) 모임도 마찬가지였다.

봄이 온다. 나무에 물이 오르듯이, 붓에는 먹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붓과 먹물의 만남처럼 긴밀한 접촉 없이는 어떠한 창작도, 인간적 접촉도 기대할 수 없다.

삼각산을 바라보며 글씨 쓰는 일은 자연과 하나 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순간 인수봉이 붓으로 다가온다. 하늘은 화선지가 되고, 구름은 글씨가 되고…….

라이브 서예와 붓춤

벼루 위에 먹을 갈자. 마묵(磨墨)은 심전경작(心田耕作)이자 심신수행(心身修行)의 과정이다. 마묵(磨墨)하며 명상호흡(冥想呼吸), 명상서예(冥想書藝)를 하면 온몸에 평화가 도래한다. 마묵의 끝은 언제나 윤택한 먹물과 그윽한 향기다. 치렁치렁하게 잘생긴 붓으로 먹물을 듬뿍 찍어 먹씨를 뿌리자. 붓끝에서 발아하는 먹꽃과 향기, 그리고 마른 뒤에 나타나는 글씨. 먹알갱이(먹씨)를 뿌려 글씨를 얻는 일은 씨를 뿌려야 씨를 얻을 수 있는 이치와 같으니 이는 천리(天理)다. 탱탱하고 윤택하게 잘 갈린 먹씨의 유혹, 화선지란 포근한 은빛 대지(大地)의 기다림, 어찌 필마(筆馬)를 타지 않고 건딜 수 있으랴.

때로는 벼루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먹처럼 윤택한 글씨를 쓰자.

때로는 화선지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붓처럼 탄력 있는 글씨를 쓰자. 어느덧 묵향(墨香)이 그윽한 화선지란 정원이 만들어지고 야트막한 획이라는 담을 넘나드는 필마(筆馬)여!

붓이 지나간 자국은 언제나 먹으로 포장된 붓길로 남는다. 그 두께는 얇지만 금강석보다 단단하고 흑진주보다 빛이 난다. 붓길은 다닐수록 땅이 파이는 것이 아니라 서예 작품으로 쌓인다. 세월이 흘러 결과물로 남는 것은 묵탑(墨塔)이지만 행위의 주체로 보면 필탑(筆塔)이다.

오늘도 필탑 아래에서 두 손을 모은다. 멀고 먼 붓길에 지치고 땀에 흠뻑 젖으면 먹물에 풍덩 빠지고 싶다.

마음 바탕은 깨끗해야 한다는 회사후소(繪事後素)의 의미를 알고, 서예는 반드시 사색하여야 한다는 서수존사(書須存思)를 실천하며, 편안하고 고요해야 멀리 이를 수 있다는 영정치원(寧靜致遠)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서예는 정중동(靜中動) 또는 동중정(動中靜)의 묘한 맛이 있다. 가는 듯 쉬고 쉬는 듯 가곤 하는데, 이를 삼과절(三過折)이라 한다. 붓길에서 때로는 질풍노도(疾風怒濤)와 마주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 길을 정처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낙타가 되기도 한다. 순간순간 떨어지는 점과 획으로 완성되는 글자, 그 글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시문(詩文)을 이루면 눈앞에 먹꽃은 꽃밭을 이루고 묵향은 또 다른 종이를 부른다. 먹꽃밭의 모양을 일러 장

법(章法)이라 한다. 처음에는 인위적인 꽃발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붓길 따라 먹비[墨雨묵우]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꽃발을 더 좋아하게 된다.

문방사우(文房四友)와 첫 만남의 설렘은 잊을 수 없다. 붓이 화선지에 닿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오싹한 전율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붓끝림은 붓떨림을 낳고, 붓떨림은 붓자국을 낳는다. 붓자국이 모여 필담을 쌓어나간다. 필담의 기반은 설렘과 전율이다. 먼 훗날 우리의 붓 연주가 서예 갈라 쇼(gala show)가 되고, 우리의 먹빛이 세상을 빛내는 그런 날이 오길 꿈꾼다. 꿈은 꾸는 자의 몫이라기에……. ‘갈라(gala)’라는 말은 이탈리아 전통축제의 복장 ‘gala’에 어원을 두고 있다. 갈라 쇼는 ‘축제’, ‘잔치’, ‘향연’, ‘홍겨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갈라 쇼는 축제처럼 홍겨운 ‘축하 공연’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주로 클래식 음악, 발레 등의 공연 예술이나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분야에서 행해졌지만 앞으로는 서예에서도 펼쳐져야 한다. 더불어 즐기는 붓 연주, 붓털 하나하나에서 튀겨 나오는 오르골 이상의 천상 음악, 질펀하게 퍼져 나가는 먹울림에서 다가오는 시각적 오르가슴……. 먹울림을 통하여 세상의 중심에서 서예를 알리는 일이 서예 퍼포먼스, 곧 라이브 서예라고 생각한다.

‘붓끝림’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생경한 말에다 어쩌면 속어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붓을 잡고 글씨를 쓰고 싶은 충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하고 싶어 못 견디는 동기유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도 아날로그 마니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컴퓨터 안에 온갖 폰트들이 난무하지만 5천 년 동안 맥맥히 이어져 내려온 서예 작업을 하루라도 걸러서는 안 된다. 문방사우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서(心書), 공서(空書)라도 가능하지 않은가.

좌우명으로 삼는 글귀가 있다. ‘Beautiful space, Delightful time’, 곧 ‘공간은 아름답게, 시간은 즐겁게’라는 말이다.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절대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이 공간과 시간이라면 ‘그 공간 아름답게, 그 시간 즐겁게’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붓글씨 쓰는 일이야말로 그 실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서예를 즐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박제된 서예’가 아닌 ‘라이브 서예’에 있다. 왕희지의 〈난정서(蘭亭序)〉나, 안진경의 〈쟁좌위첩(爭座位帖)〉과 같이 현장성과 생동감이 넘치는 글씨가 명필로 남아 있다. 쓰는 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쓰는 사람은 더 큰 집중과 신명을 얻고, 관중은 붓놀림에 대한 감흥과 내용에서 오는 문기(文氣)를 맛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서예는 붓연주라 할 수 있다.

라이브 서예의 가치는 더불어 쓰는 즐거움에 있다. 여기서 더불어 쓴다는 말은 서예가끼리 어울려 쓴다는 의미도 되고, 관중과 함께 쓴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리고 공연예술은 무대가 필요하

지만, 라이브 서예는 무대가 아니라도 괜찮다. 라이브 서예가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전통 민속극과 닮았다. 무대는 물론 마당도 좋고 길바닥, 운동장, 공원의 잔디 위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은 크기의 종이나 백죽자(白簇子), 광목 등을 펼쳐놓을 만한 공간만 있으면 된다. 공연예술은 무대와 객석의 거리만큼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엄격하지만, 라이브 서예는 글씨를 쓰는 서사자(書寫者)와 글씨를 구경하는 관중 사이의 거리가 없다. 그래서 라이브 서예에서는 관중도 글씨 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관객도 배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라이브 서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속극과 닮았다. 하지만 관객 없는 공연예술이 무의미하듯 관중 없는 라이브 서예도 존재 가치가 없다.

글씨를 멋지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내용의 참신성도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라이브 서예를 즐기는 더 큰 보람은 늘 시심(詩心)에 젖어서 생활하는 데 있다. 또 하나, 라이브 서예를 하면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인위적인 글씨를 쓰지만, 서력(書歷)이 쌓이면 점차 손을 떠나 자연의 리듬을 추구하게 된다.

우리의 아름다운 생각의 흔적이 천 년을 지나가도 빛을 발하며 종이 위에 남게 된다는 사실이 신비롭지 않은가. 죽는 순간 사유 재산은 명의를 변경되지만 글씨는 낙관(落款)이라는 작품등록증

으로 영원히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정신적 유산이다.

‘강남 스타일과 말춤’ 신드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으로 대한민국은 ‘수출 강국’, ‘기능 강국’, ‘IT 강국’, ‘스포츠 강국’에서 ‘예술 강국’으로 떠올랐다. 미 대선후보 중 롬니가 미국 방송에서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따라 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지는 오바마 스타일, 그네 스타일, 강북 스타일, 광화문 스타일 등 과연 지구촌에는 스타일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강남 스타일 열풍을 일으키며 국제가수로 등극한 싸이 개인의 인기와 수익보다 대한민국 국익 창출의 큰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 붓쟁이들은 싸이의 말춤 대신에 붓춤으로, 아니면 또 다른 아이템을 창출하여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어야 할 때다. 서예 퍼포먼스 ‘라이브 서예와 붓춤’도 개발하면 또 하나의 문화한국의 깃발이 될 수 있다. 개천절에는 서울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한글날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라이브 서예 공연을 펼쳤다. 다음은 영월의 김삿갓문학축제에서 라이브 서예와 붓춤을 펼칠 예정이다.

라이브 서예는 인생이다

서예, 인생을 노래하다

서예는 '일회성(一回性)'이라는 점에서 인생과 닮았다. 라이브 서예는 일회성에 현장성(現場性)이 더해져 순간순간 판단과 선택을 잘해야 하는 현대인의 삶과 너무나 닮았다. 한번 쓴 글씨는 개칠(改漆)할 수 없듯이, 한번 지나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매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온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인생삼금'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황금'·'소금'·'지금'이 그것이란 것이다. 라이브 서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과 관련이 깊다. 시간과 공간이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서 써 내려가는 현장 서예가 라이브 서예다.

라이브 서예를 즐기기 위해서는 붓과 먹물을 언제나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때그때 먹을 직접 갈아서 사용하면 좋지만, 라이브 서예를 위한 많은 양의 먹물을 일일이 갈아서 충당하기란 쉽지 않다. 라이브 서예의 경우 대개 큰 붓으로 크게 쓰는 일이 많고, 즉발적(卽發的)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먹물을 사서 사용하는 수가 많다.

라이브 서예가 주는 감동과 행복은 대단하다. 운동량도 많아서 5분 정도면 1천 미터 달리기를 한 것처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붓을 통하여 손끝에 와 닿는 진율은 가슴을 때린다. 음악과 함께 눈앞에 펼쳐지는 붓가락의 먹자취는 눈을 흥분하게 만든다. 혼자 방 안에서 부르는 노래보다 많은 청중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신이 나듯이, 서재에 틀어박혀 혼자서 쓰는 자기 구도적 서예보다 대중 앞에서 펼치는 라이브 서예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감동적이다. 이른바 기파장(氣波長)이 일어나기 때문이리라. 물론 라이브 서예를 처음으로 시도해볼 때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여 온몸과 가슴이 떨리겠지만, 몇 차례의 현장 경험을 쌓고 나면 누구나 당당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라이브 서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우듯이, 붓을 세우는 연습을 일정 기간 하고 난 뒤에 나만의 글씨체로 덤비면 되는 것이다.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문제 되지 않는다. 용기가 문제다. 처음에는 인쇄한 것처럼 잘 따라 쓴 몰개성적 글씨를 잘 쓴 글씨로 오인할 수도 있다. 차

리리 줌 못 썼더라도 개성 있는 글씨가 역사에 남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쓴 글씨가 낡고 닳고 찢어져 한 조각만 남아 있더라도, 그 한 조각이 작가의 전체 예술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어느 한 부분인들 소홀히 할 수 있으랴. 아무렴.

그러면 라이브 서예와 닮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덕목을 들어볼까. 옹거니.

첫째, 인생삼간(人生三間)이 있다. 시간, 공간, 인간이 그것이다.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時空)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시간, 공간이라고 할 때에의 '간(間)' 자를 '인간(人間)' 에게도 붙여놓았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살아서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라면 그 시간 즐겁고, 그 공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분위기 망쳤어'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인생삼택(人生三擇)이 있다. 학교 선택,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이 그것이다. 조국이나 부모처럼 자기의 선택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학교, 직업, 배우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많은 선택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듯이, 오늘의 내 선택은 나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셋째, 인생삼선(人生三先)이 있다. 살아가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공정의 힘을 믿고,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를 가리킨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자. 무엇부터 할 것인가? '급한 일부터 먼저',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자. 일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을 잘 가려서 확신이 섰으면 그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업무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일을 그르치는 수가 많다.

넷째, 인생삼중(人生三重)이 있다. 시작, 과정, 결말의 중요성을 말한다. 인생은 일회성이므로 가정(假定)이 없다. 따라서 순간의 판단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자리가 없다'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격언이다. 처칠은 옥스퍼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고 했으니, 이는 과정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라는 말은 결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격언이다.

다섯째, 인생삼품(人生三品)이 있다. 하품(下品)·중품(中品)·상품(上品)의 인생으로 없어야 할 사람은 하품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중품이며, 꼭 있어야 할 사람은上品 인생이다. 삼품(三品)을 달리 구분할 수도 있다. 생각 없이 동물처럼 먹고 자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품,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은 중품,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上品으로 나누는 것이다. 선인들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인을 하품,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련인을 중품, 수행을 통한 '달인(達人)'·'도인(道人)'·'진인(眞人)' 등을上品의

로 보기도 했다.

여섯째, 인생삼몰(人生三沒)이 있다. 청년에는 사랑에 빠지고, 장년에는 일에 빠지고, 나이 들어서에는 고향에 빠진다는 말이다. 향우회, 동문회 등에 나가 보면 주로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고향을 인연으로 만나는 자리가 향우회이고, 또 죽어서 영원히 묻힐 곳도 고향 땅이 아니던가.

서초동 로얄프라자에서 열린 재정 지보면민회 및 초회의 '송년 의밤 한마음축제'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의 입장에서 이날은 고향에 대한 추억과 붓가락의 흥취에 한꺼번에 빠지는 날이었다. 평소에 학연(學緣), 지연(地緣)에 대하여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터라 참석하지 않았던 모임이었다. 그런데 서예 퍼포먼스를 한번 펼쳐달라는 회장(최상호)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게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에 대한 아련한 그림이 일어나 무용가 노한나 양을 데리고 함께 라이브 서예를 펼쳤다.

내 고향 이름은 '지보면(知保面)'이다. 남에게 말로 알려주기에 다소 쑥스러운 지명이지만, 그곳이 '만인의 고향'이니 한번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더구나 특산물인 참기름인 점도 예사롭지 않다. 또한 한자로 보면 '(세상을) 알고 (자신을) 지킨다'는 참 좋은 의미가 아닌가.

배경 음악이 깔리고, 선녀가 춤을 추다가 감고 있던 비단을 던진다. 나무꾼은 '예지천보(醴知天保)'라고 썼다. '예천군 지보면은 하늘이 보호하나니……'라는 의미다. 그리고 협서로는 '알찬 지보 힘찬 지보'라고 코믹하게 썼다. 이에 마음이 흔들린 선녀는 치마를 벗어 던져주며 유혹하고, 이윽고 나무꾼은 치마 위에 난죽(蘭竹)을 친다. 화제(畫題)를 붙인 뒤에 다시 선녀에게 치마를 입혀주고 함께 춤을 춘다.

예술의 멋과 인생의 맛이 어우러진 향우회. 객지에서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은 반가움과 궁금증과 성공담을 동시에 던져준다. 예천의 샘물은 끝없이 샘솟고, 지보의 향기는 영원히 흐르리…….

부질, 그 영적靈的 오르가슴

나는 하나의 몸뚱이일 뿐이다. 그럼에도 여러 몸을 흠모한다. 명장사가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다. 더러는 성직자, 과학자가 부럽고 요리사, 음악가, 시인으로 맛깔나게 살아보고 싶기도 하다. 더러는 철학하는 거지로, 감옥 안의 정의로운 죄수로, 관 속에서 죽음 체험자로 살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몸은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인(人)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인간(人間)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인간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개성적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 화단 속의 장미는 장미일 뿐이고 화단 밖의 잔디는 잔디일 뿐이지, 장미가 잔디 될 수 없고 잔디가 장미 될 수 없다. 그

냥 둘은 각각의 개성으로 살아갈 뿐이다. 잔디는 잔디의 속성으로. 장미는 장미 고유의 속성으로……. 음, 그렇지.

인간이 만든 옷, 집, 자동차, 젓가락 등은 똑같은 것이 무수히 많지만, 무릇 자연이 만든 것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산의 높이, 강의 흐름, 나무의 키, 손가락·발가락의 길이 등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다. 이것은 자연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렸다.

사람의 직업도 자연처럼 동일한 것이 없이 오가지잡탱이어야 다양한 사회, 신명 나고 활기찬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너는 너답고, 나는 나답고……. 직업이 거지일지라도 스스로 선택한 거지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때 행복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세상은 신분적, 경제적 차이 등으로 인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높은 지위나 돈 많은 부자를 다행(多幸)이나 선(善)으로 보고, 낮은 지위나 가난을 불행(不幸)이나 악(惡)으로 보는 이상 갈등과 싸움은 그치질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로서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로 ‘Noblesse oblige’라고 적으며 ‘The nobly born must nobly do’로 풀이하고 있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이름값’, ‘지위값’을 하라는 말이렸다. 옳거니.

나는 붓질하는 먹탱이다. 먹탱이는 철저하게 먹탱이일 뿐이다. 이렇게 믿을 때 주변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먹탱이가 화려한 춤꾼을 갈망하거나 재기 발랄한 사업가를 꿈꿔서는 안 된다. 먹탱이가 춤꾼이나 사업가를 넘겨다보면 그쪽 상대방의 미움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먹탱이끼리도 서로 암투하고 밥그릇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맞는 말이다. 방법은 있다. 먹탱이 중에서도 나만의 개성을 지닌 차별화된 먹탱이가 되면 그만이다. 이를 개성(個性)이라 하겠다. 개성이 없는 사회는 인간사막(人間沙漠)과 다름없다.

그런데 먹탱이로서 춤꾼이나 사업가가 되는 방법이 있다. 그와 친하면 된다. 인간 대 인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이라고나 할까. 이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이요, 더불어 잘 사는 법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내가 즐겨 쓰는 말이 있다.

“마음을 얻으면 몸은 덤이다.”

어떡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가가는 방법과 주고받는 방법이 있다.

우선, 물처럼 바람처럼 향기처럼 햇살처럼 다가가는 것이다. 만물에 물이 스미듯 다가가는 이치는 겸손의 원리다. 물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 형체 없이 다가간다. 사과와 배추의 86퍼센트, 배추의 95퍼센트가 물이지만 사람들은 사과와 배추를 보고 물이라 하지 않는다. 인간도 따지고 보면 3분의 2가 물이다. 그럼에도 물탱이라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한다. 물은 완고하지 않고 부드럽기에 흐름이 있고, 흐름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활기(活氣)가 넘친다.

바람처럼 향기처럼 다가가도 된다. 공기의 이동인 바람은 형체조차 없으면서도 산소를 공급해준다. 향기도 형체가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상대의 기분을 업그레이드해준다. 또 햇살처럼 다가가도 된다. 햇살은 태양의 화살이지만 아무리 내리쬐어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생기(生氣)를 불어넣어 준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고받는 방법이 있다. 벌은 꽃들의 사랑을 맺어주고 대신에 꿀을 얻는다. 이 방법은 아름답게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방법이다. 벌이 꽃에 다가가듯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리고 정직한 나의 모습과 내 마음 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이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서로의 이름과 취미, 생각과 하는 일 등의 정보를 교환하자.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과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 받기만 하고 주기를 거부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는 싸움이다. 그러나 주고받는 이치의 결과는 언제나 공생(共生)이다. 공생의 사례는 자연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자연을 스승 삼고 자연을 닮은 삶을 추구하자.

물과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우리도 썩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을 운동(運動)이라 하는데, ‘돌 운(運)’과 ‘움직일 동(動)’, 두 글자가 주는 가르침이 있다. 군인(軍人)은 주변을 계속 돌아야 살 길이 생기고, 무겁고 소중한 것(重荷)일수록 힘차게 움직여야 오래갈 수 있다. 그렇다. 무거운 지구도 잠시도 쉬지 않고 운동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물과 바람은 태고부터 지금까지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유롭게 움직일 것이다. 우리 몸의 물과 바람은 피와 호흡이다. 피와 호흡도 움직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 사랑과 훈훈한 우정을 나눈다. 연인과 친구 간에도 마음이 끊임없이 오가지 않으면 썩는다. ‘왕따’, ‘찐따’, ‘뱀따’ 등은 마음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가 밟을 것은 미운 사람이 아니라 ‘대지(大地)’다. 아무리 짓밟아도 한 번도 짜증 내는 일이 없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며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옷, 지을 곳을 제공하는 대지. 우리가 땅이라 이름 지어주었지만 단 한 번도

땅땅거리는 일조차 없었다. 마치 내게 주기만 했지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란 이름으로 대변되기도 하는 대지는 관용(寬容)의 화신이다.

그렇다. 나의 경우는 철저하게 먹탱이만 되면 모든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먹물이 화선지에 스미고 묵향이 허공에 퍼지듯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자. 먹을 갈며 먹바람을 일으키고, 글씨 쓰며 붓바람을 일으키자. 그것이 나의 운동 법칙이다.

오늘도 나는 붓질을 한다. 묵묵히 앞만 보고 붓을 이끌고 간다. 위낭소리로 마소의 길을 짐작하듯이, 먹올림으로 붓길을 짐작하자. 붓길은 언제나 지금까지 아무도 밟은 적 없는, 이른바 전대미답(前代未踏)의 새 길이다. 손으로 쓰다가 팔로, 다시 가슴으로 쓰는 글씨. 먹물이 붓털 틈새를 비집고 흘러내려와 더러는 소리 없이, 더러는 폭포수처럼 큰 소리로 아무도 밟은 적 없는 처녀지, 그 눈부신 화선지를 파고들면 내 가슴은 뜨겁게 전율한다. 이른바 붓질의 영적(靈的) 오르가슴(orgasm)이다. 오르가슴이란 말은 어감으로 볼 때 순우리말같이 느껴진다. 벽찬 희열이 가슴에 차오르기 때문이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그을 수 없는 붓길은 인생길과 너무나 닮았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이므로 붓을 잡을수록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트니스 라이브 서예 Fitness Live Calligraphy

음악에서 세시봉 열풍과 함께 건강에는 피트니스 열풍이 대단하다. 불어로 ‘아주 좋다’라는 뜻의 세시봉(C'est Si Bon)은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등을 배출한 1970년대 서울 무교동에 있던 유명 음악 감상실 이름이었다. 그런데 세시봉 가수들이 세대를 초월하여 뜨고 있다. 이 글도 세시봉 멤버의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젖어서 쓰고 있다.

피트니스는 영어 ‘fitness’에서 온 말로, ‘fit’이 ‘~에 꼭 맞다’라는 뜻이니 ‘fitness’는 ‘적절함’이란 뜻이 된다. 이 말은 더욱 발전하여 ‘신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상태’라는 의미가 된다. 곧 몸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피트니스다. 나아가 사회적·정신적·식품영양학적·체육과학적

측면은 물론 패션 용어로까지 확장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육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정확히는 ‘피지컬 피트니스(physical fitness)’라 하고, 균형이 잡힌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내는 일, 또는 그것을 위한 운동을 가리켰다. 현대인의 무병장수, 건강 지향 욕구를 계기로 피지컬 피트니스 운동은 세계적 붐을 타고 있다.

피지컬 피트니스에 상응하여 정신적인 면에 중점을 둔 피트니스는 ‘마인드 피트니스(mind fitness)’, 패션에 중점을 둔 피트니스는 ‘피트니스 룩(fitness look)’이라 한다. 호텔이나 클럽 등에서는 고객의 지친 심신을 풀어주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가면 훌륭한 체력 단련 기구와 사우나 룸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서예와 피트니스에 대하여 생각해볼까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운동에서 최상의 상태, 곧 피트니스를 유지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서예 또한 피트니스 상태에서 최고의 글씨를 쓸 수 있다고 본다. 곧 컨디션이 좋아야 글씨를 잘 쓸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운동에서 정신력도 체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듯이 서예에서도 정신적·육체적 컨디션을 모두 필요로 한다.

흔히 서예를 통하여 심신(心身)을 수련한다고 한다. 역으로 말하면 심신이 단련되어야 서예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서사(書寫) 내용을 통하여 심성을 닦고 쓰는 동작을 통하여 호흡과 신체를 단련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많은 글감을 준비하고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만 맛과 멋이 넘치는 글씨를 쓸 수 있다. 특히 대필로 큰 글씨를 쓰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라서 평소 꾸준한 체력 단련이 필요하다. 왕희지(王羲之)와 안진경(顔眞卿)과 같은 명필이 튼실한 무관 출신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붓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한 완평(腕平)을 위해서는 팔에 근육이 붙어야 하고, 힘찬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좌우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게다가 대필로 라이브 서예를 펼칠 때는 몸을 굴신하며 혼신을 다해 쓰게 되므로 두어 자만 써도 온몸에 땀이 흐른다.

발재간의 정수가 축구라면 손재간의 정수는 서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서예는 손재주가 아니라 건강한 신체에서 터져 나오는 활기찬 정신 활동으로, 심신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종합운동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실천하고 공유하는 서예 퍼포먼스 ‘라이브 서예’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기는 전천후 ‘피트니스 아트(fitness art)’다. 어떤 공식 행사든, 축제든, 잔치든 그 분위기 자체가 ‘피트

니스 라이브 서예'를 위한 최상의 자리다. 그 자리가 라이브 스테이지(live stage)이기 때문이다. 고독한 서재에서 고심하며 모양만 그려낸 글씨는 박제된 서예일 따름이다.

문제는 붓꼴림이다. 꼴림의 사전적 의미는 생식기가 성욕으로 인하여 팽창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는 꼴림은 '꼴이 일어남'의 뜻이다. 여기의 꼴은 '본때를 보이다'라고 할 때의 본때와 상통하는 의미다. 붓꼴림이란 글씨를 쓰고 싶어 환장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가 이른바 진정한 서예 피트니스 상태다. 이때는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몸에 병이 생긴다. 정신적 배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상태가 진정으로 '피트니스 라이브 서예'를 즐길 시간이다. 육체적 배설만큼이나 정신적 배설도 중요하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가 막혀도 우리는 죽게 된다.

그런데 라이브 서예의 장점 중의 하나는 육체적 운동과 정신적 운동이 이상적으로 가미된 예술 활동이라는 점이다. 라이브 서예를 통하여 밸런스가 잡힌 건강한 심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흔히 서예는 정신 운동일 뿐 육체 운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라이브 서예는 그렇지 않다. 관중 속에서 붓을 잡고 온몸으로 쓰는 라이브 서예는 3분만 지나도 땀에 젖는다. 라이브 서예는 붓이란 도구를 통한 육체 단련이기도 하다. 고로 라이브 서예는 마인드 피트니스는 물론 바디 피트니스도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건강 아이콘이다.

라이브 서예가 국내에서 해를 거듭하며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서예 재생(再生)' 활동이 붓을 타기 시작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펼치는 역동적인 라이브 서예다. 음악, 무용과 함께 단체 공연예술로 다루고 있는 라이브 서예는 가히 '붓 쇼' 또는 '서예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가르침은 모든 연주자가 자신의 소리만을 크게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여러 개성적인 소리를 합하여 세상의 희로애락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내는 데 있다. 붓 연주도 붓털 하나하나가 따로 놀지 않고 한데 어울려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낸다.

심신(心身)의 고른 건강을 위하여 라이브 서예를 권해본다. 처음에는 누구나 쑥스러워 하고 부끄러워한다. 이것만은 극복해야 한다. 창피함은 순간이지만 뒤이어 오는 가슴 뿌듯한 즐거움은 오래간다. 라이브 서예는 뇌 훈련을 통한 치매 예방은 물론, 적당한 신체 운동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배 먹고 이 닦기, 도랑 치고 가재 잡기다. 취미생활의 허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활동의 키워드……. 라이브 서예가 이제 피트니스의 어젠다(agenda)로 떠오르고 있다. 앓짜.

불씨는 문명을 낳고,
글씨는 문화를 낳는다

문화(文化)란 인간의 영혼을 담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라 함은 숨 쉬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흙을 갈아엎음으로써 땅에 힘을 주듯이 문화는 끊임없는 소통과 공유로써 생활에 활력(活力)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릇 모양이 다양하듯이 서체도 다양하다. 작가의 정신세계는 그릇의 내용물로 나타난다.

문화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한 나라나 민족의 문화가 다른 나라나 민족으로 건너가 정착되는 현상을 문화전파(文化傳播, culture diffusion)라고 한다. 문화전파에는 전쟁 승리를 통한 강제전파도 있으나 우리는 자연스러운 문화 수용에 의한 자연전파에만 관심을 두기로 한다. 문화의 강물은 오롯이 흘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적시며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간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흔히 ‘한류(韓流, Korean Waves)’라고 한다. 중국 언론에서 이 한류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반화된 문화 용어가 되었다. ‘한국 문화의 물결’, 이른바 ‘한류’라는 그 문화의 물결 속에는 맹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씨앗’이 들어 있다.

재미있게도 우리말에서 접미사 ‘씨’가 들어 있는 단어 중에는 문화의 씨앗을 가리키는 말이 많다. 맵씨(국어사전에는 ‘맵시’라고 적고 있으나, 나는 ‘매무새에서 나오는 씨앗’으로 보고 ‘맵씨’라고 적어야 옳다고 본다)는 패션을 낳고, 솜씨는 기술을 낳고, 말씨는 스피치와 노래를 낳고, 마음씨는 믿음을 낳고, 불씨는 문명을 낳고, 글씨는 문화를 낳는다. 그러므로 붓글씨는 문화의 씨앗 중 하나인 셈이다.

붓글씨는 한국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며 내려온 우리의 중심 문화다. 이를 미국 땅에 직접 전파하고자 워싱턴 주의 터코마 시에서 주최하는 ‘제25회 소수민족축제(25th Ethnic Fest)’에 참가했다. 이는 문화전파 방법으로 볼 때 직접전파에 해당한다. 정복에 의한 직접전파도 있지만, 이는 역반응과 거부가 따르니 무리일 터다. 때마침 K-pop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유럽과 미주에 도도하게 흐르기 시작하였으니 이에 편승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의 하나인 붓글씨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방문의 목적이었다. 다가가는 서예

퍼포먼스, '라이브 서예(Live Calligraphy Performance)' 공연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씨앗을 미국 땅에 뿌리고 오는 것이다.

1부 공연 '도정의 붓질 마당'을 마치고, 2부 공연 '함께 즐기는 서예'가 시작되었다. 2부는 쉽게 말해 미국인들을 위한 '서예 체험'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직접 손으로 붓글씨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른바 문화 체험이라야지 문화 구경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2부 타이틀은 '함께 즐기는 서예'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현지인은 생후 처음으로 접해보는 붓글씨였다. 먹물이 튀길까 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서로 써보고자 했다. 인간의 표현 본능을 자극한 것이다. 하얀 종이에 까만 먹물 자국만으로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붓을 잡는 순간 시간을 잃고, 길을 놓쳤다. 모두의 가슴에 번지는 희열의 물결……. 성공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아시아인이든 한결같이 붓을 잡고 종이에 획을 긋는 순간 몰입(沒入)하고 만다. 청춘남녀는 물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길게 펼쳐진 종이 위에 내키는 대로 자기 손이 가는 대로 더러는 쓰고 더러는 그린다. 인간이 갖고 있는 숨길 수 없는 표현 본능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다.

미국에서의 한류 열풍을 처음 느낀 것은,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사람이 많음을 확인하고서다. 그런데 '사랑' 또는 '대한민국'을 한글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무 살 안팎의 두

여대생은 '동방신기, 윤호- 사랑해'라고 한글을, 그것도 붓으로 능청스럽게 써 나가지 않는다. 게다가 외국인이 우리 노래를 우리말로 부르는 지경에는 한국인인 내가 어안이 병병할 정도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고무되어 전미 한인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김철홍 프로는 시종일관 능숙한 솜씨로 한글 붓글씨 시범을 보이며 한글 홍보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에서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온 다섯 명의 남녀 학생들은 도우미를 자청했다. 눈물겹게 아름다운 일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서북미 '라디오 한국' 방송국에서 실시한 외국인 대상 '한국노래사랑'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올해로 두 번째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생각의 여을 따라
마음이 지나간 길가에는
언제나 떡꽃이 피고,
붓이 지나간 강가에는
묵향(墨香)이 맑게 흐른다.
순간
온 천지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먹~울~림.

붓이 지나간 자국에는 늘 꽃이 핀다. '먹꽃'이다. 먹꽃은 먹의 빛깔과 번짐에서 오는 살아 있는 글씨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리킨다. 먹꽃은 먹향기를 피운다. 이른바 묵향(墨香)은 안으로는 보이는 이의 가슴을 후비고 밖으로는 강을 건넌다. 만약 묵향에 문화의 날개를 달면 묵향은 산을 넘고 대양도 뛰어넘는다. 더구나 정보화 시대의 문화 쓰나미 효과는 대단하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문화다. 붓을 잡을 때마다 먹물이 화선지에 번지고 묵향이 허공에 퍼지듯 한류 문화 쓰나미가 세상을 뒤덮을 그런 날을 기대해본다. 한류는 정한(情恨)의 한류(恨流)이기도 하므로 가능하리라.

붓글씨를 흔히 정적(靜的)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너럭하게 깔린 종이를 무대로 하여 붓이 노래하고 먹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 동(動)의 극치다. 그야말로 다이내믹 사운드에 맞추어 펼쳐는 만호(萬毫)의 군무(群舞)다. 붓털의 수가 많으므로 흔히 만호라고 한다. 용트림하는 붓질과 이리저리 튀는 먹물에 감동의 경계는 무너지고 만다. 붓글씨에서 오는 감동의 끝은 언제나 손가락 끝을 거쳐 가슴 깊이 파고드는 먹울림이란 감동이다. 번잡한 세상일수록 지고한 붓과 지순한 종이와 더불어 지내다 보면 생각은 어느새 가을 물처럼 맑아진다.

한국 문화와 서예의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다가가야 한다. 그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배우도록 기다리기엔 너무 늦다. 내

가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시범을 보이고 소개하며, 널따란 종이를 펼쳐놓고 붓을 그들의 손에 친히 쥐어주면서, 직접 붓글씨를 체험하게 해야 적극적 홍보가 된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흐름의 한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붓이 칼보다 강함을 보여주자. 만 자루의 불펜보다 천 자루의 만년필보다 한 자루 붓의 힘이 더 강함을 보여주자. 한 말의 잉크보다 한 방울의 먹빛이 더 빛남을 보여주자. 이성적인 펜보다 감성도 담고 있는 붓의 매력을 느끼게 해주자. 팔에는 육신의 피가 흐르고 붓에는 정신의 피인 먹물이 흐름을 깨닫게 해주자.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절반의 정복이다. 문화로 그들의 영혼을 정복할 때 진정한 정복자가 된다. 앞으로는 지리적 영토가 넓은 나라가 강국이 아니라 문화의 텃밭이 넓은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다. 문화 한국, 자랑스럽지 않은가. 인간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힘으로 몸을 빼앗는 것은 절반의 정복이지만 아름다운 생각이나 덕성으로 상대방의 영혼까지 빼앗을 때 완전한 정복이 된다.

“학문과 예술의 가치는 실천과 공유에 있다.”

이것이 서예 퍼포먼스 ‘라이브 서예’의 가치관이다. 광장이나 거리, 산속이나 강가, 호텔이나 대학, 절이나 교회, 백화점이나 음식점, 아트센터나 카페, 전시회나 음악회, 잔치판이나 결혼식, 방송사나 신문사, 국내나 국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며 250여 회에 걸쳐 펼쳤고, 지금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펼칠 라이브 서예……. 붓 쇼라고나 할까. 엇그저께는 여의도 홍보석 이화포럼에서, 내일은 설악산 신흥사에서, 그 다음에는 용인 목양감리교회에서 라이브 서예를 펼칠 계획이다.

서예의 장래는 밝은가? 곳곳한 붓을 닮은 벼를 붙들고 늘어지는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부정적이다. 세월이 바뀌어 붓으로 먹고살기는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운 것이라곤 붓글씨밖에 없으니 입에 풀칠하기에 어려워도, 그냥 먹칠이나 하며 지낸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불철주야 노력하여 초대작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는 원생이 없고, 붓글씨를 배우겠다는 젊은이나 학생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고들 한다. 그러니 문화센터나 양로원, 평생교육원 등지를 기웃거리며 차비 정도 벌어서 길바닥에 깔고 있겠구나. 나 역시 서실에 편안히 앉아서 서예 지망생을 받으며 살아가는 형편이었다면 라이브 서예를 착안하지 못했으리라. 오랜 세월 동안 서예는 선비의 필수 교양이었는데……. 내가 글씨를 배울 때만 해도 품위 있는 여성에게 서예 교양은 혼수품의 하나였다.

“컴퓨터가 모든 글쓰기를 대신하는 시대인데 느려빠진 서예가 무슨 예술이여?”

여기저기서 붓을 쥐는 소리가 들린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의 일을 찾고자 들르는 인사동에 그 많던 필방이나 표구점은 하나씩 관광상품점이나 화장품점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몇 안 되는 대학의 서예과도 학생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대학원 서예 전공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내가 몸담고 있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서예 전공도 풍전등화(風前燈火)처럼 불안하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다시 붓을 세워야 한다. 붓에 기(氣)를 불어넣어야 한다. 매일 붓을 손가락 끝에 거꾸로 세우고 붓의 균형을 잡는 놀이를 한다. 어린 시절 긴 막대기를 손가락 끝에 세우고 팔을 움직여가며, 막대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 집중하며 놀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앉아서 많은 원생을 받아가며 편안히 가르치던 시대는 끝났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라이브 서예 현장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며, 관중에게는 보는 즐거움을 주고, 본인은 쓰는 즐거움을 누리야 한다. 단일 장르로서 서예만은 재미가 덜하다. 라이브 서예는 음악, 무용 등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로 필흥(筆興)이 솟구친다. 진정한 서예는 즐기는 서예, 곧 '낙서(樂書)'이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능동적 자세로 '다가가는 서예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랄 방귀를 떨던 차에 내 앞에 다가온 일본 영화 한 편이 있다. <서도 걸즈!! 우리들의 고시엔(書道ガールズ!! わたしたちの甲子園)>이 그것이다.

서예를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한다. 갑자원, 즉 고시엔이란 야구 리그 결승전이 벌어지는 경기장(약 6만 명 수용)이나 고교 최강을 가리는 리그전을 뜻한다. 이 영화에서는 야구 대신에 여러 학교의 서도부 학생이 참가하는 서예 리그전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불경기로 침체된 전통마을을 살리기 위해 서도부(書道部) 고딩들이 서예에 음악을 접목시켜 '서도 퍼포먼스'를 펼친다. 실제 이

야기를 영화화한 것이라는 데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었다. 두 시간 1분짜리 성장 드라마를 몇 번이고 숨죽여 가며 끝까지 뜯어보았다. 무겁고 큰 붓으로 펼친 마지막 퍼포먼스 내용이 '재생(再生)'이라서 더욱 가슴이 뜨겁게 달구어졌다.

영화가 끝날 즈음, 가슴은 뭉클하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에는 희망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공감(共感)이라 하는구나. 내가 꿈꾸고 실천해오던 라이브 서예를 이웃 일본에서 벤치마킹이라도 해 간 것인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화장을 하거나 페인트칠을 할 때 붓을 사용한다. 붓이 지나간 자리는 아름답다. 그래서 인간은 붓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애용할 것이다.

붓은 먹물을 머금고 화선지 위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처럼 화려한 몸짓으로 놀기를 좋아한다. 이 대목에서 붓이란 벗과 술타령 좀 해볼까.

벗과 술은 오렐수록 좋고 옷과 차는 새로울수록 좋다. 얼씨구. 술자리에서 필(feel)이 통하면 그 자리에서 소울메이트(soulmate)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정한 벗이란 발효된 된장처럼 오래 묵어야 제격일세. 절씨구. 내 나이 육십을 바라보고 있으니 붓 친구 자네와 사귄 지도 어언 50년 가까이 되는구먼. 그리고 보니 우리는 곰삭은 벗일세 그려. 잘한다. 벗이란 무엇인가. 옷은 물론 마음까

지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법이여. 그래서 벗이라지. 옮겨
니. 붓뿔을 붙잡고 맥술을 마시며 오늘밤엔 허물 벗고 허드러지게
놀아보세. 좋지.

오래된 침물선에서 인양된 술은 한 병의 낙찰가에 억 소리가 나
기도 한다. 고분의 청동기에서 발견된 술도 애주가의 가슴을 설레
게 한다. 벗이란 벗이 마시고 싶어 하는 고목(古墨)의 가격에도 끌
이 없다.

술과 벗이 만날 때 술은 벗이 되고, 벗은 술이 된다. 술안주로 자
주 입에 오르내리는 시구가 있다. 북송(北宋) 문인 취옹(醉翁) 구
양수(歐陽修)가 떠든 것이다.

酒逢知己千杯少(주봉지기 천배소)
話不投機半句多(화불투기 반구다)

친한 벗을 만나 술을 마시면 천 잔도 적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반 마디 말도 많도다.

커~ 좋다. 지기(知己) 정도 되는 벗이라면 옷 벗고 샤워하는 사
이가 아니라, 속까지 훤히 드러내 보이는 벗이다. 그런 친구라면
시간과 공간은 물론 술값도 문제 되지 않는다. 벗과 함께 마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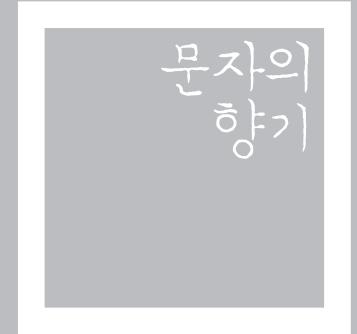
술은 생활의 활력소이자 생각의 오아시스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붓이란 벗도 내 손길의 부족함을 닮은 적이
없다. 붓뿔이 즐겨 마시는 맥이란 술도 차별하지 않는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며 언제나 자리에 누워 기다리는 연인,
화선지 양을 닦하는 일도 일절 없다. 붙잡고 다니고 싶은 벗이기
에 '붓뿔'이라 부르고 싶고, 필(feel)이 통하는 벗이기에 '필뿔'이라
부르고 싶다. 붓뿔은 절대로 몽니를 부리는 법이 없이 참으로 무
던한 친구다.

/붓/과 /벗/은 단음절어로서 발음상 /ㅂ/으로 시작하여 /ㅅ/으
로 끝난다. 시작과 끝의 소리가 똑같아서 참 좋다. 첫소리 /ㅂ/은
입술소리로 부드러워서 더 좋고, 끝소리 /ㅅ/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어서 청각 인상이 분명해 더욱 좋다. 붓과 벗은 실제로 부
드러우면서도 끝이 분명하다. 붓은 평소에는 정감 넘치는 시정(詩
情)으로 부드러운 담론(談論)을 들려주지만, 가끔은 꼳꼳이 서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펼치기도 한다. 벗도 평소에는 꾸밈없는 마
음을 주고받으며 인생의 도반(道伴)이 되지만, 가끔은 따끔한 충
고로 나를 일깨우기도 한다. 벗이란 말은 모든 가식을 '벗고' 만날
수 있기에 벗이라 하지 않는가. 붓 역시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자신
을 감춘 적이 없이 올누드로 다가왔다. 그렇군. 오호라, 붓 잡고 살
아야지.

붓을 뜻하는 한자는 원래 율(律)이었으나 진시황의 진나라 이후 부터는 필(筆)로 썼다. 이 글자를 보면 대나무로 만든 붓대, 붓을 잡은 손과 붓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筆) 자 아래쪽의 이(二)가 붓털인데 전서(篆書)시대에는 붓털 모양대로 밑으로 드리워지게 썼었다. 우리의 경우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붓을 ‘붓’으로 표기하고 있다. 붓은 손에 붙어야 하고, 또 자주 붙(붙, 붓)잡아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붓과 비슷한 것으로는 비(빗자루)가 있다. 붓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만 비는 흔적을 없앤다는 점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벗이여, 우리 민족에게는 한(恨)과 흥(興)과 정(情)이 많아요. 이 세 글자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글자가 아닌가요. 오늘 하루쯤은 세속의 일을 접고 삶의 아픔에서 오는 한(恨)이 있거들랑 붓으로 흥(興)을 일으키며 서로 간의 정(情)을 나눠보세그러.



이 세상 어느 곳이 꿈속 도원이던가
산관에 야복 차림 오하려 완연하네
그림으로 그려보니 진정 호사인데
천년토록 어루만지며 서로 전해졌으면
- 안평대군

반안반심半眼半心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부모, 조국, 고향, 모교 따위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주소, 물건, 취미, 종교 따위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이럴 때 늘 고민하는 대상 두 가지는 배우자와 친구다.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 해결 방법으로 반안반심(半眼半心)을 제시한다. 반은 눈으로 보고, 반은 마음으로 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반은 육안(肉眼)으로 보고, 반은 심안(心眼)으로 보란 말이다. 맨눈으로만 보면 판단에 오류가 많으니 마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어떤 물건을 사러 시장이나 백화점에 들렀다가 나올 때는 전혀 엉뚱한 물건들만 손에 들고 나올 때가 있다. 이는 육안에 흘렸기 때문이다. 아내나 남편의 모습이 살아갈수록 밍게 보인다면 이 또한 육안에 흘렸기 때문이다. 첫 만남으로부터 오랜 세월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한 배우자나 친구를 심안으로 바라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잘 발휘된 감동의 만남을 누릴 수 있다.

눈 안(眼) 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안(眼)은 ‘눈 목(目) + 그칠 간(艮)’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目)은 그야말로 곁에 드러난 외관상의 눈을 가리키고, 안(眼)은 안에 있는, 안 드러난, 시각이 그친 부분, 안구의 끝 부분, 수정체를 지나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망막을 가리킨다. 시신경이 모여 있는 망막을 조정해주는 거울이므로 안경(眼鏡)이라 하고, 목경(目鏡)이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眼) 자의 옆에 붙어 있는 간(艮) 자는 주역의 간괘(艮卦)로 산(山)을 가리킨다. 금문의 간(艮) 자는 ‘目 밑에 人’이 붙어 있다. 더 나아갈 수 없는 끝인 산을 보고[目목] 놀라며 좌절한 사람[匕匕]의 모습이다. 따라서 간(艮)은 ‘끝’을 가리킨다. 마음의 끝은 ‘한할 한(恨)’, 나무의 끝은 ‘뿌리 근(根)’, 흙의 끝은 ‘낭떠러지 은(垠)’, 땅의 끝은 ‘경계 한(限)’,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금속의 끝은 ‘은 은(銀)’, 따라서 눈의 끝은 ‘눈 안(眼)’이 당연하다. 한계에 부딪히면 ‘물러날 퇴(退)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정한 이치다. 이같이 안목(眼目)을 조금만 넓히면 모든 한자가 웃으면서 다가온다.

세상을 육안(肉眼)으로 보면 명암(明暗)만이 나타나므로 선악(善惡), 시비(是非), 빈부(貧富), 여야(與野), 보혁(保革) 등의 갈등(葛藤)의 대립 구조로 보게 되어 싸움밖에 할 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심안(心眼)으로 보면 대상의 속을 헤아릴 수 있게 되므로 화해(和諧), 협상(協商), 절충(折衷), 양보(讓步), 타협(妥協) 등의 화합(和合)의 통일 구조로 보게 되어 평화(平和)밖에 모르는 행복한 바보세상(?)을 이룩할진저.

지위가 올라가더니, 돈 좀 벌더니 안하무인(眼下無人) 되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에 진입하더니 안하무국(眼下無國) 되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오늘따라 그리운 사람, 늘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안중지인(眼中之人)이 그림다. 찾아가 빙긋이 웃고 싶다.

‘입 구口’ 이야기

인생의 시작을 나타내는 한자는 시작할 시(始) 자다. 이 글자의 모양은 여(女) 자에 코를 가리키는 사(△)와 입을 가리키는 구(口)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 탯줄을 끊고 코와 입을 열어주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의 기도와 식도를 열어주기 위해 아기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간호사의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응아” 하고 울지 않으면 위험하다. ‘목’을 틔우고 ‘숨’을 쉬어야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입은 하나지만 눈과 귀는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보고 듣기를 두 배 더 하라는 뜻이다. 말할 왈(曰) 자에는 한 일(一) 자가 보이지만, 눈 목(目)과 귀 이(耳) 속에는 두 이(二) 자가 보인다.

입 구(口) 자는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구(口) 자의 전서

모양은 ‘ㅂ’과 닮은꼴로 입가가 올라가 미소 짓는 모양이다. 아기가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을 ‘방실방실’ 웃는다고 한다. ‘방글’, ‘방긋’, ‘배시시’ 등은 모두 웃는 모양을 꾸미는 말로 신비하게도 ‘ㅂ’으로 시작한다.

구(口)를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은 둥글다. 놀랍게도 우리말 ‘구슬’, ‘구르다’, ‘굴렁쇠’, ‘구름’, ‘구멍’ 등은 물론 한자 공 구(球)도 모두 둥근 이미지다.

말할 왈(曰)은 입속의 혀가 보이는 모양이고, 고백할 백(白)은 입김이 쪽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여기에서 흰 백(白)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백(白) 자의 전서 모양은 윗입술을 잡아당기는 모습이다. 그러면 아플 것이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고백하면 백(百) 가지 모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그래서 더러는 죽음을 선택한다.

말씀 언(言)은 입 밖으로 입김이 계속 나오는 모양에서, 소리 음(音)은 서서 입을 벌리고 혀를 보이며 노래하는 모습에서 나왔다. 곧 구(口)에서 언(言)이 생기고, 왈(曰)에서 음(音)이 생겼다.

우리말로 ‘이’ 하면 앞니가 보이고 ‘아’ 하면 어금니가 보이듯, 한 자로는 ‘치’ 하면 이 치(齒)가 보이고 ‘아’ 하면 어금니 아(牙)가 보인다. 그래서 이를 치아(齒牙)라고 한다.

말재주가 뛰어나면 ‘구변(口辯) 또는 언변(言辯)이 좋다’라고 하고, 소리를 매우 잘하면 ‘득음(得音)했다’라고 한다. 물 흐르듯 거

침없이 말을 잘할 때 현하구변(懸河口辯)이라 한다. 필기시험에서는 논술(論述)을 잘해야 하고, 면접시험에서는 구술(口述)을 잘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로 여론이 구구(區區)한 걸 보면 정치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은 참으로 조심스럽다. 언어(言語) 생활이든 음악(音樂) 활동이든 언(言)과 음(音)의 옛 글자의 모습을 보면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글자는 입 위에 죄인을 다스리는 형구(刑) 때 울 신(辛) 자가 있었음을 명심할 일이다.

말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치(齒) 자에도 있다. 전서 입 구(口)자인 ‘ㅂ’ 모양 안에 윗니와 아랫니를 가리키는 ‘인(人)’이 둘씩 보인다. 말조심하라는 뜻에서 그칠 지(止) 자가 위에서 누르고 있지 않은가. 인간은 나서 죽을 때까지 말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되도록 말하지 ‘말라’는 경계의 뜻에서 우리말로 ‘말’이라 하지 않는가.

인간의 탄생 순간을 비유하자면 일폐구개(一閉九開)라 할 수 있다. 이는 내가 만들어본 성어로 ‘하나는 닫히고 아홉은 열린다’는 뜻이다. 곧 탄생이란 어머니의 몸과 연결된 하나의 탯줄을 끊고 자생적인 아홉 개의 새 통로가 열리는 일이다. 아홉 개의 통로는 두 콧구멍과 하나의 입, 두 눈, 두 귀, 두 배설기관 등의 입출력 기관이다. 탄생 순간 울음소리로 기도를 열고, 젖을 빨므로 식도를 연다. 이어서 오줌과 똥을 싸며 배설기관이 열리고 두 귀와 두 눈도 천천히 열리면서 의식을 얻게 된다. ‘목숨’이 붙어 있다는 말은

식도(食道)와 기도(氣道)를 관장하는 입과 코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뜻이다. 총명(聰明)하다는 말은 귀와 눈이 밝게 열리어 입력을 잘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보면 삶이란 결국 아홉 통로의 소통이요, 죽음이란 그 막힘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다.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생계를 위하여 일정한 환경에서 어떤 조직체의 구성원으로 일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를 ‘생활(生活)’이라 한다. 그런데 생활 내용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언(言)과 행(行), 곧 언행(言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말과 행실은 한번 잘못하면 엇지른 물과 같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거창하게 일성(一聲)을 발하자면 21세기 문화 코드는 ‘소통과 공유’, ‘비움과 나눔’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아홉 기관의 소통, 곧 구통(九通)을 잘 이루어야 한다. 그중에서 입은 한 개지만 입력과 출력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바쁘다, 바빠. 먹는 일과 말하는 일, 이 두 가지 역할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먹음이 많으면 몸이 상하고, 말이 많으면 정신이 상한다. 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선용(善用)해야 할 입이지만 조심할진저! ‘입!’이라 말하면 입 모양이 절로 닫힌다는 사실! 놀랍지 않은가.

약한 손, 강한 힘

10리는 가도 5리는 못 가는 손, 안쪽으로는 물건을 잡을 수 있어도 바깥쪽으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손, 그 손이 인류 문명의 나무에 꽃이 피게 하고 문화의 향기로 벌·나비를 유혹하고 있다. 약한 손이지만 손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보니 인간만이 손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동물이다. 온몸의 신경이 손에 뻗혀 있어서 손에 수지침을 맞음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인간은 손으로 맛있게 요리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글씨와 그림을 쓰고 또 그린다. 그러니 당연히 인체 중에서 손과 관련한 한자가 가장 많다.

우선 한자 부수에서 손과 관련한 부수 글자를 살펴보자. 또 우, 오른손 우(又), 가를 지, 지탱할 지(支), 칠 복(支, 女), 창 수(攴), 가

죽 피(皮), 북 고(鼓) 등에는 공통으로 손을 가리키는 우(又) 자가 들어 있다. 또 손 수(手, 扌), 아버지 부(父), 두 손으로 받들 공(卍), 마디 촌(寸), 손톱 조(爪) 등의 부수 자들도 모두 손과 관련한 글자들이다.

손 하나는 손 수(手)인데, 손 둘은 절 배(拜)다. 배(拜)의 오른쪽은 무성히 자란 풀포기의 상형으로 허리를 굽혀 풀을 뽑는 모양이 절하는 모습과 비슷하여 '절'의 의미로 파생되었다. 더러는 '배(拜) = 수(手) + 수(手) + 하(下)'로 풀이한다. 이는 절하는 동작을 나타낸 것으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는 모습이다. 편지를 쓰고 절하여 올릴 때 배상(拜上)이라 한다.

구(久)는 '사람 인(人) + 파임 불(亠)'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손으로 끌어당겨 오래 머물게 하는 모양이다. '파임'은 서예에서 획의 이름이지만 형상으로 볼 때 사람을 잡아당기는 손으로 볼 수 있다. 영구(永久), 내구성(耐久性), 지구력(持久力) 등의 예가 있다.

부모(父母)라고 할 때의 아버지 부(父)의 금문 형상은 첫 획이 유난히 굵은데, 이는 손에 돌도끼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글자로 보면 도끼로 먹을 것을 구해 오는 일은 아버지의 역할이요, 젖을 먹여 기르는 일은 어머니의 역할이었다. 손에 막대를 잡고 있는 다스리는 자는 다스릴 윤, 벼슬아치 윤(尹)이요, 막대 잡고 입으로 호령하는 자는 임금 군(君)이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서울시장을 한성판윤(漢城判尹)이라 했다. 군주(君主), 군자(君子)로다.

각지 낚 차(叉)는 각지를 낚 반대쪽 손가락을 점으로 표시했다. 교차(交叉)는 각지 낚 손가락처럼 서로 엇갈리는 것을 말하고, 차수(叉手)는 두 손을 마주 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낸다.

두 손으로 받들 공(卍)이 들어간 글자는 생각보다 많다. 우선 희롱할 룡(弄)은 두 손으로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양이다. 해질 폐(弊)는 해진 옷 폐(敝)를 두 손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폐사(弊社)에서처럼 ‘검칭’으로 쓰이고 있다. 책 전(典)은 ‘책 책(冊) + 공(卍)’으로 책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다. 고전(古典), 경전(經典)이로다.

손 셋으로 이루어진 글자로는 받들 봉(奉)이 있다. 봉(奉)은 곡물이 예쁘게 자란 모습이다. 이것을 세 개의 손으로 받드는 모습이 봉(奉)이다. 여기에 손 하나를 더 붙여 네 개의 손으로 받드는 글자는 받들 봉(捧)이다. 그리고 곡물이 제기에 풍성하게 담긴 모습이 풍년 풍(豐)이다. 봉사활동(奉仕活動), 부모시봉(父母侍奉)이로다.

함께 공(共)은 ‘스물 입(卍) + 공(卍)’으로 많은 물건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바지할 공(供)과 통용되는 글자다. 함께 공(共)의 예로는 공동생활(共同生活) · 공생공영(共生共榮) · 남녀공학(男女共學) · 공산주의(共產主義) 등이 있고, 이바지할 공(供)의 예로는 공급(供給) · 공양(供養) 등이 있다. 공손할 공(恭)은 손에다 마음[心]까지 모아서 예를 갖춘 글자다. 남의 부모 공경(恭

敬)이 제 부모 공경(恭敬)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줄 여, 더불 여(與)는 손이 네 개나 된다. 네 개의 손은 따지고 보면 두 사람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아[牙]를 ‘주다’의 의미가 된다. 글자 가운데의 여(与)는 맞잡은 손으로 보기도 하고, 꼬아놓은 새끼줄로 보기도 하는 데서 ‘더불어’의 뜻이 생긴다. 与는 興의 약자다. 상장수여(賞狀授與)로다.

두 사람이 함께[同] 손을 쓰면 흥할 흥(興)이 되고, 두 사람이 함께 수레[車]를 끌면 수레 여(輿)가 된다. 흥망성쇠(興亡盛衰), 여론조사(輿論調查)로다.

들 거, 모두 거(舉)는 여(輿) 밑에 수(手)가 붙은 모양인데 손이 다섯이나 되는 셈이다. 거수경례(舉手敬禮), 일거양득(一舉兩得)이로다. 얼씨구.

촌寸과 조爪 이야기

손 수(手), 손 수(扌), 오른손 우(又)도 ‘손’을 가리키는 글자이지만 마디 촌(寸), 손톱 조(爪) 등도 ‘손’을 가리킨다.

우선 마디 촌(寸)과 관련한 한자를 살펴보자. 한의학에서 사람의 손목에 맥박이 뛰는 곳을 촌구(寸口)라고 한다. 촌구는 손바닥으로부터 일촌(一寸), 곧 3센티미터쯤 떨어져 있다. 촌(寸) 자의 전서 모양을 보면 일(一) 자로 맥박의 위치를 가리키는데, 오늘날은 점으로 찍는다. 나중에는 ‘짧다’, ‘작다’의 의미 외에 맥박의 수를 헤아림에서 ‘헤아리다’ 등의 뜻으로 확장된다. ‘짧은 시간’은 촌음(寸陰), ‘짧은 쇠붙이’는 촌철(寸鐵),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은 촌지(寸志)라 한다.

촌(寸) 자의 전서는 우(又) 자의 모양을 포함하고 있어서 ‘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대할 대(對)는 촌대 같은 물건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다. 나중에 ‘대답하다’, ‘대구’ 등의 의미로 확장된다. 대인(對人), 대답(對答), 대구(對句)로다.

쏠 사(射)의 갑골문과 금문 모양은 활에 화살을 메겨 손으로 팽팽하게 당긴 모습이었다. 전서에 와서 몸 신(身)에 화살 시(矢)를 붙이다가 이내 손을 나타내는 촌(寸)을 다시 붙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射)는 몸 뒤로 팔꿈치가 뒤로 나온 모양과 같이 되었다. 나중에는 화살뿐만 아니라 ‘총을 쏘다’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사격(射擊), 발사(發射), 사수(射手)로다.

사례할 사(謝)는 ‘언(言) + 사(射)’의 구조로 ‘사양하기 위하여 말을 먼저 하는(쏘는)’ 데서 ‘사양하다’, ‘감사하다’의 의미가 나왔다. 사례(謝禮), 감사(感謝)로다.

절 사(寺)의 본 발음은 /시/였다. 그 증거로 時, 詩, 侍 등의 발음도 모두 /시/다. 신성한 절을 가리킴에 오줌 누는 소리가 나서는 쓰겠는가. 점잖게 /사/라 해야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은 절 사(寺)이고, 시간에 맞추어 모심은 때 시(時)이며, 아름다운 말로 모심은 시 시(詩)이고, 옆에서 시중들며 마음으로 모심은 모실 시(侍)다. 사찰(寺刹), 시간(時間), 시인(詩人), 시봉(侍奉)이로다.

찾을 심(尋)에서 숨은 글자를 찾아보면 좌(左) + 우(右) + 촌(寸)으로 되어 있다. ‘두 손으로 더듬으며 찾는다’는 의미다. 따져가며 묻는 것은 심문(審問)이지만, 찾아가며 묻는 것은 심문(尋問)

이다. 그리고 남을 집을 방문하는 것은 심방(尋訪)이 된다.

이끌 도(導)는 ‘손으로 길을 인도하는’ 모습이다. 인도자(引導者), 지도자(指導者)로다.

손톱 조(爪)는 아래를 향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내미는 손의 모습으로 ‘잡는 손’의 의미가 본뜻이다. 힘을 쓸 때는 손톱의 역할이 크므로 ‘손톱’의 의미로도 쓰인다.

받을 수(受)는 주는 손[爪]과 받는 손[又]이 합쳐진 모습으로 원래는 ‘주다’, ‘받다’의 두 의미가 있었으나 ‘받다’의 의미로만 쓰이고, 나중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손 수(扌)를 덧붙여 줄 수(授) 자를 만들었다. 수수(授受)는 주고받음이요, 수여(授與)는 상상이나 훈장을 줌을 말한다.

줄 수(授)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한자로는 보낼 증(贈), 줄 사(賜), 공급할 급(給) 등이 있다.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을 기증(寄贈)이라 하고, 성의 표시나 축하 인사로 줌을 증정(贈呈)이라 한다. 임금이나윗사람이 준 물품은 하사품(下賜品), 보상 없이 주는 식사를 무상급식(無償給食)이라 한다.

다툼 쟁(爭)은 두 손이 긴 물건을 서로 당기고 있는 모습에서 ‘다투다’의 의미가 되었다. 싸움은 투쟁(鬪爭)이요,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며 다투는 것을 논쟁(論爭)이라 한다. 다툼 중에 가장 무서운 다툼은 전쟁(戰爭)이지.

수(受), 쟁(爭)과 마찬가지로 이에 원(爰)도 두 손에서 출발한다. ‘막대기로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모습’이다. 원(爰)이 나중에 ‘이에’라는 부사로 쓰이자 본뜻을 살리기 위해 ‘당길 원, 도울 원(援)’ 자를 만들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을 구원(救援),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줌을 원조(援助)라 한다. 지지하여 도와주면 지원(支援)이요, 호응하여 도와주면 응원(應援),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것은 성원(聲援)이다.

잔 작, 벼슬 작(爵)은 새 모양의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벼슬과 지위를 통틀어 작위(爵位)라고 한다.

온당할 타(妥)는 한 남자의 손에 붙잡힌 여자의 모양인데, ‘온당하다’의 의미로 된 것은 아마 그것을 여자의 숙명으로 보았기 때문이리라. ‘타당(妥當)하다’는 말은 ‘마땅하다’의 의미이고, 타협(妥協)이란 말은 ‘서로 양보하며 협의함’을 뜻한다. 남북 간의 문제는 대화(對話)와 타협(妥協)으로 풀어 나가야지.

할 위(爲)의 갑골문 형상은 ‘손으로 코끼리의 코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부리다’, ‘하다’의 의미로 발전한다. 행위(行爲), 위정자(爲政者)로다. 성인의 덕이 지극하여 인위적(人爲的)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지는 ‘무위지치(無爲之治)’는 꿈일 뿐인가. 심한 남남갈등은 적의 공격 없이 자폭하는 일이다. 남남이든 남북이든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은 없는가.

‘얼굴 面’ 이야기

얼굴을 가리키는 우리말에는 ‘쪽’·‘낯’·‘얼굴’이 있고, 한자에는 ‘얼굴 面(面)’·‘얼굴 용(容)’·‘얼굴 안(顔)’ 등이 있다.

‘쪽팔리다’라고 할 때의 ‘쪽’은 얼굴의 속된 표현이고, ‘낯’은 예사 말이며 ‘얼굴’은 그나마 점잖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얼’은 정신이나 영혼을, ‘굴’은 풀이나 모양을 뜻한다. 따라서 얼굴은 순 우리말로써 ‘얼의 풀’, ‘정신의 모양’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얼굴의 원형은 ‘얼굴’로 ‘형태’의 뜻이었다. ‘어지럽다’, ‘어질다’, ‘어리다’, ‘어린이’, ‘어르다’, ‘어른’, ‘어리석다’, ‘얼간이’ 등은 모두 ‘얼’과 관련한 말로 보인다. 사람의 얼굴에는 23개의 뼈에 좌우 각각 22개의 근육이 무한한 표정을 짓게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얼굴 面(面) 자 이야기를 해보자. 한 해가 서는 날이라 하여 ‘설

날’이라 하는데, 설날이 되면 많은 친지와 면면(面面)이 있는 고향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면(面) 자의 모양을 보면 면(面) 자 한가운데 속에는 코를 가리키는 자(自)가 들어 있다. 면(面) 자 위에는 이마를 나타내는 일(一)이 있고, 좌우에는 뺨이 에두르고 있다. 면(面)의 구성요소는 이목구비(耳目口鼻)다. 귀, 눈, 입, 코가 그것이다. 발음을 해보면 귀, 눈, 입, 코처럼 중요한 것은 한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지 않은가.

그러면 면(面)의 구성요소인 이목구비(耳目口鼻)를 살펴보자. 이(耳), 목(目), 구(口)는 모양을 본땀다. 비(鼻)는 코의 뜻을 나타내는 스스로 자(自)와 음을 나타내는 낯을 비(卑)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 자(自)는 코를 뜻했으나, ‘~부터’, ‘저절로’, ‘자신’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므로 코만을 뜻하는 비(鼻) 자를 새로 만든 것이다.

어디, 자(自) 자의 의미 확장 내력을 알아볼까나. 코로 숨쉬기 시작함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로부터’의 의미가 생성되었다. 또 숨 쉬는 일은 자율신경계에 의하여 무의식중에 저절로 이루어지므로 ‘저절로’, ‘스스로’의 의미가 생성되었다. 자(自)에는 ‘자신’의 의미도 있는데, 이는 사람의 중심은 머리이고 그 중앙에 코가 있기 때문이다. ‘얼굴 面(面)’, ‘머리 수(首)’, ‘머리 혈(頁)’에는 공통으로 자(自) 자가 숨어 있다. 수(首)에는 머리카락이 보이고, 혈(頁)에는 수염이 보일 뿐.

페이지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는 ‘쪽’, 또는 ‘면(面)’을 사용하지
만, 중국에서는 ‘혈(頁)’을 쓴다. 그런데 이때의 발음은 ‘잎 엽(葉)
과 같이 /엽/으로 읽어야 한다.

기초 행정 단위로 읍(邑), 면(面), 동(洞) 등이 있다. 여기서 면
(面)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굴[面靨]
을 관별할 수 있는 숫자가 면(面) 단위의 5천 명 안팎이 되기 때문
이란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면면(面面)이 있는 사람의 경계가
행정단위 면(面)이 된 것이다. 집안에 혼사가 있거나 초상이 나면
면면(面面)이 있는 면내(面內)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것은, 당연히
만들기 쉽고 먹기 쉬운 ‘국수 면(麵)’이 제격이렸다. 얼썩.

잠잘 면(眠)도 재미있는 글자다. 면(面)을 봐야 면(眠)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수면(睡眠)이라는 단어의 두 글자는 눈이 드리워져
[垂衿] 있거나 감고[民眠] 있는 모습이다.

이쯤이면 금주는 원고 투고 책임을免(면할 면)할 수 있겠다. 귀
한 지면(紙面)에 부족한 내용이라 면목(面目)이 없지만, 독자의 호
응에 따라 면면(綿綿)히 이어질 수도 있으리라.

웃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웃음이란 무엇인가. 웃음이란 사람의 감정을 표정이나 목소리
로 나타내는 방식의 하나다.

웃음이라 하면 주로 기쁨의 표현이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한다. 기쁨은 기분
이 좋아 ‘기를 뿔음’에서 온 말로 생각된다. 그러나 피곤하거나 심
심하거나 졸릴 때 절로 입이 벌어지면서 나오는 깊은숨은 ‘하품’이
라고 하는데, 하품은 ‘아래로 길게 뿔음’에서 온 말이 아닐까 한다.

우리말 ‘웃음’의 어원은 무엇일까. 웃음을 분석하면 ‘우(위) + 숨’
으로 볼 수 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코 또는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삶의 기
쁨에서 오는 숨’, ‘기분이 업그레이드된 숨’의 의미에서 ‘웃숨’을 ‘웃

음'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본다.

웃음에 해당하는 한자는 웃을 소(笑)다. 소(笑) 자의 전서 형태는 분명하게 '대 죽(竹) + 개 견(犬)'으로 쓰고 있다. 이는 웃음의 두 종류를 나타낸다고 본다. 하나는 댓잎이 바람에 서걱거리듯 성대를 울리지 않고 작게 웃는 웃음이고, 또 하나는 개가 짖듯이 성대를 울리며 크게 웃는 웃음이다.

나중에 개 견(犬) 대신에 어릴 요(夭) 자를 쓴 것은 우선 발음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웃을 때의 모습을 상형했다고 볼 수 있다. 요(夭) 자는 '별(丿) + 대(大)'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별(丿) 자는 사람이 목을 가우똥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요(夭) 자는 '요염한 자태, 젊음' 등의 의미로 파생된다.

웃음에 어떤 접두사를 붙이느냐에 따라 웃음의 다양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예컨대 눈으로만 웃는 웃음은 눈웃음, 코로 소리를 내며 웃는 웃음은 코웃음, 마음에 없이 소리만 내는 웃음은 헛웃음, 크게 소리를 내며 시원하고 당당하게 웃는 웃음은 너털웃음, 남을 비꼬거나 업신여기는 웃음은 비웃음이라 한다.

그리고 한자어로 표현되는 웃음의 종류도 다양하다. 손뼉 치며 크게 웃는 박장대소(拍掌大笑),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며 크게 웃는 파안대소(破顏大笑), 깔깔대며 웃는 가가대소(呵呵大笑),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는 양천대소(仰天大笑),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홍소(哄笑), 이야기하며 웃는 담소(談笑),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미소(微笑),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실소(失笑),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폭소(爆笑), 부끄러워 웃는 치소(恥笑) 등이 그것이다.

웃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웃음도 있다. 쓴웃음은 고소(苦笑), 코웃음은 비소(鼻笑), 터무니 없거나 같잖은 웃음은 가소(可笑), 거짓웃음은 가소(假笑), 가벼이 생각하여 웃는 경소(輕笑), 독기를 품고 웃는 독소(毒笑),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며 웃는 냉소(冷笑), 조롱하면서 웃는 조소(嘲笑), 비웃는 비소(誹笑) 등이 그것이다.

'일소일소(一笑一少) 일노일로(一怒一老)'라 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는다는 뜻의 격언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동요 같은 운율이 느껴지는 것은 '웃을 소(笑)'와 '젊을 소(少)', '성낼 노(怒)'와 '늙은이 로(老)'처럼 발음의 유사성이 주는 언어의 유희성 때문이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영어에서 건강(health)과 행복(happiness)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웃음(hele)에서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먼저 웃어야 한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따라 웃는다. 이것이 웃음의 에코(echo) 효과다.

빅토르 위고는 “인간만이 웃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웃음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거울을 몰아내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다. 니체는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최후에도 역시 웃을 것이다”라고 했다. 오늘은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만약 지금 당신이 웃고 있다면 당신은 정녕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아싸가오리.

세상의 울타리, 서울

한반도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백두산은 머리가 되고, 두류산에서 출발하여 금강산·설악산·오대산·태백산에 이르는 줄기는 척추가 되며, 소백산맥 중 속리산까지는 넓적다리뼈가 되고, 지리산까지는 정강뼈를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서울은 인체로 볼 때 어디에 해당할까. 아마 명치쯤이 되지 않을까. 명치란 사람의 복장뼈 아래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곳으로 급소의 하나다. 명치를 한자로 명문(命門)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명(生命)의 문’이란 뜻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생명의 문이자 생명의 근본이다. 따라서 서울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서울이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그러므로 명치 서울을 명치(明治)해야 한다. 밝게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서울, 내가 1982년 3월부터 서울에 살고 있으니 올해로 만 30년을 채운 셈이다. 처음에는 생활환경, 자연환경, 일상언어, 인간관계 등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무척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서울이란 ‘서서 올 수밖에 없는 도시’라고 생각했다.

‘서울’이라는 명칭은 순우리말 지명으로 원래는 신라, 백제, 고구려 등에서 사용했던 보통명사로 보인다.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기록에 보이는 ‘서벌(徐伐)’, ‘서라벌(徐羅伐)’, ‘서나벌(徐那伐)’, ‘서야벌(徐耶伐)’ 등은 신라 초기 도읍지 이름인 동시에 국명이기도 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등에 보이는 ‘사루(斯盧)’, ‘사라(斯羅)’, ‘신로(新盧)’ 등의 국명도 ‘서울’과 같은 음훈(音訓)으로 서벌, 서라벌 등의 다른 표기에 지나지 않는다. 곧 ‘서라벌’은 ‘새 벌’의 의미이고 한자로 음차하면 ‘신라(新羅)’가 된다. 또한 《삼국사기》 등에서 서라벌(徐羅伐)을 금성(金城)으로도 표기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쇠벌(鐵原)’이라는 설도 있다.

백제에서는 백제의 서울을 ‘소부리(所夫里)’라 했다. ‘소부리’의 ‘소(所)’는 ‘숫’, ‘술’, ‘숫대’, ‘술개’의 뜻으로 ‘높다’는 의미이고 ‘부리’는 ‘벌’ 또는 ‘높은 곳’의 의미였다. 결국 ‘소부리’는 ‘높은 벌’이라는 말이 된다. 백제의 수도 ‘부여(夫餘)’의 옛 지명을 ‘소부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구려의 첫 도읍지 ‘졸본(卒本)’은 본디 ‘솔본(率本)’의 오기로, ‘솔본’ 역시 서울을 가리키는 고구려 사람들의 옛말 중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솔본은 현재 중국 요녕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에 있는 오녀산성(五女山城)이다. 솔본의 의미도 ‘서라벌’이나 ‘소부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결국 서울이란 지명의 유래는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음이 변천하여 서울이 되었다는 설, 백제 때의 ‘소부리’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 고구려의 수도 ‘솔본(率本)’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 세 가지 이론이 정립(鼎立)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로 서울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서라벌(徐羅伐)’의 ‘서라(徐羅)’·‘소부리(所夫里)’의 ‘소(所)’·‘솔본(率本)’의 ‘솔(率)’ 등은 각각 우리말 ‘새’·‘수리’·‘숫’·‘술’의 음을 빌린 것으로 ‘새롭고 높고 신령하다’는 뜻이고, ‘벌(伐)’·‘부리’·‘본(本)’ 등은 ‘벌판’의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은 ‘새 벌·새 벌판·신령한 들판’의 뜻으로 한자어로는 ‘신도(新都)·상도(上都)·신도(神都)’라 할 수 있으니, 이를 포괄적으로 말하면 ‘수도(首都)’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서울’은 본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중국어 표기는 ‘首爾^{수이}’이고, /셔우얼/이라 발음한다. ‘首爾’의 우리 한자 발음은 /수이/지만 현대 중국 발음으로는 /

서울/과 가깝고, 의미 또한 괜찮다는 판단에서 2005년 1월 19일 당시 서울시 이명박 시장은 서울의 중국어 명칭을 ‘한성(漢城)’에서 ‘수이(首尔)’로 고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명이나 인명 등을 부를 때 현지 발음을 존중해서 적기로 한 규약에 기인한다. 물론 공청회와 여론을 거쳐서 인위적으로 정한 중국어 명칭이라 하겠다.

‘서울’이 ‘서러워서 울다’에서 왔다는 민간 속설이 있는데, 이는 임병양란(壬丙兩亂)과 왜정(倭政)으로 말미암은 상실의 아픔에서 생긴 말이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백성이 끝까지 믿고 있는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은 서러워 울 정도를 지나 피를 토할 일이다. 허얼.

또 한 가지 민간 어원설이 있다.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개성(開城)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전국을 찾아다니다가 너무나 지쳐서 지금의 왕십리(往十里) 근처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 말고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키기에 그쪽으로 가보니 눈[雪]이 신비하게도 성벽처럼 두르고 있었다. 눈이 두른 길을 따라 성벽을 쌓고 도읍을 만든 것이 **雪鬱**(설울)이다. 곧 눈 설(雪), 막힐 울(鬱)에서 ‘서울’이란 말이 유래했다는 것이다. 또 한 번 웃는다.

삼국시대의 각축장이었던 서울은 ‘위례성’, ‘한산주’ 등으로 불리

다가 통일신라 경덕왕 14년인 7년에 한양군(漢陽郡)이 설치되면서 비로소 ‘한양(漢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고려시대에는 ‘양주(楊州)’, 조선시대에는 ‘한성(漢城)’, 일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으로 불리다가 1946년부터 ‘서울’로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은 어느 시대에나 늘 사용되던 보통명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고유명사화한 것이다. 1394년 조선 왕조의 정도(定都) 이래 지금까지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이 아니라 세계 속의 서울로 거듭나고 있다. 1988년 하계올림픽, 2000년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002년 FIFA 월드컵,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다. 서울은 이미 국제적인 대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서울이 정녕 제 이름값을 하려면 ‘서라벌’, ‘소부리’, ‘솔본’이 다스리던 모든 영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까지 아우르는 서울이어야 한다. ‘首尔’가 이름값을 하려면 세상에 우뚝 서서[首] 너[尔]에게 다가가는 수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영어권에서는 서울을 ‘Seoul’로 표기하고 /쏘울/로 발음한다. 또 불어권에서는 ‘Séoul’로, 에스파냐권에서는 ‘Seúl’로 표기하며 모두 /쎄울/로 발음한다. ‘Seoul of Asia’를 넘어 ‘세상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세울(?)’로 거듭나길 바란다.

옷이 날개라

한겨울은 성큼 다가왔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물가까지 올라가니 날씨는 물론 마음마저 춥다. 이런 때 스타일은 다소 구질 지언정 내복을 갖춰 입으면 3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새삼 옷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다. 오늘은 건강은 물론 경제적 도움도 주는 옷 이야기를 해볼까나.

‘집, 지붕, 짓다’ 또는 ‘먹다, 묻다(問訊), 물다, 마시다’ 등의 단어가족을 살펴보면 발음이 통하면 의미도 서로 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옷, 의(衣), 입다, 이불’의 동원어 가설은 지나친 발상일까.

‘아랫도리, 윗도리’의 ‘도리’는 옷의 의미로 ‘돌려 감다’에서 온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등의 순우리말

에 ‘옷’이 붙지 않음은 두고두고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치마는 여성을 지키기 위하여 ‘치고 막음’에서, 저고리는 브래지어와 같은 개념의 ‘젓 고리’에서, 바지는 ‘발을 지키는 베’에서, 두루마기는 추위로부터 ‘두루 막기’에서 오지 않았나 하고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옷에 해당하는 한자는 의(衣)와 복(服)이다.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의복(衣服)이 된다. 그리고 옷은 안팎으로 나누어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내의(內衣), 내복(內服)이라 하고, 겉옷은 외의(外衣), 외투(外套)라고 한다.

옷 의(衣) 자는 옷을 입고 깃을 여민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본디 ‘옷옷’을 가리켰다. 옷옷을 의(衣)라 한다면 아래옷은 상(裳)이라 하고, 따라서 옷 전체는 의상(衣裳)이 된다.

그러면 의(衣)와 관련한 글자부터 살펴보자.

우선 의지할 의(依) 자의 갑골문을 보면 ‘인(亻) + 의(衣)’가 아니라 의(衣) 안에 인(人)이 들어 있다. 옷이야말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의(依) 자는 ‘의지하다’, ‘기대다’의 의미다. 의지(依支), 의뢰(依賴), 귀의(歸依)로다.

치마 상(裳)은 숭상할 상(尙) 밑에 의(衣) 자가 드리워져 있으니 치마는 밑으로 드리워진 옷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발음은 상(尙)이다.

겉과 속을 표리(表裏)라고 하는데, 잘 살펴보면 겉 표(表)와 속

리(裏)자 속에는 모두 의(衣) 자가 들어 있다. 이를 보면 표리(表裏)라는 말은 옷의 안팎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表) 자는 모피 털이 있는 옷을 겉쪽으로 입는다 하여 ‘겉’, ‘바깥’을 뜻하고, 리(裏) 자는 의(衣) 안에 마을 리(里) 자를 넣어서 ‘안’이라는 뜻을 가진다. 마을 리(里)는 발음도 되고, 마을의 속성이 동굴 속이나 골짜기 안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한자도 모양만큼이나 발음도 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 /표/라고 하면 ‘겉 표(表)’, ‘표 표(票)’, ‘우듬지 표(標)’, ‘나무깎 표(飄)’, ‘물에 뜰 표(漂)’에서 보듯이 모두 ‘겉, 나타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표정(表情), 우표(郵票), 목표(目標), 표연(飄然), 표류(漂流)로다.

쇠할 쇠(衰), 상복 쇠(衰)는 같은 글자로 의(衣) 안에 축(丑) 자가 들어 있다. 축(丑) 자는 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음력 ‘선달’을 나타낸다. 옷 안이 추우니 ‘쇠한 옷’을 나타내고, 그런 느낌의 옷은 여지없이 ‘상복’이다. 성쇠(盛衰), 쇠복(衰服)이로다.

이불 금(衾)은 이제 금(衿)이 발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뭔가 덮고 있는 모습이니 ‘이불’이 된다. 금침(衾枕), 원앙금(鴛鴦衾)이로다.

슬플 애(哀)는 옷을 풀어헤치고 입을 벌리고 울고 있는 모양이다. 그 울음소리도 /애~/인 것은 분명하다. 애도(哀悼), 애걸(哀乞), 애통(哀痛), 비애(悲哀)로다.

속마음 충(衷)은 중(中) 자가 들어 있느니 ‘속마음’ 또는 ‘속옷’의 뜻이다. 속에서 우리나라는 참된 마음은 충심(衷心)이요, 마음속에

서 우리나라는 참되고 진실한 뜻은 충정(衷情)이로다.

곤룡포 곤(袞)에 들어 있는 글자는 공(公) 자의 변형이므로 귀인이 입는 옷이다. 물론 곤(袞)으로 쓰기도 한다. 곤룡포(袞龍袍)는 임금의 입던 정복으로 누런빛이나 붉은빛의 비단으로 지었으며 가슴과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았다.

가사 가(袈)는 더할 가(加) 자가 붙어 있으므로 본래 옷에 더하여 어깨에 걸쳐 입는 승려의 옷을 가리킨다. 가사(袈裟)로다.

햇옷 포, 겨울옷 포(袍)는 쌀 포(包) 자가 음과 의미를 나타낸다. 도포(道袍)로다. /포/라고 하면 ‘싸다, 둥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포대기, 세포(細胞), 포옹(抱擁), 포도(葡萄), 포말(泡沫), 포동포동, 포식(飽食), 체포(逮捕), 투포환(投砲丸)이로다. 울커니.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옷, 음식, 집’이다. 입고, 먹고, 사는 곳, 이를 통틀어 한자어로 ‘의식주(衣食住)’라 한다.

흥미 있는 것은 북한어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식의주(食衣住)’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먹을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순을 바꾼 것이리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지금 북한에서는 먹을거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우리의 경우 품위 유지를 중시하여 먹는 일보다 의관(衣冠)을 먼저 챙기는 체면의식이 강하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상대방이

입고 있는 의복(衣服), 곧 겉치레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좋은 먹을거리보다 좋은 옷을 앞세워 호의호식(好衣好食)이라 한다. 객지에 나가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올 때에 성공한 모습을 구차하게 말로 하지 않고 옷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의환향(錦衣還鄉)이다. 그리고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는 속담을 보면 누구나 옷은 새 옷을 찾게 되어 있으므로 유행이나 겉치레를 결코 닦할 수만은 없다.

옷은 몸을 감싸서 가리는 일과 체온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직업이나 신분까지 대변해주기도 하니 분명 생활의 필수 요소다. ‘옷이 날개라’ 또는 ‘옷은 나이로 입는다’는 속담만 보더라도 패션 한국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집은 창조의 공간이다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일이나 신이 우주 만물을 지음을 ‘창조(創造)’라 한다. 창조(創造)라 할 때의 비롯할 창(創)의 초기 금문 형태는 ‘𠄎창’이었다. 무엇을 칼로 가르면 둘로 나뉘는 모습이다. 나중에 이리저리 칼질하는 모습의 ‘井창’ 자를 더하여 ‘𠄎창’으로 쓰다가 발음을 중시하여 서서히 지금의 ‘創창’ 자로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創창’을 ‘곳집 창(倉) + 칼 도(刀)’로 분석해보아도 재미있게 해석이 된다. ‘곳집 창(倉)’은 창조를 위한 공간이요, ‘칼 도(刀)’는 창조를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곳집 창(倉)은 ‘밥 식(食) + 입 구(口)’의 구조이니 입에 들어갈 것을 넣어두는 곳집을 가리킨다. 그런 뜻에서 창조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로 볼 수 있다.

곳집 창(倉) 자 위에는 모일 집(丩)이 있다. 그리고 문 문(門)의 한쪽이 가운데에 있고 거기에 입 구(口)를 받치고 있으니 창조는 물을 문(問)과도 관계있는 일이다. 그리고 칼 도(刀)는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창조의 속성을 창(創) 자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모여서 의논해야 하고, 둘째는 질문이 절대적이며, 셋째는 분석을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곳집’을 가리키는 글자로는 먹을 것을 넣어두는 곳인 창(倉) 이외에 거마(車馬)나 무기를 넣어두는 곳인 ‘곳집 고(庫)’, 나누어 줄 것을 넣어두는 곳인 ‘곳집 부, 관청 부(府)’, 벼를 가득 넣어두는 곳인 ‘곳집 틸(廩)’, 노적가리처럼 잠깐 쌓아두는 곳인 ‘곳집 유(庾)’ 등이 있다.

그러면 지을 조(造)는 어떤 의미인가. 창조한 것을 신(神)에게 고(告)하기 위하여 나아가는[고 칙] 모습이다.

‘집’이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삶의 터전인가. 휴식의 공간인가. 아니면 창조의 공간인가. ‘옷’, ‘밥’, ‘물’, ‘불’, ‘나’, ‘너’처럼 ‘집’도 한 음절의 단어인 걸 보면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3권, 〈중수만일암기(重修挽日菴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十日而棄者蠶之繭也(십일이기자 잠지견야)

六月而棄者蠶之窠也(륙월이기자 연지과야)
 一年而棄者鵲之巢也(일년이기자 작지소야)
 然方其經營而結構也(연방기경영 이결구야)
 或抽腸爲絲或吐涎爲泥(혹추장위사 혹토연위니)
 或拮据茶租口瘖尾譙而莫之知疲(혹길거도조 구도미초이막지피)
 人之見之者無不淺其知而哀其生(인지견지자 무불천기지어애기생)
 雖然紅亭翠閣彈指灰塵(수연홍정취각 탄지회진)
 吾人室屋之計無以異是也(오인실옥지계 무이이시야)

열흘을 살다가 버리는 집은 누에고치고, 여섯 달을 살다가 버리는 집은 제비집이며, 한 해를 살다가 버리는 집은 까치집이다.

그 집을 지을 때에 더러는 창자에서 실을 뽑아내고, 더러는 침을 뱉어 진흙을 반죽하며, 더러는 열심히 풀이나 지푸라기를 물어 나르느라 입이 헐고 고리가 빠져도 지칠 줄을 모른다.

사람들은 이 같은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붉은 정자와 푸른 누각도 잠깐 사이에 먼지가 끼어버리는 것이니, 우리 인간들의 집 짓는 일도 이런 하찮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해남현에 있는 두륜산(頭輪山)에 만일암(挽日菴)이란 암자가 있다. 이는 백제의 승려 정관(淨觀)이 창건한 암자인데, 두운(斗

雲) 스님이 다시 짓고 나서 다산(茶山)에게 <중수기(重修記)>를 부탁한 바 다산이 이에 응하여 쓴 글의 앞부분을 옮겨보았다.

그렇다. 세상에 영원한 집은 없다. 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난 뒤에는 거침없이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버리기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기엔 너무 서글프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 집을 지었지만 요즈음에는 팔기 위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집이라기보다 투자 가치로서의 집을 생각하는 세태를 반영한 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집이란 내부 공간만을 사용할 따름이지 구조물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금은보석과 유리로 지은 고루거각(高樓巨閣)이든 흙과 돌, 초목으로 지은 전통가옥이든 내부 공간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맞은 크기로 짓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쉴 수 있으면 그만이다.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은 새와 곤충과 인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집을 짓는 이유가 새, 곤충과 마찬가지일까?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와 곤충의 집은 똑같지만 인간의 집은 다양하다는 데 있다. 흙집, 돌집, 나무집, 벽돌집, 철근 콘크리트집 등 인간의 집은 소재와 모양 및 그 용도에서 매우 다양하다. 새와 곤충의 집은 그들의 본능에 의한 결과지만 인간의 집은 인간의 창조적 본능에 기인한다고 본다. 인간의 창조적 본능이 용도, 크기, 모양, 재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집을 짓게

했다.

개나 닭, 소나 말은 집을 짓지 않는다. 인간이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 집을 지어줄 따름이다.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착한 일한 것처럼 인간은 회심의 미소를 짓지만 그들의 처지에서 보면 종신형의 죄수처럼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끔찍한 일이다.

새는 하늘을 주 무대로 살아가고, 인간은 땅을 의지해 살아가지만, 곤충은 하늘과 땅을 두루 체험하며 살아간다. 애벌레 시절에는 땅을 기어 다니고 나방 시절에는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니, 그런 점에서는 곤충이 새와 인간을 앞선다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은 왜 집을 짓는가. 그 이유를 건축 연구가 서윤영 씨는 《사람을 닮은 집, 세상을 담은 집》에서 ‘출산(出産)과 양육(養育)’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맞는 말이다. 집은 투자의 대상, 돈벌이의 수단 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위나 위엄의 상징이 되어서도 안 된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집을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임신 기간이 유달리 길고 신생아가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나며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 기간이 매우 길어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소나 말은 태어나자마자 별떡 일어서서 걸을 수 있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1년은 지나야 겨우 일어설 수 있을 정도다.

새와 곤충이 집을 짓는 이유도 출산과 양육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둘 다 하늘을 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몸을 가볍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외수정이 불가피하다. 수정란을 알의 형태로 배출하여 외부에서 부화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은 몸 밖의 자궁(子宮)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역시 미숙아 상태로 아이를 낳아 장기간 집중관리를 해야 하므로 새와 곤충처럼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구석기시대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지금도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집의 근본적 존재 이유는 마찬가지다.

‘집’의 동사형은 아무래도 ‘짓다’가 아닌가 한다. ‘옷을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글을 짓다’, ‘한숨을 짓다’, ‘약을 짓다’, ‘미소를 짓다’, ‘무리를 짓다’, ‘농사를 짓다’, ‘죄를 짓다’, ‘매듭을 짓다’, ‘이름을 짓다’, ‘짜을 짓다’, ‘결말을 짓다’ 등의 예에서 보이듯이 우리말의 ‘짓다’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된다. 또 영어의 ‘build’나 한자의 ‘건(建)’에 비하여 우리말의 ‘짓다’는 삶의 전반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의미 네트워크를 가진 동사다. 무한 창조의 동사다. ‘짓다’의 반대는 ‘허물다’, ‘헐다’다. ‘빌 허(虛)’와 관련이 있다. 허물어야 새로 지을 수 있는 법. 얼썩.

지난 주말에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제11회 소천 사랑방음악회’에서 라이브 서예를 펼쳤다. 집주인 소천 이장학 씨는 노래하고

나는 붓을 잡았다. 그는 남양주시 진건면 와촌리에서 7대째 살고 있다. 지금도 3대가 함께 사는 옛집은 이제 문인, 묵객, 소리꾼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소천과 그의 지우들은 이 집 안팎에서 우리의 전통인 사랑방 문화를 살리기 위해 매년 두어 차례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해왔다. 이 자리는 풍류객이 모여 그야말로 시서화(詩書畫)를 함께 즐기는 어울림의 자리다. 나는 이 자리에서 소천과 함께 다 함께 부르는 민요 〈한오백년〉에 맞추어 ‘소천 소리길, 천년 꽃향기’라고 휘호했다.

오래 묵은 집에서 발효된 예술을 자아내는 특별한 음악회였다. 아무래도 인간의 집은 ‘창조의 공간’이자 ‘풍류의 터전’인가 보다.

시간 + 공간 + 인간 = 삼간三間

초대장을 받아 보면 반드시 일시와 장소가 쓰여 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순우리말로 때와 곳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때와 곳이 없는 인간의 약속은 없다. 제법 분위기가 있는 한 친구는 ‘좋은 날’, ‘좋은 곳’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의 좌표가 설정되어야 분명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 공간이라고 할 때의 ‘간(間)’자를 ‘인간(人間)’에게 왜 붙였을까? 시간과 공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물상도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시간과 공간의 굴레를 벗어나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 곧 시공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유사 이래 지금도 이어지

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축지법(縮地法)에 대한 염원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전화, 텔레비전, 자동차, 비행기는 물론 인터넷, 인공위성 등도 축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공을 극복하고자 노력해보았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시간 속의 무지 짧은 인생이요, 무한한 공간 속의 너무나 좁은 육신에 불과하다. 이를 어찌할 거나!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 비하면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하이데거가 아니라도 실존(實存)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사유하지 않을 수 없다.

46억 년의 지구 역사를 하루 24시간에 비유하면 인간은 자정 1분 17초 전에 세상에 나타났고, 이 중 호모사피엔스 시대는 불과 3초밖에 되지 않는다니 참으로 인생무상(人生無常)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역사시대는 1초도 안 되는 너무나 짧은 시간의 기록이라니, 이 글을 쓰는 자체도 무의미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인류는 예술(藝術)과 종교(宗教)라는 이름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 예술은 가시적인 활동으로 시공을 극복하게 해주고, 종교는 불가시적인 영적인 것으로 무한한 시공을 제공한다. 내가 쓴 시와 글씨가 비록 하찮은 예술품일 지라도 내 손을 떠나 먼 곳에 존재할 수도 있고, 죽은 뒤에도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내 육신의 또 다른 모습이 DNA 암호를 갖고 자손에게 남아 있듯이 내 영혼의 또 다른 모습은 예술이란 이

름으로 세상에 길이 전해지는 것이다. 나는 시공을 초월하게 해주
는 나의 예술, 서예를 몸서리치게 사랑한다. 먹을 밟고 따르는 걸
보니 신묵교(信墨敎) 교주라도 된 느낌이다.

오늘은 시간, 공간, 인간을 삼간(三間)이라 명명하고 붓으로 시
공인간(時空人間) 네 글자를 옛 글씨체로 써보았다.

낮선 시(晝) 자는 시(時)의 갑골문 형태다. 시(晝) 자의 윗부분
지(止)는 지(之)의 고행으로 '간다'는 뜻이고, 아랫부분은 일(日)로
태양을 나타낸다. 곧 시간이란 개념은 '태양의 운행'에서 비롯되었
는데, 나중에 '헤아리다'는 뜻의 촨(寸) 자가 덧붙여 시(時)가 탄생
한 것이다. '태양의 행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공(空) 자의 윗부분은 '굴'을 뜻하는 혈(穴)이고, 아랫부분은 이
글자의 음을 표시하는 공(工)이다. 공간이란 전후좌우의 넓이에
높이를 더한 3차원의 개념이다. x, y 평면좌표에 h라는 높이좌표
를 더하면 완벽한 공간 개념이 선다. 광년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정녕 무한한 공간이다.

인(人)의 갑골문 형태를 보면 팔을 드리우고 직립하고 있는 사
람의 측면 모습이다. 인간은 대지를 굳게 딛고 서서 머리는 하늘로
두고 팔의 자유를 얻는 순간부터 문명의 급속한 발달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간(間)의 원형은 대문 위에 뜬 달의 모습인데, 실은
대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달빛의 의미에서 '틈새', 곧 '사이'라
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생은 짧고
몸은 작다. 하지만 생각하는 동물, 호모사피엔스다. 생각 끝에 시
간, 공간, 인간을 함께 삼간(三間)이라 명명한다. 인간이여, 그대
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라면 그 시간 즐겁고, 그 공
간 아름답게 꾸려나가길…….

잡병雜病 진단

오늘은 질병(疾病)과 관련한 한자를 진찰하고 또, 처방해보고자 한다.

질병(疾病)에 속하는 모든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녘(疒)’이 붙어 있다. 역(疒)은 ‘평상 장(床) + 사람 인(人)’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여기서 환자의 침대부터 살펴보자. 나무 목(木)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쪼아대면 왼쪽은 평상 장(床)이 되고, 오른쪽은 조각 편(片)이 된다. 평상 장(床)으로는 침대(寢臺), 평상(平牀), 병상(病牀), 담장(-牆) 등을 만든다. 모두 장(床)이 들어 있지 않은가. 녘(疒)은 바로 아픈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인(人)을 두(亼)로 바꾸어 쓰고 있는데,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본인이 깔고 누워 있는 형국이다.

지금부터는 글자를 보고 환자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질병(疾病)의 질(疾)은 글자의 모양으로 볼 때 화살 시(矢)를 깔고 누운 것으로 보아 몸 밖에서 들어온 질병을 앓고 있고, 병(病)은 ‘안에서 나올 병(丙)’으로 보아 몸 안에서 생긴 질병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疾은 외상이고 病은 속병이다. 그런데 화살에 맞거나 칼에 베이면 그 외상에 의한 질병으로 빨리 죽는 수가 많다. 그래서 질주(疾走)라는 말에서 보듯이 疾은 ‘빠를 질(疾)’의 의미로 확장된다. 질환(疾患), 병원(病院), 동병상련(同病相憐), 생로병사(生老病死), 무병장수(無病長壽)로다.

우리말 ‘앓다, 아이고, 아야, 아프다, 아픔’ 등은 모두 어원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픔에서 오는 탄성 /아!/를 공유하고 있다.

구제역(口蹄疫)은 사전에 ‘소나 돼지 따위의 동물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병’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입 구(口)와 발굽 제(蹄)로 보아 입과 발굽에 생기는 질병임을 알 수 있다. 전염병 역(疫)은 돌림병이다. 몽둥이 수(攬)를 깔고 누워 있는 것으로 보아 급히 물리쳐야 할 대상이다. 발굽 제(蹄)는 ‘발 족(足) + 임금 제(帝)’다. 제(帝)는 무기 신(辛)을 묶어놓은 모습으로 임금의 힘을 보여준다. 소나 말의 힘은 발굽에서 나온다. 홍역(紅疫), 방역(防疫), 면역(免疫)이로다.

끔찍한 욕으로 ‘지랄염병’이 있는데, ‘지랄’은 간질(癲疾)을, ‘염

병(染病)은 장티푸스를 가리킨다. 간질 간(癇)은 사이 간(間)으로 보아 공간(空間)을 구분하지 못하고 발작하는 것이며, 염병은 물 들일 염(染)으로 볼 때 본인도 모르게 슬쩍 감염되는 전염병(傳染病)이다.

고질(痼疾)의 고질 고(痼)에는 환자가 굳을 고(固) 자를 깔고 누워 있다. 따라서 고질은 병균이 고착(固着)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그나마 자연에 미친 연하고질(煙霞痼疾)은 천만다행(千萬多幸)이로다.

치매(癡呆)의 어리석을 치(癡)에는 환자가 의심할 의(疑) 자를 깔고 누워 있다. 따라서 치매는 매사에 의문(疑問)이 없으니 정신병의 일종이다. 아는 것에 탈이 난 치(痴) 자는 치(癡)의 속자다.

도벽(盜癖)과 같은 묘한 병도 있다. 버릇 벽(癖)에 걸리면 벽(壁)에 부딪힌 인생이다. 하자(瑕疵)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여기의 흠 자(疵)를 보면 이곳[此處]에 흠이 있다고 지적해주고 있다.

그대 피곤(疲困)한가. 피곤할 피(疲)를 보면 피곤함은 피부(皮膚)에 나타난다. 특히 쌍꺼풀이 천만근이다. 피곤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 조심할 일이다.

병이 나기 전에는 증세(症勢)가 있다.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바로잡을[正治] 것을 명령하고 있는 글자가 증세 증(症)이다. 때를 놓치면 통증(痛症)이 생기나니 대처방안으로는 통할 통(通) 자로다. 기맥이 상통해야 통증을 없애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진통(陣

痛)·산통(産痛)·고통(苦痛)은 참으나, 집 안에 토끼가 갇힌 모양의 원통(冤痛)만은 통탄(痛歎)하고 통곡(痛哭)할 일이다.

뜻밖에 봄에 생긴 병이나 사고를 가리키는 말에 ‘탈날 탈(頤)’이 있다. 원래 탈(頤) 자는 턱 이(頤) 자와 동자였으나, 여기서는 우리식 한자로 사용하고 있다. 탈(頤)은 ‘그칠 지(止) + 머리 혈(頁)’의 구조로 볼 때 두뇌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아픈 병이라 할 수 있다

‘입춘 추위에 장독 얼어 터진다’느니, ‘입춘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감기(感氣)는 바깥의 기(氣)에 감염(感染)된 상태로, 이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스트레시처럼 모든 질병의 뿌리는 될 수 있으니 조심하고 피할 일이다.

부귀는 은이지만 건강은 금이다. 혹여 혹한과 같은 질병이 엄습해 올지라도 더한 정신력으로 잘 극복해나가자. ‘병에는 장사 없다’는 말과 ‘병 만나기는 쉬워도 병 고치기는 힘들다’는 속담이 있지만,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의 첫 구절이 좋은 처방이 되겠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병고(病苦)로써 양약(良藥)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겨울 동冬 이야기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얼굴을 보고, 다음으로 이름을 묻거나 명함을 교환하며, 관심이 있으면 취미나 성격 등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자를 만나면 처음에 모양을 보고, 다음으로 음을 확인하며, 관심이 있으면 뜻까지 캐게 된다. 이를 한자의 3요소라 한다.

겨울에 해당하는 한자는 ‘겨울 동(冬)’이다. 동이라는 글자는 첫째, 모양이 있고 둘째, /동/이라는 음이 있으며, 겨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완벽한 공부라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나는 동자를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뜻도 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冬の 모양을 살펴보자.冬은 ‘뒤져 올 치(攴)’에 ‘얼음 빙

(?)이 밑에 붙어 있는 모양이다. 友^치는 ‘천천히 걷다’라는 의미가 있다. 友 속에 숨어 있는 人인 자가 보이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모습이니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다. 얼음 위도 미끄러우므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재미있는 사실은 갑골문과 금문의 冬 자의 모습을 보면 지붕을 꺾꺾 묶고 양쪽 끝에 돌을 매달아 놓은 형상이다. 초가지붕이 세찬 겨울바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 묶어둬야 한다. 이런 사실은 제주도 민속촌에 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冬의 음, 곧 발음 공부를 해보자. 冬의 발음은 /동/이렇다. 추우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움직일 동(動)’자 동동(動動)이다. 추우면 ‘동굴 동(洞)’자 동굴(洞窟)로 들어갈 수도 있다. 동절(冬節)에는 ‘얼 동(凍)’자 동사(凍死)하기 쉬우니 살자면 별 수 있남? 저기 보게나, 동네 앞 얼음판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노는 아이들은 ‘아이 동(童)’자 아동(兒童)들일세그려.

‘얼음 빙(氷)’ 위에서는 미끄러워 /빙빙/ 돌기 쉽고, ‘눈 설(雪)’ 위에서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설설/ 기듯 조심스레 걸어가야 한다.

놀랍게도 /동/이라고 발음하는 한자에는 동굴처럼 속이 빈 글자가 많다. 예컨대 대의 마디마디는 모양이 거의 같고 그 속이 비어 있다는 데에서 ‘같은 동(同)’자를 만들었다. 악기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오동나무 동(桐)’도 속이 비었으며, ‘구리 동(銅)’ 역시 보일

러 시설을 할 때는 동 파이프를 만들어 사용하니 그 속이 비어 있다. 비슷한 발음으로 필통(筆筒)이라고 할 때의 ‘대롱 통(筒)’도 속이 비어야 필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 통(桶)’은 본래 나무로 만든 통이었다. 휴지통(休紙桶), 양철통(洋鐵桶)이로다. 만약 통의 밑둥까지 뚫리면 ‘통할 통(通)’이 되는 것이다. 유통(流通), 통신(通信)이로다.

겨울은 한 해의 끝이다. 그래서 끝을 뜻하는 ‘마칠 종(終)’에 冬이 붙어 있다. 오늘은 이쯤에서 종(鐘)을 쳐야겠다.

화란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山川景霽)를 구경을 가세.

작자 미상의 <유산가(遊山歌)>는 이렇게 시작한다. 봄이 오자 성 안에는 꽃이 만발하여 화려하고, 만물은 바야흐로 기지개 켜고 자라나누나. 화창한 이때를 놓칠세라 친구를 불러 산천 경치를 구경 가자는 노래다.

봄 경치의 특징은 아무래도 꽃 화(花)에 있다. /화/라고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의 변화는 꽃이 피는 모습과 비슷하다.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ㅎ은 후음(喉音)이니 여허자 초발성(如虛字初發聲)이라’ 했다. ㅎ은 목소리이니 허(虛) 자의 첫소리와 같다는 뜻이

다. ㅎ은 가슴 깊은 곳의 따스한 기운이 목을 스치며 나오는 소리로, 오행으로 보면 거울에 해당한다. /나/는 꽃봉오리처럼 둥글고 작게 벌린 입술 모양의 /ㄴ/에서 꽃잎이 피어나는 듯한 입 모양의 /ㅏ/까지 이어지며 나오는 소리다.

/화/ 음에 해당하는 글자에는 빛날 화(華), 꽃 화(花), 벼 화(禾), 그림 화(畵), 화목할 화(和), 말씀 화(話), 재화 화(貨), 변화할 화(化), 불 화(火), 재앙 화(禍) 등이 있고, 이들은 의미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자 한 자 발음을 연상해보면 한자도 원초적으로는 소리글자임이 확인된다. 음이 같으면 뜻도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꽃을 의미하는 글자는 원래 꽃 화(華)였는데 화(花)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 글자는 그 뜻이 빛날 화(華)로 바뀌었다. 빛나는 결혼식은 화혼(華婚)이요, 빛나는 회갑은 화갑(華甲)이다. 들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벼 화(禾)이고, 종이 위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그림 화(畵)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야 마음에서 화목할 화(和)가 싹트고, 그래야 입에서도 고운 말씀 화(話)가 나온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돈이다. 여기에서 화폐(貨幣)라고 할 때의 재화 화(貨)가 나온다.

꽃 화(花)의 근본 속성은 변화할 화(化)에 있다. 풀 초(艹)가 변하여 꽃 화(花)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꽃이 아름답지만 거침없이 자신을 버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견줄 비(比)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형상이지만 ‘변화할 화, 될 화(化)’의 전서 모양은 그중 한 사람이 고꾸라진 모습이다. 비수 비(匕)를 맞아 ‘변화’를 맞은 것이다. 사람도 과일도 비수(匕首)를 맞으면 쉬이 변한다. 비(匕) 자를 손가락 시(匙)의 원형으로 보는 이도 있다. 동물도 먹을 때 건드리면 물듯이 원시 인간의 수저도 때론 무기로 변하기도 했으리라. 양식을 할 때 포크와 나이프를 잡으면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꽃 화(花)와 불 화(火)는 붉다는 점에서 똑같다. 불도 꽃이다. 그래서 불꽃이라 한다. 빛 광(光)은 ‘화(火) + 인(儿)’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소중한 불씨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화창한 봄날엔 전통적으로 화전(花煎)놀이가 인기 있었다. 그러나 산불을 조심할 일이다. 꽃지짐 맛있게 먹고 자칫 잘못하면 화마(火魔)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재앙 화(禍)의 근원이다.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불리일으키기 위한 명절이 찬밥으로 하루를 보내는 한식(寒食) 날이다. 화목(和睦)을 위해 산에 올랐다가 화(火)김에 화(禍)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할 일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찾다가 가화만사패(家禍萬事敗)하기 일쑤다. 재앙 재(災)에도 위에는 물난리요, 아래에는 불난리다.

화창한 봄날인데 어찌할거나. 화전놀이 대신에 좋은 벗 만나 꽃속에 앉아 시와 술이나 즐겨야겠다. 이른바 화간시주(花間詩酒).

아침에 일어나 쪽을 씻으면 낮이 나타나고, 낮을 닦으면 얼굴이 드러난다. 쪽보다는 낮이 낮고, 낮보다는 얼굴이 제격이다. 낮을 얼굴로 만들기 위해 뇌를 맑게 하는 정뇌호흡을 한다. 호흡은 맑은 피를 낳고, 맑은 피는 밝은 얼을 낳는다.

세면 후에 거울 속에 비친 낮을 물끄러미 살펴본다. 순간 ‘눈과 귀가 왜 입보다 위에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본다. 그렇지. ‘말은 적게 하고, 보고 듣기를 많이 하라’는 신의 가르침이 아닐까. 소언다시청(少言多視聽)…….

눈과 귀를 열고 문밖을 나선다. 순간 봄이 오는 소리가 굉음처럼 들려온다. 꽃봉오리가 터지는 소리, 새싹이 돌아나는 소리가 어울려 ‘보춘(報春)’이라는 주제의 그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룬

다. 부드러운 음은 두텁고 단단한 땅을 뚫고 터져 나오면서 드림과 심벌즈 소리를 낸다. 무수한 봄 햇살은 대지를 향하여 씨웅씨웅 날아와 꽃히면서 현란한 현악기 소리를 낸다.

그래, 봄이다. 완연한 봄이 기어코 오고 말았다. 이 땅에 봄을 알리는 꽃으로 세 가지가 있으니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그것이다. '보춘삼화(報春三花)'라고 이름 붙여본다. 보춘삼화가 흐드러지게 피면 흑제(黑帝)는 물러가고 청제(靑帝)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꽃이 나무를 감싸면 나뭇가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때에 나무 밑에 살포시 들어가 보면 나무마다 봄의 궁궐을 이루고 있다.

춘궁기(春窮期)를 보내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나마 춘궁(春窮)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봄꽃이 이룬 궁궐, 춘궁(春宮)의 화려함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거리마다 울타리마다 산기슭마다 보춘삼화의 야외 갤러리가 펼쳐진다.

길가나 언덕에 줄지어 서서 노랑 종을 울리며 봄을 맨 먼저 맞이하는 꽃은 개나리다. 그래서 개나리는 한자어로 '영춘화(迎春花)'라고 한다. 번역하면 '봄맞이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봄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는 노란빛의 작은 종들을 딸랑딸랑 울린다. 개나리의 영어 이름도 재미있다. 'golden bell'이다. 통꽃으로 생긴 개나리는 그야말로 색깔과 모양으로 볼 때 영락없는 황금 종

(鐘)이다. 금빛 찬란한 종으로 장식한 새장 모양의 개나리는 새봄의 희망을 속삭여준다. 불꽃놀이 하듯 황홀하게 피었다가 언제 지는지도 모르게 저버리는 개나리.

'참꽃'에 대한 '개꽃', '참두릅'에 대한 '개두릅', '참가죽'에 대한 '개가죽'의 예처럼 '참나리'에 대비되는 꽃은 '개나리'다. '개'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어감으로 보면 '개나리'는 '참나리'나 '미나리'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수효가 너무나 많아서일까. 내 생각에는 '가히> 가이> 개'의 예에서 보듯이 '가히나리> 가이나리> 개나리'의 변화를 겪지 않았을까 한다. 여기서의 '개'의 의미는 '가까이'의 의미가 아닐까. 왜냐하면 개는 동물 중에서, 개나리는 꽃 중에서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 때문이다. 이 개나리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니 더욱 정감이 간다.

다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한의 봄을 알리고자 작은 키를 발돋움하며 진분홍빛으로 이 땅을 물들이는 꽃은 진달래다. 미주나 유럽에서 온 외국인에게 '진달래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잘 모른다. 진달래가 없거나 흔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azalea'라고 표기되어 있다. /어질리어/로 발음되는데, 과연 진달래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질어질'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희열', '신념', '절제'다. 사랑의 색깔은 아무래도 분홍색이 제격이다. 사랑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나팔처럼 생긴 관악기를 뽀뽀 불고 있는 진달래의 자태.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감정과 희열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절제’가 꼭 필요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요, 지나치면 후회막급(後悔莫及)이렸다.

그런데 진달래에는 아름다운 꽃말과는 달리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중국 촉(蜀) 나라 임금 두우(杜宇)가 억울하게 죽어 그 닢이 두견새가 되고, 그 두견새가 울면서 토한 피가 ‘두견화(杜鵑花)’로 변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전설도 있다. ‘진’ 씨 나무꾼과 한 선녀가 사랑하여 ‘달래’라는 예쁜 딸을 낳았는데, 달래는 사또의 첩 요청을 거절하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에 나무꾼도 딸을 부둥켜안고 울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데, 달래의 시체는 온데간데없고 나무꾼의 시체에서는 빨간 꽃이 피어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성에 딸의 이름을 붙여 ‘진달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끝으로 나무의 옷인 잎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벗고 피는 꽃 벚꽃, 그래서 우리말로 벚꽃은 ‘벚꽃’이라 표기해야 맞을 듯하다. 벚꽃의 영문 표기는 ‘cherry blossoms’이다. 서양 벚꽃은 달콤한 열매 때문에 ‘sweet cherry’라 부른다. 벚꽃은 귀여운 계집아이가 앙앙거리는 것처럼 양증스러워 보였는지 한자어로는 ‘앵화(櫻花)’라고 한다. 앵화(櫻花)는 ‘앵두나무 꽃’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꽃 모양이 닮았고, 버찌와 앵두도 서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리라.

또한 벚꽃이 앵도과(櫻桃科)에 속하기도 한다.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운 정신’, ‘뛰어난 미모’다. 벚꽃처럼 ‘아름다운 영혼’으로 품을 잡자. 이 봄날에 우리 국회도, 우리 경제도, 우리 사회도 겉모습이나 물량주의보다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품을 잡았으면 한다.

봄바람이 인다. 봄날의 아침나절에는 다사로운 햇살이 은밀하게 속삭이며 다가오지만, 오후가 되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바람이 왜 불까? 나무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삼투압 현상만으로는 그 많은 꽃잎과 새잎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바람이 불면 원심력에 의하여 물이 더 빨리 공급된다. 여름철이 되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에 나무는 더 많은 잎을 튼실하게 달고, 더 많은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한다.

봄은 물이 오르는 계절이다. 바람아, 불어라. 봄바람아, 일어라. 보춘삼화(報春三花)가 다 질지언정……. 꽃이 무척 아름답지만, 꽃을 버려야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얼썬.

금벥이의 우화등선羽化登仙

매미는 한자로 선(蟬)이다. ‘벌레 충(虫)’에다 ‘홀 단(單)’ 자가 어우러진 글자다. 단(單) 자에 대한 어원으로는 ‘싸움 전(戰)’ 자에서 보듯이 끝이 갈라진 나무막대기[干] 끝에 돌[口] 두 개를 달아놓은 무기라는 설이 지배적인데, 나는 매미의 상형으로 본다. 워낙 시끄러우니까 두 눈 대신에 입 구(口) 자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이다. 입 구(口) 자 두 개를 합하면 ‘시끄러울 환(𠂔)’ 자가 된다. 참선의 의미가 있는 선(禪) 자를 보면 하늘의 계시[示]를 받으려고 매미[單]처럼 면벽하고 앉아 있는 수도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대목에서 ‘선’ 자 타령이나 해볼진저.

신선 선(仙) 자, 선인(仙人)은

매미 선(蟬) 자, 선익(蟬翼) 달고
우화이등선(羽化而登仙) 하고
착할 선(善) 자, 선인(善人)은
먼저 선(先) 자, 선인(先人) 따라
선행(善行)을 선양(宣揚)하며
선방(禪房)의 승려들은
나뭇가지의 매미 선(蟬)처럼
면벽(面壁)하고 참선(參禪)일세.
임금도 때가 되면
왕위를 선양(禪讓)하고
당선인(當選人)도 때가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니
국민과 선연(善緣) 맺기
게을리해선 안 된다네.
선머슴 같은 이내 몸은
배 선(船) 자, 선상(船上)에서
부채 선(扇) 자, 선자(扇子) 들고
선선한 바람이나 맞으니
무엇을 선망(羨望)하랴,
선경(仙境)이 따로 없네.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걸 보니 정녕 한여름인가 보다. 이번 여름에도 여지없이 도심에까지 매미가 날아들어 밤낮없이 뿐뿐~ 하며 더위를 토해대니, 우리 집의 창문도 선성(蟬聲)으로 가득 찬다. 어찌 된 일인지 시골 매미는 분명히 낮에만 울었는데, 도시 매미는 밤낮이 따로 없다. 인간이 만든 전기불빛이 밤낮 구분을 흐리게 만든 탓일까. 후텁지근한 열대야에 매미 울음까지 더 하니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에 단잠 설치기 일쑤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낙동강 상류의 한 시골 마을에서 보냈다. 남녀 조무래기들이 어울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를 ‘사연도 좋군, 만나면 어떠리’라고 재미있게 말하면서 하루를 보내던 그런 시골이었다. 물론 매미 소리에 얽어 슬뻐 던지는 말이렸다. 그 당시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나 강변 미루나무에서 들려오던 매미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장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이라도 청하면 자장가가 따로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도심 매미는 자동차의 소음에 항거라도 하듯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다. 아마 아파트 벽의 공명 효과에다가, 낮보다는 그래도 조용한 밤이라는 상황 때문에 더 야단스럽게 들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린 시절의 하루는 어찌 그리 길었던지. 온갖 놀이로 긴 여름 낮을 매우곤 했다. 가느다란 막대기 끝에 쇠 꼬리털을 뽑아 올라미를 만들어, 나뭇가지에 올라가 매미잡이 하면서 한나절을 보내

기도 했다. 매미를 잡다가 싫증이 나면 밭 언덕에 올라 숨죽여 가며 여치를 잡는다. 또 실패하면 실 끝에 보리밥알을 달아 떡개구리 사냥에 나선다. 푹푹한 개구리란 놈은 오줌을 짖 갈기고 도망가는데, 궁금중이 많은 놈은 보리밥알 탐내다가 보리밥알을 문 채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딱지처럼 땅바닥에 나부라져 몸을 파르르 떤다. 불쌍하다 싶어 침을 약 삼아 바르고 호박잎에 싸서 재우고 돌아오곤 했다. 아파하는 개구리를 보고 미안한 마음에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그런데 “뿐~뿐~뿐~뿐~ 찌르르~” 하는 매미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매미의 일생을 알고부터는 오히려 그 소리를 진지하게 듣게 되었다. 굼벩이로 땅속에서 6~12년 동안 어렵사리 지내다가 어느 여름밤 바깥세상으로 몰래 나와 화려한 날개를 달고서 한 달도 채 살지 못하고 거침없이 떠나가는 매미. 그리고 보면 굼벩이는 수도자의 모습이요, 매미는 깨달은 자의 의연한 자태다. 매미의 애벌레를 굼벩이라 하는데 누에보다 짧고 통통하게 생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동작이 굼뜨다. 동작이 굼뜨므로 굼벩이라 이름 붙였나 보다.

애벌레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되는 것을 날개돋이, 곧 우화(羽化)라고 한다. 저 느려빠진 굼벩이가 껍질을 벗고 나와 날렵한 날개를 달고 매미 성충으로 된다는 사실은 천지개벽(天地開闢)만큼이나 신기하다.

인간도 옆구리에 날개가 돌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는 꿈을 꾸었으니, 이를 우화등선(羽化登仙)이라 하겠다. 이 말은 달밤에 벗들과 뱃놀이하면서 읊은 소동파(蘇東坡)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나온다.

飄飄乎(표표호)

如遺世獨立(여유세독립)

羽化而登仙(우화이등선)

가벼이 떠올라

속세를 버리고 홀로

날개 돌아 신선되어 하늘에 오르는 듯하구나.

매미는 우화등선(羽化登仙) 이후 한 달을 못 살고 생을 마감한다. 짧은 기간에 수놈은 암놈과 짝짓기 하고 죽고, 암놈은 나뭇가지에 알을 낳고 죽는다. 알고 보니 그 요란한 소리는 병어리 암놈을 유혹하기 위한 수놈의 노래란다. 한 놈이 소리를 하면 주변의 많은 놈이 따라 부르는데, 암놈을 위한 수놈의 대합창이 매미 외에 또 있을까. 종족 번식을 위한 사랑의 오케스트라라고 할까. 아니면 짧은 성충 생애에 대한 한탄의 노래일까.

그 옛날 초가지붕을 일 때면 묵은 이엉에서 많은 굼벵이가 쏟아

져 나왔다. 보기에 흉하지만 한약 재료로 쓰인단다. 속담에 ‘굼벵이가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굼벵이가 떨어지면 남들은 동작이 굼똥 놈이 잘못하여 떨어졌으려니 하고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제 판에는 멋진 날개를 달고 화려한 매미로 변신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다. 남 보기에는 굼뜨고 못난 행동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요긴한 뜻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겠다. 그라제.

‘선부지설(蟬不知雪)’이란 말이 있다. 매미는 눈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눈이 내리기 전에 짧은 생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당랑포선 황작재후(螳螂捕蟬黃雀在後)’라는 성어가 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참새가 그 뒤에 있다는 말이다. 참새도 마음 놓을 일이 아니다. 포수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을지도 모를 일. 약자를 건드리면 그 뒤에 더 강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눈앞의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 덤비다가 보면 결국 큰 해를 입게 된다.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고, 매미에겐 내년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는 말인가.

하루에는 낮과 밤이 갈마들고 인생에는 희(喜)와 비(悲)가 갈마들 듯 여름철에는 더위와 장마가 갈마든다. 대지의 혈떡이는 불벌 더위를 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쏟는 시원한 빗줄기다. 더위와 빗줄기, 이 둘은 삼라만상의 젖줄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논이 벼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이중주다.

그리하여 오늘은 ‘벼 화(禾)’ 자 얘기를 풀어볼까 한다. 화(禾)의 갑골문이나 전서를 보면 한 포기의 잘 익은 벼의 모양이다. 탱글 탱글 잘 익어 고개 숙인 벼 이삭, 벗잎, 대궁, 뿌리까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벼가 주는 최고의 교훈은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겠다. 아니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준 땅에 대한 감사의 인사인가.

벼는 오곡(五穀)의 대표다. 그리하여 곡식 곡(穀)의 부수도 화(禾)다. 곡(穀)은 껍질 각(殼)에서 발음이 왔다.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빵거나 두들겨야 한다. 그래서 ‘치다’는 의미의 몽둥이 수(戛)가 붙어 있다. 곡식(穀食), 곡물(穀物), 갑각류(甲殼類), 지각변동(地殼變動)이로다.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黃鳥歌)>의 배경설화에 왕이 사냥을 나간 사이 ‘꿩 치(雉)’ 자의 치희(雉姬)가 ‘벼 화(禾)’ 자의 화희(禾姬)에게 사랑싸움에서 패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이 땅에 수렵시대가 끝나고 농경시대가 왔다고 평하기도 한다. 이로 보면 적어도 이 땅의 벼 심기는 2천 년은 족히 넘었으리라.

벼를 탈곡하여 껍질을 벗기면 ‘쌀 미(米)’가 된다. 벼를 경상도 사투리로 ‘나락’이라고 하는데 이는 ‘날알’의 의미와 상통하고, 쌀은 우리식 한자로 ‘쌀(粳)’로 쓴다. 쌀밥은 우리의 주식이다. 김이 물씬 나는 쌀밥 한 숟가락에 김치라도 걸치면 연신 목구멍에 도리깨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속설에는 88번 손을 거쳐야 쌀이 탄생하므로 ‘팔십팔(八十八)’을 엮어 ‘미(米)’ 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절묘한 해석이다. 88세를 일컬어 미수(米壽)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기실 미(米)의 갑골문 모양은 벼를 터는 큰 나무막대를 중심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볍씨의 모습이다. 전서에서부터 막대기가 열 십(十) 자로 바뀌어

오늘날의 글자 모습이 나온다. 지금 중국에서는 쌀을 대미(大米), 조를 소미(小米)라 한다. 그리고 소리를 취하여 미터(m)를 미(米)로 쓰니, 100미터는 곧 백미(百米), 1킬로미터는 천미(千米)다.

뽀얀 쌀을 미(米)라고 발음하니 얼마나 이쁘고 미더운가. 아름다울 미(美)도 맛 미(味)도 같은 발음이다. 백미(白米), 현미(玄米), 미곡(米穀), 미반(米飯)이로다.

그러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알곡은 ‘벼 도(稻)’라고 한다. 도(稻)의 갑골문은 벼를 키질하여 큰 그릇에 담은 모양이고, 금문에는 깃발(旗)이 등장하는데 이는 바람을 이용하여 벼를 까 부는 모습이다. 발음 /도/는 칼 도(刀)나 찡을 도(搗)처럼 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뿡거나 찡는 소리를 흉내 냈다. 밟거나 뛰는 동작도 ‘밟을 도(蹈)’다. 올벼는 조도(早稻), 늦벼는 만도(晚稻), 벳잎에 반점이 생기는 열병은 도열병(稻熱病), 논에 자라고 있는 벼를 세워둔 채 미리 돈을 받고 팔면 입도선매(立稻先賣)로다.

볍씨를 선택하는 방법은 ‘씨 종(種)’ 자에 답이 나와 있다. 볍씨를 물에 담가 쪽정이는 건져내고 무거운(重) 것만으로 새싹을 틔워 못자리를 만들고 모내기를 한다. 예로부터 모내기는 하지(夏至) 전후가 적기라고 했다. 그만큼 벼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벼는 확실히 작열하는 태양을 즐길 줄 안다.

화(禾) 자 타령

벼 화(禾) 자가 들어가서 나쁜 글자는 없다. 어디 ‘화(禾) 자 타령’을 한 곡조 때려볼거나…….

볍씨만은 실한 놈으로 - ‘볍씨 종(種)’,
모두 모여 모 읊기세 - ‘읍길 이(移)’,
여긴 내 논, 저긴 네 논 - ‘일컬을 칭(稱)’,
모를 심되 세워 심세 - ‘모 앙(秧)’,
피란 놈은 뽑아주세 - ‘피 패(稗)’,
벼란 놈이 잘 자라면 - ‘빠어날 수(秀)’,
늘어진 이삭 은혜롭다 - ‘이삭 수(穗)’,
벼가 익어 고개 숙이면 - ‘대머리 독(禿)’.

낮을 갈아 벼를 베세 - '날카로울 리(利)',
 이삭 하나 흘리지 말고 - '거들 색(穡)',
 기분 좋게 벼를 베세 - '벼 벨 확(穫)',
 한 포기 잡으면 - '잡을 병(秉)',
 두 포기 잡으면 - '겸할 겸(兼)',
 가을 햇살에 잘 말려서 - '가을 추(秋)',
 화목하게 탈곡하세 - '화목할 목(穆)',
 까끄라기 조심하소 - '까끄라기 묘, 초 초(秒)',
 벗짚은 말려 소 먹이세 - '벗짚 고, 원고 고(稿)',
 찢어야 먹을 수 있지 - '벼 도(稻)',
 또랑또랑 알 나온다 - '쌀 미(米)',
 바라는 건 풍년이나 - '드물 희(稀)',
 말로 할 땐 언제나 - '겸손할 겸(謙)',
 추수 감사하러 가세 - '길 정(程)',
 곡식 신은 직신일세 - '오곡 신 직(稷)',
 벼로써 받든 나라 - '나라 진(秦)',
 말로 되어 세금 내세 - '과정 과(科)',
 무슨 세금 또 나오나 - '구실 조(租)',
 이왕 낼 거 기꺼이 내세 - '세금 세(稅)',
 남는 것으로 익혀나 보세 - '향기 향(香)',
 도둑맞으면 곤란하다 - '숨길 비(秘)',

부족하면 다른 것 있으니 - '기장 서(黍)',
 한술 떠서 입에 넣으면 - '화할 화(和)',
 벼 없이는 나도 없네 - '사사 사(私)'로다.
 얼씨구~ 잘한다.

* 사직(社稷): 땅의 신은 사(社), 곡식의 신은 직(稷).

화목할 목(穆)의 갑골문은 벼가 익어 이삭이 떨어지는 모습이
 다. 오른쪽의 백(白)은 이삭, 소(小)는 떨어지는 알곡, 삼(彡)은 바
 람이다. 벼를 추수하여 말리고, 바람을 일으켜 탈곡하는 모습이
 다. 화목(和睦)이라 할 때의 화목할 목(睦)은 눈[目]으로 언덕[土
 畷]을 바라볼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화목해질 수 있다는 의미였
 다. 발음은 목(目)에서 왔다.

과학(科學)이라 할 때의 과정 과(科)는 '말[斗]로 벼의 분량을
 되다'가 본뜻으로 나중에 '조목', '등급' 등의 뜻도 가지게 되었다.
 과학은 말로 벼를 되듯 정확해야 한다. 벼의 등급을 매긴 다음에
 할 일은 조세(租稅) 납부다. 세금 조(租)의 '또 차, 장차 차(且)'는
 벼를 차곡히 쌓아서 나라에 바치라는 뜻이요, 세금 세(稅)의 기뻐
 태(兌)는 벼를 기분 좋게 바치라는 뜻이다. 험~ 살림 되네.

비밀(秘密)의 숨길 비(秘)와 뻥뻥할 밀(密)의 공통점은 반드시
 필(必) 자가 들어 있다는 사실. 필(必)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두
 (斗)와 흡사한데, '긴 자루가 달린 도량형기'다. 여기에서 '비밀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과 '도량형기처럼 정확히 지키라'는 두 가지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다. 아싸.

향기(香氣)라고 할 때의 향기 향(香) 자의 밑에는 왓(曰)이 붙어 있다. 이는 입(口) 안에 혀(一)가 보이는 왓(曰)이 아니라 '밭 없는 술'의 상형이었다. 그러므로 최고의 향(香)이란 '술에서 밥이 끓는 냄새'라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구수한 밥 냄새보다 더 좋은 향기가 어디 있으랴. 꿀꺽. 달콤한 밥을 먹고 싶어 전서에서는 왓(曰) 대신에 달 감(甘)로 썼는데, 사실 굉장한 코미디다.

기실 향(香) 자는 본디 '기장 서(黍) + 구(口)'였다. 기장은 요즈음 보기가 쉽지만 오곡의 하나로 벼과에 속하며, 달콤한 향기가 좋아서 술·떡·엿 등을 만들어 먹었다. 향취(香臭), 방향(芳香), 향수(香水), 국향(國香)이로다. 은은한 난향(蘭香)이나 진한 커피 향까지도 좋다. 하지만 향기 나는 미끼라고 덥석 물다가 죽는 고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든 분위기 스캔을 잘해야 할 것이구먼. 아싸가오리.

인간을 움직이는 두 축인 '이름 명, 명예 명(名)'과 '날카로울 리, 이로울 리(利)'를 합쳐서 명리(名利)라고 한다. 명(名)에는 어두움[夕]이 짓누르고 있음을, 리(利)에는 매서운 칼날[利]이 옆구리에서 걸떡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 췌. 떠가는 구름 위에 명리를 던질 거냐? 오케이마리. 이익(利益), 이자(利子), 어부지리(漁父之利), 감언이설(甘言利說), 이해득실(利害得失), 건리사의

(見利思義)로다.

여름 석 달이 벼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절이다. '가을 추(秋)' 자를 보면 벼는 가을에도 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추(秋) 자의 갑골문 형태는 복잡한 가을 추(穉)였는데, 벗잎에 벼메뚜기가 붙어 있는 모양이다. 우리 선조는 메뚜기도 잡아먹고 벼도 추수해 먹었으니 가을에는 그럭저럭 먹을거리가 풍족했음을 알 수 있다. 구(龜)에서 /추/라는 발음이 왔다.

여름은 더워서 좋고, 겨울은 추워서 좋다. 여름은 오곡백과를 성숙하게 하고, 겨울은 땀 흘려 일한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 성숙과 안식이 번갈아 가며 나이테를 만드는 게 아닌가. 고로 이 여름이 더울지라도 벼의 결실을 위하여 참자. 파이팅.

때마침 한줄기의 소나기가 대지를 때린다. 하늘의 대지 사랑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여름을 나리. 지금쯤 고향집 앞 논둑에는 토끼풀이 무성히 자라 하얀 별들을 토해내겠지.

비 내려 강으로 흐르다

인류 4대 문명은 모두 물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인간사회의 작은 단위인 마을도 물 없이는 형성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을 동(洞) 자에는 동굴 모양의 동(同) 자 앞에 수(水)가 붙어 있는 것이다.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뒤덮여 있고, 우리 몸의 3분의 2를 물이 차지하고 있다. 신화에서 물은 창조의 원천·풍요·생명력 등을 상징하고, 무속(巫俗)과 민속(民俗)에서 물은 생산력, 정화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교적으로도 물은 마음과 영혼(靈魂)을 씻어주는 중요한 의식에 사용되고 있다.

물은 순환한다. 순환하며 생명을 살리고 있다. 물을 뜻하는 수(水)의 최초 상징적인 형태는 아마도 팔괘(八卦)에서 찾을 수 있다. 태극기의 건곤리감(乾坤離坎) 중에서 감(坎)괘가 물에 해당한

다. 감괘는 두 개의 음(--) 사이에 하나의 양(--)을 가운데 끼워놓은 형상이다. 감괘를 세워놓으면 수(水)자와 비슷하게 되는데, 가운데 긴 획은 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이요, 양편의 두 점은 각각 물의 흐름이 느린 것을 본뜬 것이다. 양은 가운데 하나지만 음은 양쪽에 두 개이므로 음이 강하다. 따라서 물이 음의 방향인 아래 쪽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하다. 음 사이에 양이 삽입되어 수(水)가 되는 이치는, 물을 창조의 원천으로 보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재미있게도 물이 흘러 천(川)이 되었을 때는 가장자리조차 물 흐름이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오행(五行)에 수(水)가 나온다. 방위는 북쪽이고 계절은 겨울에 해당한다. 풍수(風水)에서 풍(風)은 하늘의 작용이므로 양에 해당하고, 수(水)는 땅의 작용이므로 음에 해당한다. 살아서의 집인 양택(陽宅)은 산을 등지고 물을 가까이하는 지세인 배산임수(背山臨水)를 귀하게 여기고, 죽어서의 집인 음택(陰宅)은 바람을 막아주고 흘러오는 물을 바라보는 지세인 장풍득수(藏風得水)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옥편의 214부수 중에 ‘수(水)’ 부에 해당하는 글자가 가장 많아서 7퍼센트 남짓 된다. 그것은 아마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연물은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 우(雨) 자 안에 물 수(水) 자가 보이는가. 하늘[一]의 구름 속[門]에서 내려오는 물[水]이 비[雨]다. 농경사회에서 무당이

방울 령(鈴)을 들고 ‘비 내리기(내리기)’를 비는 주문이 ‘비나이다 ~, 비나이다~’였고, 이 모습의 글자가 바로 신령 령(靈) 자이다. 어느 순간 주문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이 글자가 비울 령(霽)이고, 그러면 백성은 편안할 령(寧) 하게 살 수 있다.

시내 계(溪) 자의 어찌 해(奚)는 발음을 나타내는데, 중국 발음은 /시/다. 우리말로 애 오줌 누일 때 /쉬/ 하거나, 계곡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때 /좌/라고 하는 이치와 같다. 우리말 ‘시내’는 ‘/시/ 하면서 내리는 내’에서 왔다고 하면 억측일까. 산골짜기를 뜻하는 골 곡(谷) 자는 바위 양쪽으로 물이 두 갈래져 떨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계곡(溪谷)이란 단어가 생긴다. 우리말 개천, 실개천도 한자어 계천(溪川)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골짜기[谷]에서 물을 튀기며 목욕하는 모습이 목욕할 욕(浴) 자다. 머리 감을 목(沐) 자는 나무처럼 곳곳이 서서 머리를 감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목욕(沐浴)이란 단어가 생긴다. 또 하나, 세속속(俗) 자와 신선 선(仙) 자의 차이를 살펴보자. 사람이 골짜기에 묻혀 살면 속인(俗人)이 되고, 청정한 산에서 살면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신선(神仙)이 된다.

계곡(溪谷)의 물이 모여 내 천(川)이 되고 천(川)이 모여 강(江)이 되는데, 강 강(江)의 장인 공(工) 자의 원형은 물의 깊이나 너비를 재는 기구에서 출발하여 강의 양쪽 언덕[二] 사이의 거리[一]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변화했다. 강물이 범람하고 나면 땅 주인은

서로 자기 땅을 찾으려고 투쟁할 것이고, 이를 실제로 재어서 해결해주는 사람이 장인 공(工)이다. 그런데 본래 강하(江河)라고 할 때의 강(江)은 장강(長江)을 가리키고, 하(河)는 황하(黃河)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였다.

예부터 군왕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통치의 근간으로 생각해왔다. 치산(治山)으로 삶의 터전을 잘 닦고, 치수(治水)로 먹을 거리를 충분히 공급하는 일이 통치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정치(政治)를 잘한다는 말도 글자를 살펴보면 정답이 나온다. 정사 정(政) 자는 ‘정의(正義)를 위하여 치고 나간다[女]’는 뜻이요, 치(治) 자는 물[氵]과 코[土]와 입[口]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및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 현실은 하나뿐일 듯한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당파, 계파 간에 달라서 가는 길도 다른가 보다. 그 결과 백성의 머리는 헛갈리고 가랑이는 찢어질 판이다.

태풍(颶風, typhoon)은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부르는 말로, 중심 최대풍속이 17미터 퍼 세크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태풍 외에도 인도양의 사이클론(cyclone), 대서양의 허리케인(hurricane) 등의 큰 바람이 있는데, 이들은 발생 장소와 조건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토네이도(tornado)는 ‘돌다’라는 뜻의 라틴어 ‘tomare’에서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매우 강렬한 회오리바람을 말한다.

바람을 뜻하는 한자는 ‘바람 풍(風)’이다. 풍(風) 자를 잘 살펴보면 돛 범(凡)과 벌레 충(虫)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낌과 소리만 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글자로 나타내기

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돛단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 덕분이구나, 하고 돛 범(凡) 자를 사용했을 것이다.

돛 범(凡)은 발음 부호이면서 돛의 모양을 본뜬 글자다. 나중에 ‘무릇, 모두, 평범(平凡)’ 등의 뜻으로 널리 쓰이자 본뜻을 살려두기 위해 천 조각을 막대에 붙여 돛을 올린 모양인 수건 건(巾) 자를 앞에 붙여 ‘돛 범, 돛단배 범(帆)’ 자를 만들었다. 돛단배를 한자어로 범선(帆船)이라 하고, 그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을 출범(出帆)이라 한다.

그런데 풍(風) 자에 벌레 충(虫)은 왜 붙어 있는가? 벌레와 바람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말하자면 충(虫)은 충(蟲)의 약자로 많은 벌레들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살랑살랑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겨우내 칩거하던 벌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좌우지간 바람의 모양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갑골문 시대에는 그 당시 발음이 같았을 봉황새 봉(鳳) 자를 빌려서 바람 풍(風) 대신에 쓰기도 했다. 기실 옛사람들은 상상의 봉황(鳳凰)은 바람의 모습을, 상상의 용(龍)은 구름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비[雨]와 바람[風]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비와 바람이 풍년 풍(豐)을 좌우한다. 입춘에 벽이나 대문에 써 붙이는 글인 입춘서(立春書)에 많이 쓰는 문자로 ‘우순풍조(雨順風調) 시

화연풍(時和年豐)이란 글귀가 있다. 비가 때맞추어 순하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어 시절이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기후가 하늘의 뜻이니 풍년(豐年)도 하늘의 뜻이다. 순풍(順風)에 돛 달고 떠나야 목적지에 쉬이 도달할 수 있지 역풍(逆風)을 맞으면 어렵었다.

바람만을 뜻하던 풍(風) 자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풍속(風俗), 풍경(風景) 등의 뜻으로 확대되었다. 말에 바람이 들면 풍자할 풍(諷)이요, 나뭇잎에 찬바람이 들면 아름다운 단풍 풍(楓)이 된다. 풍자(諷刺)와 단풍(丹楓)이로다.

태풍(颱風)이라고 할 때의 태(颶) 자는 ‘태풍’의 의미를 지닌다. 태(颶) 자에 별 태(台)를 얹은 것은 첫째, 발음이 클 태(太)와 같아서 ‘크다’라는 의미와 통하고 둘째, 높은 곳에 바람이 많이 부니 별에는 더욱 큰 바람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운대(白雲臺)처럼 높고 평평한 곳을 돈대 대(臺)라고 하는데, 대(臺)의 약자는 태(台)다. 지금 중국에서는 태풍(颱風)처럼 복잡하게 쓰지 않고 태풍(台风)이라고 간단히 쓰고 있다.

본디 태(台)는 ‘기쁠 이(怡)’의 본자로 /이/라고 읽었다. 이(怡)의 금문 자형은 입 구(口) 위에 씨 이(目)가 있는 형태로 이(目)가 발음을 나타낸다. 기쁠 때 나오는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이/다. 결과적으로 태 자의 발음은 /태/, /대/, /이/ 등의 셋으로 구분되니 주의할 일이다.

바람과 관련한 한자성어를 찾아볼까나. 바람 앞의 등불은 풍전 등화(風前燈火)요, 말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음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며,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은 풍수지탄(風樹之嘆)이로다.

바람의 종류는 계절에 따라 봄바람은 동풍(東風), 여름바람은 남풍(南風), 가을바람은 서풍(西風), 겨울바람은 북풍(北風)이요, 순우리말로 봄바람은 샛바람, 여름바람은 마과람, 가을바람은 하늬바람, 겨울바람은 늙새바람이로다. 따스한 바람은 온풍(溫風), 뜨거운 바람은 열풍(熱風), 서늘한 바람은 냉풍(冷風), 차가운 바람은 한풍(寒風)이라. 맹렬한 바람은 열풍(烈風)이니, 한문 열풍 불러보세. 가장 과학적인 소리글자 한글은 물론 최고의 표의문자 한자도 우리 선조가 만든 문자로다. 과외 열풍은 독서 열풍으로, 투기 열풍은 봉사 열풍으로 핵~ 바꾸어보세…….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치면 치는 대로, 세상 형편 돌아가는 대로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順理)인데, 오늘은 ‘바람 풍(風)’ 자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구나. 나는 ‘바담 풍’ 해도 여러분은 ‘바람 풍’ 하길 바라나이다.

인기人氣

봄은 볼 게 많아 봄이라 하는가 보다. 보는 순간 지나가는 봄, 그래서 계절어 중에 봄만이 한 음절이다. 이웃집 처녀의 보조개를 엿볼 겨를도 없이 훌쩍 지나가는 짧은 봄인지라 일본어로 봄을 가리키는 말도 이틀이 아닌 하루(はる)인가 보다. 산천에는 꽃이 피고 마음에는 사랑이 피는 봄이다. 보리밥 먹고 방귀 끼는 봄이로구나, 봄 봄. 봄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으면 춘기가 발동한 외양간의 우마(牛馬)도 코로 피리 불며 뒷발질이라도 한다. 식욕이 발동하면 뭐든지 먹고 싶고, 먹고 나면 춘곤증(春困症)에 시달리게 된다.

봄을 가리키는 한자는 봄 춘(春)이다. 햇볕[日憵]을 받아 두꺼운 땅[三畵]을 뚫고 돌아나는 짝[人인]의 모습이다. 봄이면 나무에도 물이 오르고 사람의 다리에도 물이 오른다. 눈에 보이는 물은 내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은 올라간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몸은 늘 겸손하게 낮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기운 기(氣)는 올라야 한다. 그래서 氣를 양어깨에 지는 동작을 기지개라 하고, 기지개를 켜야 몸에 산소가 공급되고 기운이 솟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氣가 하늘로 올라가 뭉쳐서 눈에 보이게 된 것이 구름 운(雲)이다. 雲 자의 원형은 ‘이름 운, 말할 운(云)’이었는데 구름은 날씨를 말해주므로 나중에 비 우(雨)를 云 위에 얹은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에서는 雲을 버리고 다시 云을 쓰고 있다.

氣의 원형은 수기(水氣)가 올라가는 모습인 기운 기(氣)였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뜻하는 ‘기운’이란 단어는 순우리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를 뜻하는 한자어 ‘기운(氣運)’과는 다른 말이다. 곡기(穀氣)가 있어야 기운을 차리지 곡기를 끊으면 죽게 된다. 그리하여 气 안에 곡기를 나타내는 쌀 미(米)를 넣은 것이다. 米 자는 원래는 껍질을 벗긴 모든 곡식을 가리키는 글자였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는 수천 년간 사용해오던 氣 자를 버리고 다시 气 자를 쓰기 시작했다. 한자도 부활하는가 보다. 이외에도 많은 옛 한자들이 부활했다.

그런데 ‘기’가 찬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기가 딱 차기 전에 어느 정도 비운 상태로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기’가 죽거나 ‘기’가 막히면 더 곤란하다. 그러나 ‘기’를 펴고 살기 위해서는 ‘기’를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기’는 통해야 삶의 의

욕이 생긴다.

동양철학에서 ‘기(氣)’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되는 힘을 뜻한다. 기도(祈禱)하면 氣가 올라간다. 오메, 기 살어! 氣를 모으면 기합(氣合)이요, 氣를 나누면 기분(氣分)이다. 화창한 봄 날씨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 하늘의 기분은 기후(氣候)라고 한다. 옛날에는 15일간의 하늘 기분을 氣라 하고, 5일간의 하늘 기분을 候라고 했다. 그리하여 1년을 24기 72후로 나누었다. 오늘날에도 24기, 곧 24절기(節氣)는 달력에 표시되어 있다.

氣가 끊기면 기절(氣絶)하고 氣가 막히면 기(氣)막힌 일이다. 이럴 때는 타고난 기운인 원기(元氣)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생생하고 힘찬 기운인 생기(生氣)가 들고, 활발한 기운인 활기(活氣)를 찾으리라. 나쁜 기운인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의욕이 넘치는 기운인 사기(士氣)를 북돋워야 한다. 역시 가장 좋은 기는 인기(人氣)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기운 기(氣), 눈에 보이는 힘은 힘 력(力)이다. 이 정도면 기에 대한 기력(氣力)을 회복했으리라 보는데, 이 글을 쓰는 본인은 기진맥진(氣盡脈盡)이다. 오늘 氣 자로 너무 氣 죽었나?

출근은 언제나 분초를 다룬다. 다룬다는 의미에서 출근전쟁이라고도 한다. 초겨울 출근길에는 더욱 많은 신경전이 펼쳐진다. 피곤한 퇴근길에 지하철차장까지 내려가기 싫어 지상에 세워둔 차에는 성애가 끼어 앞뒤 분간이 어렵다. 집이 불암산 근처인지라도심보다 많은 서리가 내린다. 차 문을 열고 앉으면 차가운 핸들 잡기가 꺼려진다. 그나마 몇 분을 달리다 보면 차 안 공기는 이내 다사로워지고 차창 앞엔 아침 햇살에 비친 삼각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와, 산옹(山翁)이 구름 모자 대신에 서설(瑞雪) 모자를 썼구나. 간밤에 약간의 첫눈이 내렸나 보다. 눈이 내리니 눈부시다. 순간 빨강 신호등이다. 잠시 차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슬쩍 훑쳐 본다. 내 머리 위에도 여지없이 눈이 제법 내렸다. 닦았구나. 내

인생의 계절도 초겨울로 접어드는가 보다.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외로움과 추위를 달래려는 듯 어깨를 겨루며 다정하게 삼각을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롭다는 생각이 엄습한다.

아니야, 저 산도 셋은 아니야. 하나야. 반백의 늙은이가 먼 길을 가다가 행장을 풀고 하늘을 쳐다보며 홀로 드리누워 쉬는 모습이야. 내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마침 삼각산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여보게, 친구!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거울 좀 보며 살아가게나.”

늙어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아마 털빛이 변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자 늙은이(老) 자는 ‘털 모(毛)’ 자에 ‘변할 화(化)’ 자가 붙어 있는 모양이다. ‘化’ 자의 ‘亻’가 생략된 꼴이다. 곧 늙은이란 털 색깔이 변한 사람이다. 왜 머리카락의 빛깔이 변할까. 그것도 하필 하얗게? 초로의 백발은 한눈에 초겨울의 ‘첫눈’에서 해답을 얻었다. 눈 내린 산길은 조심조심 다녀야 하듯이 머리카락이 희뿌연 사람을 만나면 부딪치지 말고 조심스레 피해 다니라는 비표(秘標)다. 아니면 아예 바짝 붙어 한 몸 되어 함께 걸어가 주든지. 몇 날 되지 않는 머리카락은 백학처럼 고상하다. 비굴하게 늙은 노인보다 더 보기 싫은 것도 없지만, 백학처럼 고고하게 늙은 노인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없다.

진정한 노인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이 깊은 만큼 주름 골도 깊다. 근력이 줄어들듯 만큼 머리숱도 줄어든다. 그러나 오랜 세월 웃음이 지나온 자국인 그 주름 속에는 켜켜이 지혜의 보석이 박혀 있다. '노합생주(老蛤生珠)'. 늙은 조개가 진주를 낳는다는 뜻이다. 새파란 조개, 젊은 조개는 진주가 없다. 아픔을 겪지 않은 늙은 조개도 진주가 없다. 조개 처지에서 보면 진주는 암 덩어리다. 조개는 몸에 들어온 뜻밖의 이물질들을 녹여 없애려고 한평생 아픔의 체액을 분비한다. 그 분비물이 겹겹이 쌓여 진주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노인의 주름살 속에는 진주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하루의 변화는 '아침 → 점심 → 저녁 → 밤 → 잠'으로 이어진다. 인생의 변화는 '소년 → 청년 → 장년 → 노년 →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보면 '잠 = 죽음'이다. 그래, 자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야. 그래서 죽음을 다른 말로 영면(永眠)이라고 하지 않는가. 영원히 잠드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이 글을 다 쓰고 나면 나는 죽는 연습을 하리라. 매일 하리라. 내일 낮에도 짧게나마 죽는 연습을 하리라.

내 고향은 경북 예천 지보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님에게서 떨어져 비싼 하숙(下宿) 대신에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자취(自

炊)를 하면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다. 주말이면 돈을 아끼려고 쌀, 김치, 고추장 등을 들고 30리 길을 걸어 다니기도 했다. 일요일 낮, 고향 집을 나서 읍내로 갈 때 아버지 몰래 주머니에 용돈을 챙겨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 머슴아든 지지바든 집 밖을 나서려면 비상금이 있어야 한테이. 그 당시만 해도 출타 시에 비상금 한 가지만 있어도 든든했다. 그러나 지금은 5대 필수요소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키, 머니, 카드, 안경. 매일 아침 주문을 외며 출근한다.

가장 최근에 필수 요소로 들어간 것은 안경이다. 정시안에서 원시안으로 바뀐 것이다. 싸구려 돋보기를 너댓 개 사서 여기저기 던져두고 살아간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키 작고 뽕뽕한 나로서는 휘어지고 부러지고 흠집 나기 쉬운 돋보기를 몸속에 챙기고 다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자의 뒷다리를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팔자이기에 돋보기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그리하여 나 자신과 타협에 들어갔다. 나이 들어 원시안이 된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그렇지, 이제는 가까운 이익보다 먼 곳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일 거야.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자연, 곧 저 앞산이 집보다 더 잘 보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야. 그래, 원시가 됨은 즐거운 일이다. 다행히 가까이 있는 지저분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육신의 영원한 고향인 대자연이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때문이야. 한창때는 산보다

도심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도심보다 산을 더 좋아한다. 등산을 즐기게 됨도 바로 이 때문일 거야. 올레! 나이 들어 원시가 됨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다.

노인은 노을에서 있는 사람이다. 늙은이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황혼녘 정원 한편에 우두커니 서서 '채국동리하(採菊東籬下) 유연견남산(悠然見南山)' 하는 황홀한 장관을 떠올려 보라.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꺾어 들고 물끄러미 남산을 바라보는 도연명의 원시안이 정겹게 다가온다. 마음은 이미 뜰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덕담(德談)

새해를 맞아 상대방이 잘되기를 비는 말을 덕담(德談)이라 한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 만나 인사하면서 덕담을 나누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친지와는 만나기 어려우므로 연하장(年賀狀)에 간단한 소원을 적어 보냄으로써 덕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누운 상태로 전화를 통한 덕담 나누기는 차라리 고전적이고 정겹기까지 하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덕담을 나눈다. 덕담 내용도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재사용하는 지경이고 보면 정감이 가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스팸메일은 아무리 좋은 덕담일지라도 받고 싶지 않은, 이른바 '덕담 거부 시대'에 이르고 말았다. 받는 사람의 명칭조차

들어 있지 않은 메일은 살펴볼 가치도 없다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다.

차제에 덕담의 본뜻을 문자학적으로 살펴보자. 덕(德) 자의 갑골문 형태는 자축거릴 척(彳)에 곧을 직(直)이 붙어서, '앞을 곧게 보고 나아감'의 뜻이었다. 그러나 금문에 오면 흔히 '직심(直心) 덕'이라고 말하는 '덕(惠)'으로 쓰기도 했으니, 곧을 직(直)에 마음 심(心)을 붙인 것으로 보아 '곧은 마음', 곧 '정직(正直)'을 중시했다. 오늘날은 도덕(道德), 덕행(德行), 덕성(德性), 덕분(德分)의 '덕(德)' 자에서 보듯이 '덕(惠)'에 '척(彳)'을 덧붙여 '덕(德)'으로 쓰고 있으니, 이는 '실행',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담(談)이란 무엇인가. 말씀 언(言)에 불탈 염(炎)이 붙어 있다고 자칫 불꽃이 타오르듯이 서로 논쟁하거나 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염(炎)은 불꽃이 반짝반짝하는 모닥불이나 화로를 가리키기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담(談)이란 '화로 주변에 앉아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눔'의 뜻이다. 예컨대 담(淡)은 '수면이 반짝반짝하며 맑음'을, 담(倓)은 '사람이 고요함'을, 담(埃)은 '흙이 평평함'을, 담(憐)은 '마음이 편안함'을, 담(毯)은 '포근한 담요'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덕담의 속성은 '정직'과 '실천', 그리고 '조용한 말 나눔'이다. 그러므로 동시다발성의 요란한 메일은 덕담이라 할 수 없다.

전통적인 덕담의 내용은 "새해 복(福) 많이 받으세요!"다. 여기에서 '복(福)' 자를 보면 앞의 '보일 시(示)'는 하늘이 내리는 복이요, 뒤의 '가득할 복(畝)'은 '부(富)'에서 보듯이 각자 노력하여 쌓은 복이다. 따라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은 복(福)의 반밖에 표현하지 못했다. '복(畝)' 자를 보면 오히려 '복 지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복을 받는 일은 하늘의 뜻이니 기약할 수 없지만 '복 짓는 일'은 각자의 몫이니 마음먹기에 달렸다.

덕담은 근본적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말이다. 그런데 자칫 어른께 절을 빨리 올리겠다는 뜻으로 "절 받으세요" 또는 "빨리 앉으세요"라고 하는 건 예절에 맞지 않다. 또한 "만수무강(萬壽無疆)하세요" 또는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표현도 자칫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벌써 이리 늙어 보이냐?' 하는 염려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과세(過歲) 안녕 하셨습니까?" 또는 "올해도 손주들 재롱 많이 보세요!"라는 덕담은 괜찮다.

연하장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문구는 '근하신년(謹賀新年)'이다.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뜻이다. 이외에도 손윗사람에게는 '수산복해(壽山福海: 수명은 산과 같고, 복은 바다와 같으소서) · '화기만당(和氣滿堂: 화목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소서) · '만사여의(萬事如意: 모든 일을 뜻과 같이 이루소서)' 등을 사용하고, 손아랫사람에게는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마

침내 이루리라’·‘청운만리(靑雲萬里: 입신출세하려는 큰 꿈을 지녀라)’·‘대기만성(大器晩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수신양덕(修身養德: 몸을 닦고 덕을 길러라)’·‘무한불성(無汗不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다)’·‘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즉 광적으로 덤벼들지 않으면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 등을 사용한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름다운 말의 숲을 거닐며 각자 가족과 친지에게 어울리는 덕담을 정성스럽게 글로 적어 보내보는 게 어떨까?

희로애락(喜怒哀樂)

이황과 기대승의 유명한 주자학 논쟁으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 있다. 사단(四端)이란 사람의 본성에서 우리나라는 네 가지 마음씨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가리키고, 칠정(七情)이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으로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을 가리킨다. 이황은 사단을 칠정과 대립되는 것으로 본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기대승은 사단을 칠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했다.

오늘은 칠정(七情) 중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중심으로 인간의 감정에 관한 한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은 칠정 중에서 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우선 발음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기쁘면 히히 하고 웃지 않는가. 그래서 희(喜)라고 한다. 성이 나면 입이 삐죽이 나오며 노(怒, no)라고 부정하고, 슬프면 애애(哀哀) 하면서 울게 된다. 그리고 즐거우면 락락(樂樂, lala) 하며 환호성을 지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입 모양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기쁜 희(喜)는 북 고(鼓)의 생략형인 악기 이름 주(杼) 밑에 입 구(口)가 붙어 있는 글자다. 북을 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모습이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희비(喜悲), 환희(歡喜)로다.

성낼 노(怒)는 ‘종 노(奴) + 마음 심(心)’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의 마음은 ‘성내기’ 십상이다. 노기(怒氣)를 띠다. 분노(憤怒)하다. 노도(怒濤), 노발대발(怒發大發)이로다. 여기서 종 노(奴) 자를 살펴보면 ‘한 여자를[女녀] 큰 손[又又]으로 붙잡아 종으로 부리는 모습’이다. 노비(奴婢), 노예(奴隸)로다.

슬플 애(哀)는 슬픔을 못 이겨 입[口구]을 벌리고 우니 옷[衣의]이 다 젖는 모습이다. 애통(哀痛), 애도(哀悼), 비애(悲哀), 애환(哀歡)이로다. 발음은 /의/에서 /애/로 바뀌었다. 회포(懷抱)에 젖어도 눈물이 난다. 품을 회(懷)의 고자는 회(褰)인데 눈물에 눈물에 옷[衣의]이 흠뻑 젖은 모양이다. 회포에 젖어 우는 소리는 아마 /회회/, /후후/ 정도 되겠다.

즐길 락, 풍류 악, 좋아할 요(樂)는 나무[木목] 받침대 위에 북과 방울 등이 놓여 있어 연주하는 ‘악기(樂器)’를 뜻한다. 갑골문에서

는 ‘작을 요(幺) + 작을 요(幺) + 나무 목(木)’으로 현악기(絃樂器)를 가리켰는데, 금문에 와서는 현을 통기는 기구[白백]가 더하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러는 나무로 만든 무대[木목] 위에서 북[白백]을 북채[幺의]로 두들기는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즐거울 락’, ‘좋아할 요’ 자로도 사용되었다. 음악(音樂), 오락(娛樂), 고락(苦樂), 낙원(樂園), 요산요수(樂山樂水)로다.

사랑 애(愛)의 금문이나 전서 모습은 두 손으로 마음[心심]을 감싸고 입을 벌려 구애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해서에 와서는 ‘사랑이란 마음[心심]을 받는[受수]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애(愛) 밑에 뒤져 올 치(女)가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느리기 때문이다. 뒤져 올 치(女)는 ‘발 지, 멈출 지(止)’를 거꾸로 쓴 글자로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양’을 나타낸다. 각각 각(各)은 종일 흠어져 돌아다니다가 동굴[口구]로 ‘제각기’ 돌아오는[女치] 모습이다. 애정(愛情), 우애(友愛), 애국애족(愛國愛族)이로다.

미워할 오(惡)는 누가 내 마음[心심]을 짓누르니[亞아] 그를 ‘미워하다’라는 뜻이다. 증오(憎惡), 혐오(嫌惡)로다. 물론 오(惡)는 본래 악할 악(惡)이었다. 아(亞)가 음을 나타내는 걸 볼 때 /아/에서 /악/으로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악(惡) 자를 보면 짓눌린 두 사람이 악쓰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자 할 욕(欲)은 욕심 욕(慾)과 통자(通字)다. 뜻을 나타내는

하품 흠(欠)과 음을 나타내는 골 곡(谷)이 합(合)하여 이루어진 글자다. 흠(欠)은 사람이 입을 벌린 모양이며, 흠(欠)이 붙는 글자인 노래 가(歌) · 마실 음(飲) 따위도 모두 입을 벌리고 무엇인가 함을 나타낸다. 나중에 하고자 할 욕(欲)에 마음 심(心)을 더하여 욕심 욕(慾)이란 글자를 만들어서는 하고자 할 욕(欲)은 주로 동사로 욕심 욕(慾)은 주로 명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욕구(欲求), 욕망(欲望), 욕심(慾心), 탐욕(貪慾)이로다.

사람은 목석(木石)이 아니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시중(時中)이라 했다. 기쁠 때는 웃고, 화날 때는 성내고, 슬플 때는 울고, 즐거울 때는 풍류를 즐기며, 때[時]에 따라 알맞게[中] 처신해야 하느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알다[知지, 識식]’의 사전적인 뜻은 배워서 알든, 겪어서 알든, 생각하여 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고 있다(know)’는 뜻이다. 여기에서 발전하여 심리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understand)의 뜻도 있고,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느끼거나 깨닫다(recognize)의 뜻도 있다. 다시 말하면 ‘알다’라는 말 속에는 분별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등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 가라’고 했으니, 알 듯 말 듯한 ‘알다’의 어원을 살피기 위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겠다. ‘알다’의 뿌리를 캐다가 ‘아는 게 병’이 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알다’의 어근 ‘알’은 무슨 뜻일까. 아가리(악알이), 주둥아리(주

동알이)에서 볼 때 ‘알’의 근원적 의미는 ‘입[口^기]’이고, 아뢰다(알외다)에서 볼 때 ‘알’의 의미는 입에서 나오는 ‘말[言^언]’의 뜻으로 볼 수 있다. ‘아뢰다’는 뜻의 한자가 ‘아뢴 알(謁)’인 걸 보면 한자의 음과 훈도 우리말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알다’의 반대어인 ‘모르다’는 어디에서 왔을까. 흥미로운 것은 영어와 한자에 ‘모르다’는 뜻의 단일어가 없다는 사실이다. ‘do not know’나 ‘부지(不知)’처럼, ‘알다’는 뜻의 ‘know’와 ‘지(知)’ 앞에 각각 부정어를 갖다 놓고 ‘모르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실은 영어와 한자어에서 ‘모르다’는 의미는 ‘알다’는 의미 속에 예속되어 있어서 ‘못 알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국어의 ‘모르다’도 영어나 한자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르다’는 고어 ‘모르다’에서 왔으며, ‘모르다 = 몰(못, 못) + 을다(알다)’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말 ‘모르다’도 단독형이 아니고, ‘알다’는 말에서 파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의 의미인 ‘몰(못, 못)’은 한자어 몰이해(沒理解), 몰인정(沒人情)에서 보듯이 ‘숨길 몰, 빠질 몰(沒)’과도 서로 통한다.

과학의 영역인 ‘빛’과 ‘그림자’도 ‘알다’와 ‘모르다’의 관계와 똑같이 파악된다. 본디 그림자란 성분이나 형체가 없다. 광자의 집합인 빛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지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본디 ‘모르다’는 말도 ‘알다’는 말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지될 뿐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주제넘게도 이기일원적이원론(理氣一元的

二元論)의 입장에 선다. 기(氣)는 ‘그림자’나 ‘모르다’와 같이 실체가 없고, 이(理)만이 ‘빛’과 ‘알다’처럼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理)와 기(氣)가 남녀(男女), 음양(陰陽)과 같이 양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理)가 원(元)이 되고 기(氣)는 종속적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원시 수렵시대로 돌아가 ‘알다’는 뜻에 해당하는 한자 ‘지(知)’와 ‘식(識)’의 뿌리를 캐보기로 한다.

‘알 지(知)’는 ‘화살 시(矢) + 입 구(口)’로 이루어진 글자다. ‘지(知)’자를 ‘화살’과 ‘입’으로 파악하면 ‘알다’는 의미가 쉬이 추출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기의 구(口) 자는 ‘입’이 아니라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당시는 ‘표적을 향하여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을 ‘뿔이 잘 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본 것이다. 적중(的中)이라고 할 때의 ‘중(中)’자를 보면 표적의 가운데를 화살로 꿰뚫은 형태다. 적어도 지(知)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뜻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화살로 짐승을 잡는 방법을 잘 알다’는 뜻이었다. 이는 것이 지식이라면 깨달음을 뜻하는 ‘지혜 지(智)’자는 훨씬 나중에 생긴 글자다.

그러면 지(知)자를 통하여 공부하는 자세를 본받아 볼까나. 구(口)가 학습 목표라면 시(矢)는 학습자에 해당한다. 시위를 떠난 화살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한길로 꾸준히 날아간다는 것과 둘째, 일단 시위를 떠난 뒤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가 지식(知識)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 한길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깨우쳐주고 있다.

기록할 지(識) 또는 알 식(識) 자는 같은 글자로 갑골문에는 앞의 언(言) 자가 없다. 어떤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창(戈)으로 그 어 표시를 해놓은 모양이다. 그은 부호가 오늘날의 ‘음(音)’ 자의 모양으로 변한 것은, 기록한 내용을 음(音)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언(言)자가 붙은 것은 ‘말로 한 것을 창으로 새겨 기록하다’로 풀이할 수 있다. 지식(知識)이라 할 때는 ‘식(識)’으로 읽는데, 여기서는 ‘알다’는 뜻이다. 짚 직(織) 자는 ‘실로 베를 짜는 일이 창으로 새기는 일과 비슷함’에서 생긴 글자이고, 벼슬 직(職)은 ‘귀로 들은 것을 창으로 새겨 기록하는 일’에서 벼슬아치의 의미가 나온다. 직장(職場)에서 직책(職責)을 맡은 사람은 기록을 잘해야 한다. 지식(知識)이란 앎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적어’둘 때 그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학위에는 반드시 논문이 필요한 것이다. 적어두어야 진정한 나의 지식이 되고, 또 학문 발달에 일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적자생존론’이 나온다. 잊기 전에 적고 또 적자.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안분신무욕 지기심자한(安分身無辱知機心自閑)’이란 구절이 있다. 분수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알면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는 뜻이다. 알면

안심이 되지만 모르면 물어야 한다. 그래서 공자의 고백처럼 배움 그 자체도 즐거운 일이지만 모르면 물어야 즐거움이 더해지므로, 학문(學問)이라고 할 때에 ‘물을 문(問)’ 자를 쓰는 것이다.

《논어(論語)》에 ‘지자 불여호자(知之者不如好之者), 호자 불여락자(好之者不如樂之者)’란 명구가 나온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은 즐기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다. 곧 낙업(樂業)이 최상이다.

‘알아야 면장(面長)을 하지’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필이면 면장(面長)일까.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면식(面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정도의 행정구역이 면(面)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장은 면민의 면면(面面)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혼자서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간으로 태어나 알려고 바둥거리다가 다시 모르는 곳으로 가는 인생……. 무지한 멍탱이가 ‘앎’을 건드린다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인지 모른다. 아는 것은 남의 것이고, 깨달음만이 나의 것인데.

어떻게 볼 것인가

봄은 단했던 오감을 여는 계절이다. 특히 시각(視覺)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계절이다. 청각·후각·미각·촉각도 새롭지만, 시각이 가장 신비롭게 와 닿는 계절이라 할 수 있다. 등지 틀기에 바쁜 아름다운 새소리, 이따금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꽃향기, 담백하고 은근한 냉이국 맛, 긴 겨울잠에서 초목을 일깨우는 봄 햇살의 부드러운 떨림도 빼놓을 수 없는 감각이지만, 초목이 누리에 푸름을 토하고 온갖 꽃들이 화사한 빛깔의 꽃등을 달고 마중 나오면 봄은 분명코 시각의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면 봄의 어원은 눈으로 '보다'의 명사형인 '봄'에서 온 게 아닐까 한다.

'보다'와 관련한 한자로는 '볼 견(見), 볼 관(觀), 볼 간(看), 볼 시

(視), 볼 감(監), 볼 람(覽), 볼 열(閱), 볼 침(瞻), 볼 도(睹), 살필 심(審)' 등 매우 많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 와우.

우선 시각을 맡은 기관은 '눈 목(目), 눈 안(眼)'이 있다. 목(目)은 눈의 겉모양을 상형한 글자이고, 안(眼)은 상이 맺히는 망막을 가리킨다. 목(目) 자의 자형은, 처음에는 눈 모습과 같이 가로로 길게 썼는데 나중에는 세로로 변했다. 많은 글자가 길쭉하게 변했는데, 이는 글을 세로쓰기에 맞춘 결과로 본다. 오잉.

'보다'라는 뜻의 대표적인 글자는 볼 견(見)이다. 눈을 뜨는 순간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보는 것이 견(見)이다. 견(見)은 사람[儿인]이 눈을 뜨고[目뚱] 앞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견해'의 뜻으로 발전한다. 견학(見學), 견문(見聞), 의견(意見), 견해(見解), 탁견(卓見), 단견(短見), 편견(偏見), 관견(管見), 이견(異見), 사견(私見), 견리사의(見利思義), 견문발검(見蚊拔劍), 견위수명(見危授命), 견물생심(見物生心), 목불인견(目不忍見),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로다.

볼 관(觀)은 황새[鶻관]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바라보고[見견] 있는 모습에서 '자세히 보다'의 의미다. 여기에서 '관상(觀象)'이나 '관상(觀相)'의 예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보다'라는 뜻으로 발전한다. 관광(觀光), 관찰(觀察), 관조(觀照), 관념(觀念)이로다.

볼 간(看)은 ‘손 수(手) + 눈 목(目)’의 구조다. 간판(看板)의 예에서 보듯이 사물을 똑똑히 보기 위하여 눈 위에 손을 얹고 살피는 모습이다. 간호사(看護師)에 간(看) 자를 씌운, 눈[目]목으로는 환자를 잘 살피고 손[手]수으로는 아픈 곳을 잘 어루만져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병(看病), 간과(看過), 간주(看做), 주마간산(走馬看山)이로다.

볼 시(視)는 ‘보일 시(示) + 볼 견(見)’으로 시(示)가 음을 나타낸다. 보여주는[示]시 것을 보는[見]견 것이 시청각(視聽覺) 교육이다.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견(見)이 눈 뜨면 저절로 보이는 ‘see’라면, 시(視)는 의식적으로 자세히 보는 ‘look’에 해당한다. 시력(視力), 감시(監視), 중시(重視), 경시(輕視), 시선(視線), 시찰(視察), 무시(無視), 시신경(視神經), 심부재언 시이불견(心不在焉視而不見: 마음에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다)이로다.

볼 감(監)은 본래 거울[鑑]의 의미였다. 거울이 없던 옛날에는 그릇의 물이 거울을 대신했다. 사람[人]인[人]이 그릇[皿]명[名]의 물[一]일[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는[臣]신[臣] 모양이 감(監)이다. 여기에서 ‘감독하다’의 의미로 확장된다. 감시(監視), 감독(監督), 감옥(監獄), 감찰(監察), 교감(校監), 국정감사(國政監查), 불법감금죄(不法監禁罪)로다.

볼 략(覽)은 ‘감(監) + 견(見)’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두루 보다’의

의미다. 열람실(閱覽室), 관람객(觀覽客), 유람(遊覽), 공람(供覽)이로다.

볼 열(閱)은 문(門)을 지키며 지나는 사람이나 거마(車馬)를 검열(檢閱)하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점검하다’, ‘책을 읽다’의 뜻으로 발전했다. 열람실(閱覽室), 열병식(閱兵式)이로다.

볼 침(瞻)은 처마[簷]침[窻]를 쳐다보는 모습에서 ‘먼 곳을 우러러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침성대(瞻星臺)로다.

볼 도(睹)의 고자(古字)는 볼 도(覩)다. 도읍[都]도[都]을 ‘지켜보다’의 뜻이다. 목도(目睹)로다.

끝으로 살필 심(審)은 ‘집[宀]면[見]에 쳐들어온 짐승의 발자국[番]번[番]을 자세히 살펴서 어떤 짐승인지 알아내다’에서 ‘자세히 살펴다’의 의미가 되었다. 심판(審判), 심문(審問), 심사(審査), 오심(誤審), 심의(審議), 항소심(抗訴審)이로다.

봄에는 보이는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반은 육안으로 반은 마음으로 보도록 하자. 이른바 심안(心眼).

봄이 차린 성찬, 봄풀과 봄꽃들……. 그 끝없는 눈의 풀림과 코의 마비……. 아침 새 지랄하니 귀마저 녹아내린다. 언덕마다 늘어선 개나리는 수많은 금빛 작은 종들을 주저리주저리 매달고서 셋바람 소식 전하고, 뇌쇄적 흥조를 먼 진달래는 얼음 녹아 흐르는 깊은 산골로 유혹하누나. 저런, 얇은 연두색 속옷조차 걸치지 않고 벗고 핀 벚꽃은 못 다하고 죽어간 발레리나의 뉘인가.

봄은 봄 직한 계절이다. 볼 게 많아 봄. 볼수록 더 보듬고 싶은 봄. 봄의 아름다움에 자지러지고도 보고지운 봄. 이런 계절엔 인간의 감정(感情) 또한 그 끝이 없다.

느낄 감(感)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感觸] 작용이다. 감 잡았나, 감동(感動), 감각(感覺), 감정(感情)이로다.

놀랍게도 뜻 정(情)은 본디 성품 성(性) 자와 같이 썼으나 나중에는 ‘타고난 순수한 성질’, 곧 ‘본성’은 ‘성(性)’으로, ‘밖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은 ‘정(情)’으로 구분했다.

우리는 앞서 칠정(七情), 곧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7자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그 끝없는 미로와 같이 다양한 인간의 감정이나 심정을 나타내는 더 많은 한자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기쁨’을 뜻하는 글자는 기뻐 희(喜) 외에도 기뻐 이(怡), 기뻐 열(悅), 기뻐할 흥(欣), 기뻐할 환(歡) 등이 있다. 기뻐 희(喜)는 북을 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모습이요, 기뻐 이(怡)는 본자가 기뻐 태(台)로 전서에서는 입 구(口) 위에 써 이(呂)가 있는 형태로 ‘목숨[台태]이 붙어 있어서 기쁜 마음’을 나타낸다. 그 소리는 기분이 좋아 내는 소리 /이이다. 기뻐 열(悅)의 본자는 기뻐 태(兌)로 사람[儿익]이 입[口귀]을 열고 기뻐서 열나게 웃는 모습을 나타낸다. 기뻐할 흥(欣)은 도끼를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欠혹] 기뻐함이요, 기뻐 환(歡)은 황새[霍관]처럼 목을 빼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함을 뜻한다. 희열(喜悅), 이안(怡顔), 열락(悅樂), 흥쾌(欣快), 환희(歡喜)로다.

‘성냄’을 뜻하는 글자는 성낼 노(怒) 외에 성낼 분(忿), 성낼 분(憤), 분개할 개(慨) 등이 있다. 성낼 분(忿)은 마음이 갈라져[分분] 분한 마음이 생김이요, 성낼 분(憤)은 분한 마음이 솟아오름[賁분]

을, 분개할 개(慨)는 마음이 이미[既기] 떠났음을 뜻한다. 분노(忿怒), 격분(激忿), 분개(憤慨)로다.

‘슬픔’을 뜻하는 글자는 슬플 애(哀) 외에, 슬플 비(悲)가 있다. 슬플 비(悲)는 마음이 새의 두 날개[非비]처럼 반대쪽으로 뻗치니 슬픈 일이다. 애환(哀歡), 비애(悲哀), 비명(悲鳴)이로다.

‘즐거움’을 뜻하는 글자는 즐길 락(樂) 외에 즐거워할 오(娛)가 있다. 즐거워할 오(娛)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글자로 여자[女녀]와 더불어 머리를 기울여가며[矢넉] 노래하는[口귀] 모습이다. 희락(喜樂), 오락(娛樂)이로다.

‘사랑’을 뜻하는 글자는 사랑 애(愛) 외에 사랑할 자(慈), 사랑 총(寵) 등이 있다. 사랑할 자(慈)는 끝없는[茲자] 마음이요, 사랑 총(寵)은 집[宀뎌] 안에서 ‘용용 죽겠지’ 하며 남달리 귀여워하고 사랑함을 일컫는다. 자애(慈愛), 총애(寵愛)로다.

‘미움’을 뜻하는 글자는 미워할 오(惡) 외에 미워할 증(憎), 싫어할 혐(嫌) 등이 있다. 미워할 증(憎)은 마음을 시루에 찌는[曾척] 상태이고, 싫어할 혐(嫌)은 여자를 겸함[兼겸]에서 오는 마음의 작용이다. 겸할 겸(兼) 자가 들어가서 좋은 의미의 한자도 있으니, 이를테면 상대방의 처지도 아울러[兼겸] 말하면 겸손할 겸(謙)이 된다. 증오(憎惡), 혐오감(嫌惡感)이로다.

‘욕심’을 뜻하는 글자는 하고자 할 욕(欲), 욕심 욕(慾) 등이 있다. 욕구가 충족되면 기쁨이 오고, 마음에 거슬림이 없으면 즐거

움이 온다. 욕구(欲求), 욕심(慾心), 탐욕(貪慾)이로다.

칠정(七情) 외에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글자를 살펴볼까나.

‘근심’을 뜻하는 글자는 근심할 우(憂), 근심 환(患), 시름 수(愁) 등이 있다. 근심할 우(憂)는 머리[頁혈]가 마음[心심]을 누르니 머뭇거리는[友치] 모습이다. 근심 환(患)은 마음이 꼬챙이에 꿰인 모습이요, 시름 수(愁)는 ‘시름겨운[秋추] 마음, 곡식을 말리듯[秋추] 마음을 말리다’의 뜻이다. 우환(憂患), 환란(患亂), 수심(愁心)이로다.

‘두려움’을 뜻하는 글자는 두려울 공(恐), 두려워할 포(怖), 두려워할 외(畏), 두려워할 구(懼), 두려워할 황(惶), 두려워할 송(悚), 겁낼 겁(怯) 등으로 가장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려울 공(恐)은 마음이 굳어 있는[巩고] 모양이요, 두려워할 포(怖)는 반대로 마음이 펼쳐져[布부] 있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공포(恐怖)란 마음이 굳었다 풀렸다 하는 것이다. 두려워할 외(畏)의 머리는 전서에서 귀(鬼)의 머리였고, 받침은 호(虎)의 몸통이었다. 두려워할 구(懼)는 작은 새[隹추]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발발 떨고 있는 모양이요, 두려워할 황(惶)은 임금[皇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두려워할 송(悚)은 마음이 묶여[束속] 있는 모양이요, 겁낼 겁(怯)은 마음이 약하여 피하는[去거] 모양이다. 공포(恐怖), 경외(敬畏), 의구(疑懼), 송구(悚懼), 황송(惶悚), 비겁(卑怯), 황공무지(惶恐無地)로소이다.

‘놀라움’을 뜻하는 글자는 놀랄 경(驚), 탄식할 탄(歎), 탄식할 탄

(嘆) 등이 있다. 놀랄 경(驚)은 말이 공경하듯[敬^경] 위를 보고 놀라는 모양이요, 탄식할 탄(歎)과 탄식할 탄(嘆)은 서로 통하는 글자로 어려운[堊^극] 일을 보고 크게 입을 벌리고[欠^흠, 口^구] 있는 모양이다. 경탄(驚歎), 경칩(驚蟄), 탄식(歎息), 개탄(慨歎), 맥수지탄(麥秀之嘆), 풍수지탄(風樹之嘆)이로다.

‘상쾌함’을 뜻하는 글자는 시원할 상(爽), 상쾌할 쾌(快) 등이 있다. 시원할 상(爽)은 창살을 통하여 빛과 바람이 들어오니 몸[大^대]이 시원함이요, 쾌할 쾌(快)는 마음을 터놓아서[快^쾌] 상쾌함이다. 상쾌(爽快), 통쾌(痛快)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간의 감정은 복잡미묘하여 끝없는 미로와 같다. 플라톤은 감정을 이성으로 길들여야 하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로 보았다.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도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가, 오늘의 감정 공부는? 감정에 관한 단어는 실체가 없이 추상적이다. 그래서 한자로 나타내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휴식 休息

산업화 · 기계화 · 자동화 사회가 되면 인류는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세상은 점점 더 바쁘게만 돌아간다. 속도 시대가 되는 만큼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덩달아 바쁘게 돌아간다. 역설적이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오늘은 휴식(休息)과 관련한 한자 이야기부터 풀어볼까 한다.

그대, 가장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마음과 몸을 비우는 절대 휴식을 통한 자유 영혼을 꿈꿔보지 않았는가.

하던 일을 몽땅 멈추고 정녕 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문화휴식(文化休息)’이란 말이 나온다. 문화생활을 즐기며 쉬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유혹인가. 부

담 없는 독서도 그중의 하나이리.

휴식(休息)의 쉼 휴(休)는 사람[人]이 나무[木] 그늘에서 쉬는 모습에서, 쉼 식(息)은 코[自]로 숨 쉬고 심장[心]이 뛰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에서 ‘쉬다’의 뜻이 왔다. 곧 휴식(休息)에는 몸 안팎에서 일어나는 휴식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 있다. 무거운 짐을 풀어놓고 하는 말은 /휴~/이고, 숨을 쉴 때에 나오는 소리는 /식식/이다.

‘숨을 좀 돌리고 살라’는 말은 잠시 여유를 얻어 휴식을 취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숨이 막히면 질식(窒息)이다. 막을 질(窒)은 구멍[穴] 끝에 이르니[至] ‘막히다’의 뜻이다. 휴일(休日), 휴가(休暇)로다. 그런데 자식(子息)에 숨 쉼 식(息) 자를 왜 쓴 걸까. 의미상 자식은 나의 호흡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고, 발음상 자식의 숨소리가 /식식(새근새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 안의 자식’이란 말인가.

휴식(休息)이 아무리 좋아도 그만둘 수 없는 게 호흡(呼吸)이다. 호흡(呼吸)의 호(呼)는 숨을 내쉬는 것이요, 흡(吸)은 숨을 들이쉬는 것이다. 호(呼)와 흡(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둘은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다. 따라서 호흡은 ‘같이하고, 조절하고, 맞출’ 때 의미가 있다. 호출(呼出), 호가(呼價), 호소(呼訴), 호형호제(呼兄呼弟), 흡입(吸入), 흡연(吸煙), 흡혈귀(吸血鬼)로다.

휴게실(休憩室)의 쉼 게(憩) 자는 쉼 식(息) 자 앞에 혀 설(舌) 자

가 붙은 것으로 보아, 잠깐 들러 쉬면서 대화나 먹거리를 나눌 수도 있는 방이었다. 더러는 맛있는 걸 판답시고 ‘쉴 게(憩)처럼 달감(甘) 자를 노골적으로 붙여놓은 곳도 있다. 속 보이네.

그런데 휴식이 지나치면 태만(怠慢)이 된다. 게으를 태(怠)는 ‘허물어진[怠] 마음[心]’이고, 게으를 만(慢)은 ‘길게 끄는[慢] 마음[心]’이다. 여기서 태(怠)는 ‘위태하다, 허물어지다’의 뜻이고 만(慢)은 ‘어려움을 무릎쓰고[慢] 또[又] 길게 끌다’의 뜻이다. 전자의 예로는 위태할 태(殆), 태풍 태(颶)가 있고, 후자의 예로는 질편하게 흐를 만(漫), 뱀장어 만(鰻), 덩굴 만(蔓) 등이 있다.

태만(怠慢)에서 벗어나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충성 충(忠)이 된다. 태(怠)의 반대자는 충(忠)인 셈이다. 속마음 충(衷)은 옷[衣] 속에 충(忠)이 숨어 있는 글자다. 충정(衷情), 고충(苦衷)이로다. ‘일벌레, 연습벌레’의 예에서 보듯 어떤 일에 열중하거나 충성하는 사람을 비유하여 벌레라고 한다. 그래서 벌레도 발음이 /충(虫)/이다.

똥을 곤(丨)과 관련된 글자로 익힐 관, 췌 관(串), 산적 꼬챙이 찬(串), 근심 환(患) 등이 있다. 충성 충(忠)은 ‘중심(中心)’이 잡힌 마음이나, 근심 환(患)은 ‘관심(串心)’으로 삶아서 익힌 마음이니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마음이 옆으로 빠져나와도 근심할 충(忡)이 된다.

휴식(休息), 태만(怠慢)보다 근면(勤勉)을 택할 경우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지런할 근(勤) 자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려울

난(難) 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어려울 난(難)은 ‘근(堇) + 추(佳)’의 형태다. 근(堇)은 ‘짐승의 가죽을 불에 태우는 모습인데, 여기에 ‘작은 새[佳추]가 붙어 있다. 곧 작은 새는 자칫 잘못하면 다 타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태우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온 글자다. 이리하여 어렵사리 힘쓰는[力력] 것은 부지런할 근(勤)이고, 마찬가지로 어렵사리 피는 꽃은 ‘무궁화 근(槿)’, 어렵사리 하는 말은 ‘삼갈 근(謹)’, 어렵사리 어른을 뵈는 것은 ‘뵈 근(覲)’, 어렵사리 먹을 때는 ‘흉년 근(饑)’, 추위를 딛고 어렵사리 피어난 꽃은 ‘제비꽃 근(堇)’, 어렵사리 흐르는 물은 ‘한수 한(漢)’이다. 휴……, 쓰기도 어렵지만 뜻도 어렵구먼.

대지진과 핵사고, 난개발과 전쟁 등으로 휴식(休息)을 취할 겨를도, 자리도 없다. 난제(難題)로다. 어쩔거나. ππ.

자웅(雌雄)을 겨뤄볼까

남자와 여자, 누가 더 잘생겼을까. 한결같이 ‘여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동물의 모양을 보면 수놈이 암놈보다 훨씬 화려하다. 수놈 공작의 그 눈부신 꽂지깃, 수꿩과 수탉의 그 화려한 깃털, 수사자의 늠름한 갈기와 수사슴의 화려한 뿔……. 이는 암놈 위에 힘으로 군림하는 위엄의 상징인가, 아니면 암놈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거추장스러움인가. 수놈의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영웅(英雄)이란 말은 있으나 영자(英雌)란 말은 없다. 물론 남성을 맥 못 추게 하는 여걸(女傑)이야 곳곳에 깔렸지만……. 오잉?

두 팀의 승부(勝負)나 강약(強弱)을 가릴 때 ‘자웅(雌雄)을 겨루다’라고 말한다. 암컷 자(雌)와 수컷 웅(雄) 두 글자에 각각 새 추

(隹) 자가 붙은 것으로 볼 때 원래는 새의 암수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동물의 암수는 물론 실력의 우열(優劣)을 따질 때에도 사용하는 말이다.

글자 모양으로 봐서 자(雌)가 암컷인 것은 교미할 때 자리(此)를 지키고 앉아 있는 놈을 암컷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차(此)의 갑골문을 보면 아하게도 암놈이 엉덩이(匕)를 둘러대고 가만히 [止] 앉아 있는 모습이다. 암놈이 수놈에게 굴복하여 엎드린 모습은 자복(雌伏)이고, 수놈이 작업을 끝내고 씩씩하게 보란 듯이 날아가는 모습은 웅비(雄飛)겠다. 일쭉.

웅(雄) 자가 수컷인 것은 힘을 상징하는 불룩한 것(厶)이 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굉(宏) 자는 수놈의 힘센 팔과 거시기를 뜻한다. 근육이 불룩하게 솟아 오른 팔뚝을 뜻하는 글자는 팔뚝 굉(肱)이다. 집(宀) 안에서 팔과 거시기로 굉장한 힘을 쓰는 자가 클 굉(宏)이다. 의미를 알고 보니 굉장(宏壯)하다. 능할 능(能) 자와 곰 웅(熊) 자에도 힘을 상징하는 사(厶) 자가 붙어 있지 않은가. 웅대(雄大), 웅장(雄壯), 웅지(雄志), 대웅전(大雄殿)이로다.

《장자(莊子)》에 한 번에 9만 리를 나는 봉새 봉(鳳)이 있기는 하지만, 새의 왕은 역시 봉황(鳳凰)이다. 봉황새 봉(鳳)은 수놈이요, 봉황새 황(凰)은 암놈이다. 봉(鳳)과 풍(風), 황(凰)과 광(光)의 발음이 통하는 것으로 볼 때 봉(鳳)은 바람을 다스리고, 황(凰)은 빛을 다스리는 신조(神鳥)로서의 상징성이 있다. 봉(鳳)과 풍(風)은

듯 범, 무릇 범(凡)을 머리에 이고 있다. 황(凰)은 안에 임금 황(皇)이 들어 있어서 왕이나 천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봉황(鳳凰)은 상상의 새로서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사령(四靈)으로 불리는데 이는 전설상의 네 가지 신령(神靈)한 동물이란 뜻이다. 봉명조양(鳳鳴朝陽)은 봉황새가 아침별을 받아 운다는 뜻으로 천하가 태평할 길조(吉兆)를 이르는 좋은 말이다. 좋~다!

까마귀의 암수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수지오지자웅(誰知鳥之雌雄)’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시경(詩經)》〈소아(小雅)〉장에 나오는 말로서, 선악과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다. 여야 정치판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얼라?

말은 앵무(鸚鵡)새요, 사랑은 원앙(鴛鴦)이다. 앵무새는 아름다워 새장에 들기 쉽고, 원앙은 금슬(琴瑟) 좋아 금침(衾枕)에 들기 쉽다. 앵무새 앵(鸚)과 앵무새 무(鵡)는 각각 갓난아이 영(嬰)과 군셀 무(武)에서 발음이 왔다. 원앙 원(鴛)은 수컷으로 누워 뒹굴 원(苑)이 붙은 걸로 볼 때 사랑 나누기 좋은 분위기요, 원앙 앙(鴦)은 암컷으로 앙앙거리며 애교를 떨고 있음이 분명하다.

빛깔은 비취(翡翠)요, 노래는 황조(黃鳥)다. 비취(翡翠)를 우리 말로는 물총새라고 한다. 물총새 비(翡)는 수컷을 뜻하는데, 여기서 非(아닐 비)는 음을 나타낸다. 물총새 취(翠)는 암컷으로 군사 줄(卒)에서 음을 따왔다. 취할 취(醉) 자도 마찬가지로. 비취(翡翠)는 또한 비취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짙은 초록 빛깔로 사랑

받는 보석이다. 당연히 옥(玉)으로서의 비취는 그 빛이 잘 비치는 보석이렸다.^

노래를 잘하는 피꼬리는 황조(黃鳥), 황앵(黃鶯) 또는 황리(黃鸝)라고 한다. 단어마다 누를 황(黃) 자가 붙어 있는 점은 피꼬리의 색깔을 규정짓고 있고, 피꼬리 앵(鶯)에는 빛날 형(熒) 자가, 피꼬리 리(鸝)의 고울 려(麗) 자가 붙어 있는 점은 피꼬리의 빛나고 고운 목소리를 규정짓고 있다.

그리고 보니 너무나 유명한 고구려 2대 유리왕의 <황조가(黃鳥歌)>가 있구나. 첫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새로 맞이한 두 여인의 쟁충(爭寵)!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왕의 심사(心事). 때아닌 늦가을의 세찬 비와 천둥소리. 날이 찰 때는 갈등 속의 유리왕 신세 되지 말고 피꼬리의 사랑 노래로 월동준비 하자스라.

새처럼 비상(飛翔)하라

비 온 뒤의 가을 하늘. 구름 몇 점. 몸도 마음도 가벼워 구름을 타고도 날 것만 같다. 인간은 새처럼 날고 싶어 비행기를 만들고, 말처럼 달리고 싶어 자동차를 만들었다. 연을 만들어 날리거나 열기구를 타고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일은 모두 인간의 날고 싶은 욕망이 낳은 놀이다.

‘날다’의 의미를 가진 한자는 ‘날 비(飛), 빙빙 돌며 날 상(翔), 나부낄 번(飜)’ 등이 있다.

날 비(飛) 자의 전서를 보면 윗부분은 하늘을 향한 새의 머리 모양이고 아랫부분은 몸통과 좌우로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모양이다. 발음이 같은 아닐 비(非) 자도 처음에는 좌우로 벌린 날개를 뜻했으나, 나중에는 두 날개가 상대하여 있다는 데 착안하여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비조(飛鳥), 비등(飛騰), 비행기(飛行機), 시비(是非), 사이비(似而非), 비일비재(非一非再)로다.

빙빙 돌며 날 상(翔)은 새가 두 깃[羽]을 펼치고 상서롭게[祥] 빙빙 돌며 나는 모습이다. 상(翔) 자에 양 양(羊) 자가 들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발음을 보더라도 상서 상(祥) 자를 줄여서 썼음을 알 수 있다.

옛날에 우양(牛羊)은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희생물(犧牲物)이었다. 희생물(犧牲物)이란 세 글자에는 공통적으로 소 우(牛) 자가 들어 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아름답고[美] 의롭고[義] 상서로운[祥] 일로 생각하여 이 세 글자에는 공통적으로 양 양(羊) 자가 붙어 있다. 비상(飛翔)이나 용무봉상(龍舞鳳翔)은 둘 다 상서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독수리 비상(飛翔)의 실체는 먹거리 탐색을 위한 정찰일 테지. 허걱.

날 번(飜)과 또 다른 모양의 날 번(翻)은 같은 글자다. 번 번(番)은 ‘1번(番), 2번(番)……’처럼 순서나 횟수를 나타낸다. 원래는 밭[田]에 남겨진 짐승의 밭자국[采번]을 뜻했다. 짐승 밭자국을 살펴보면 무슨 짐승이 몇 번이나 번갈아 밟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데에서 ‘번’의 의미가 나왔다. 그리하여 날 번(飜) 자는 새가 번갈아 날갯짓을 함을 뜻하다가 요즈음은 ‘번역(翻譯)’의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

땃살을 종이에 붙여 허공에 날리는 ‘연’과 공중을 맴돌며 정찰하는 새 ‘솔개’는 둘 다 똑같이 ‘연 연, 솔개 연(鳶)’ 자를 쓴다. 연(鳶) 자에 주살 익(弋) 자가 붙어 있는 까닭은 연을 날릴 때는 주살처럼 기다란 실을 매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살이란 오늬에 줄을 매어 쏘는 화살을 말하고, 오늬란 화살이 시위에 끼도록 칼로 에어낸 부분을 가리킨다. 연과 솔개는 까불지 않고 연(軟)하게 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발음이 /연/이다. 그러나 연이 꼬꾸라질 때는 솔개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사정없이 땅에 머리를 처박고 만다. 연할 연(軟) 자의 구성이 재미있다. 수레[車]를 타고 가면서 음료를 마실 때는 옆지리지 않기 위해서 유연(柔軟)하게 마셔야[欠] 한다. 권고가 담겨 있다. 하늘에 솔개가 날고 물속에 고기가 뛰어노는 것을 연비어약(鳶飛魚躍)이라 한다. 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광경인가.

봄이면 북쪽으로 날아오고 가을이면 남쪽으로 날아가는 제비를 뜻하는 글자는 제비 연(燕)이다. 연(燕) 자를 화(火) 부수에 올려놓은 것은 코미디다. 갑골문 자형은 제비 모습 그대로인데, 가위처럼 생긴 꼬리가 화(火)로 변했을 따름이다. 물고기 어(魚)도 꼬리가 화(火)로 변한 예다. 연작(燕雀)은 제비와 참새로 도량이 좁은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저고리의 뒤 아래쪽이 갈라져 제비 꼬리 같이 생긴 서양식 예복을 연미복(燕尾服)이라 한다. 발음이 같은 이유로 연(燕)은 잔치 연(宴)과도 의미가 상통한다.

제비와 반대로 봄이면 북쪽으로 날아가고 가을이면 남쪽으로 날아오는 기러기를 나타내는 글자에는 기러기 안(雁)과 큰 기러기 홍(鴻)이 있다. 글자 모양으로 보면 기러기 안(雁)은 언덕(厂) 위를 날고, 큰 기러기 홍(鴻)은 강(江) 위를 나는 기러기다. /홍/이라는 발음은 ‘크고 넓음’의 뜻을 지닌다. 큰물은 큰물 홍(洪)이요, 큰 벌레는 무지개 홍(虹)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넓을 홍(弘)은 드넓음을 뜻한다. ‘남의 형제’를 높여서 안항(雁行)이라고 하는데, 이는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모습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리고 철 따라 이동하는 기러기가 먼 곳에 소식을 전한다는 뜻에서 편지(便紙)를 일컬어 ‘안서(雁書), 안신(雁信), 안찰(雁札)’이라고도 한다. 큰 은혜는 홍은(鴻恩), 큰 덕은 홍덕(鴻德), 큰 뜻은 홍지(鴻志), 잘 쓴 글은 홍필(鴻筆), 학식이 높은 사람은 홍학(鴻學)이라고 한다. 잘한다.

뜰에 핀 국화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제비가 돌아갈 때 기러기는 찾아온다. 오는 손님 말리지 말고 가는 손님 붙잡지 말라고 했던가. 믿음직한 텃새와 더불어 겨울 채비나 해야지.



마음속 새 한 마리
바람처럼 다가가리.
바람 불어 좋은 날
향기처럼 다가가리.

매화가 들려주는 봄소식

선비는 혼자서도 즐길 줄 알았다. 선비는 사람이 아닌 생활 주변의 사물이나 자연물을 벗으로 삼고 유희할 줄 알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놀았다. 행동할 때는 자기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잠잘 때는 이부자리에 부끄럽지 않게 할 정도로 혼자서도 엄격한 기강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지만 낭만이 있었다.

붓글씨를 쓸 때면 문방사우(文房四友)가 있으니 종이·붓·먹·벼루 등이 친구이고, 그림을 그릴 때의 소재로는 사군자(四君子)가 있으니 매화·난초·국화·대나무 등이 벗이다. 또한 추운 겨울이면 세한삼우(歲寒三友)가 있어서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의 절개 있는 나무가 친구가 된다.

고려의 문호 이규보는 시와 술, 거문고를 흑독할 정도로 좋아하

여 삼혹호(三酷好) 선생이라고 불렸다. 조선 인조 때의 윤희도는 그가 지은 오우가(五友歌)라는 연시조에서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등을 벗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의사(義士) 박희무는 소나무, 전나무, 매화, 대나무, 연, 국화 등을 심고 애완하여 호를 육우당(六友堂)이라 했고, 조선 후기의 문신 조보양은 일생 산수(山水), 풍월(風月), 송죽(松竹), 매국(梅菊) 등의 여덟 가지를 벗 삼아 지낸다는 데서 호를 팔우헌(八友軒)이라 했다.

선비들은 그중에서도 싱그러운 봄으로 가는 문턱에서 적막을 깨고 생명을 노래하는 매화(梅花)를 특히 좋아했다. 봄이 왔기 때문에 매화가 피는 것이 아니라 매화가 피었기 때문에 봄이 온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매화를 봄의 전령사, 곧 춘신(春信)이라고도 불렀다. 남지춘신(南枝春信)이라고도 했는데, 매화는 남쪽 가지에서부터 봄소식을 전하는 꽃을 피운다는 뜻이다.

안민영의 〈매화사〉 8수 중 제6수에는 잠결에도 동장군을 물리치고 기어이 봄님을 맞이하는 매화녀의 노래가 있다.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새어 들어 잠든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한다.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앓을쏘냐.

매화가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시샘하는 높새바람이 불어도 봄

소식은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게 표면적 의미이지만, ‘봄뜻’을 자연의 섭리로 본다면 철학시로 다가오고, ‘바람’과 ‘매화’를 남녀로 본다면 절개를 지키는 사랑시로 와 닿는다.

매화의 어떤 매력 때문에 선비들이 그토록 좋아했을까. 그 첫째 매력은 ‘매경한고 발청향(梅經寒苦發清香)’이란 시구에 있다. 매화는 혹한을 겪었기에 더욱 맑은 향기를 발한다는 말이다. 사람도 모진 고난을 이겨낸 후의 성공이 더욱 값지다. 3D 업종을 피하는 요즈음의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시구다. 숫돌에 갈지 않고서는 보배로운 칼을 얻을 수 없듯이 매서운 추위를 겪지 않고서는 향기로운 매화를 기약할 수 없다. 산모의 고통 없이 옥동자를 얻을 수 없고 조개의 암 투병 없이 진주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고 냉엄한 추위를 겪은 이번 겨울이었기에 화사한 봄이 눈물겹게 기다려지는 것이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매화 향기를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육사의 기개가 빛난다.

매화의 또 다른 매력은 그 향기에 있다. 당송 8대가 중 한 사람인 왕안석(王安石)의 〈매화〉시를 보면 그의 개혁적인 행적과는 달리, 너무나 선적인 분위기 때문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牆角數枝梅(장각수지매)
凌寒獨自開(능한독자개)
遙知不是雪(요지불시설)
爲有暗香來(위유암향래)

담장 모퉁이에 핀 몇 가지 매화여
추위를 무릅쓰고 홀로 피었구나.
멀리서도 그것이 눈이 아님을 알겠으니
그윽한 매화 향기 불어오기 때문이라.

설중매(雪中梅)와 매중설(梅中雪)의 오묘한 경지를 절묘하게 그려내고 있다. 눈인 듯 매화인 듯 혼돈되지만 그윽한 향기로 말미암아 매화로 단정 내리는 참신한 안목의 시다. 엄동설한 속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뿜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매화를 통하여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유이강(柔而剛)의 선비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만

나지 못하는 임이라도 정의 온기로 짐작하고, 멀리 있는 벗이라도 덕의 향기로 느낄 수 있겠다.

아름다우면 강하기 어렵고 강하면 아름답기 어렵다. 그런데 매화는 아름다우면서도 강인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못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경칩 지난 어느 날 밤, 서울에는 밤새 봄눈이紛紛했다. 봄눈을 매화꽃이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맞으며 세종문화회관 뒷골목을 서성거리다가 술집에 들렀다. 소주는 내가 들이켰는데 취한 건 눈이다. 매화꽃 흩날리듯 나비 떼 몰아가듯, 몬트리올 동계올림픽 개막식보다 더한 밤눈의 잔치. 그럼에도 들려오는 남도의 매화 소식에 코를 연방 벌렁거린다.

눈 속에서도 조용히 봄을 준비하고 있을 매화 한 가지에 미소를 날리고, 우선 붓으로 친 매화 한 가지에 봄을 엮는다. 모진 추위 속에서도 용케 살아온 너, 오늘만큼은 얇은 웃음꽃을 너그럽게 피워보지 않으련?

흙의 노래 불의 춤

흙은 대지의 피부다. 흙은 흙덩이에서 때론 흙탕물로, 더러는 흙먼지로 변신한다.

흙이 물과 결혼하면 토양을 이루어 지표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길러낸다. 흙이 불과 결혼하면 그릇을 이루어 삼라만상을 담아낸다.

바위가 부서져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된다. 흙은 식물을 낳고, 식물은 동물을 살린다. 그렇다. 흙은 생명의 터전이다.

흙은 자신이 갈라지고 부서짐으로써 남을 살린다. 그러나 남이 죽으면 또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러한 흙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은혜로운 자가 있다. 하늘에는 운룡(雲龍)이 있고 바다에는 해룡(海龍)이 있고 땅에는 지룡(地龍), 즉 지렁이가

있다. 바로 이 지룡이 흙을 살리는 성자다.

흙의 여러 가지 변신 중에 가장 화려한 변신은 아무래도 도자가 되는 일이다. 흙을 이겨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초벌구이를 한다. 다시 유약을 발라 뜨거운 열을 가하면 도자기로 탄생한다. 열 받은 그릇은 원래의 모양보다 작지만 단단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며 영생(永生)한다. 흙은 불과 운명적으로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몸을 화들짝 낮추고 움츠린다. 그렇지, 인간도 몸을 낮춤으로 높아질 수 있다. 흙이 열을 극복해야 도자가 되듯, 인간은 고난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일 살아가다가 열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스트레스로 쌓아두지 말고 극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도자기의 교훈이다.

훌륭한 도예가는 흙에서 구수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다. 흙을 만지는 도예가의 손에는 썩떡 같은 푹푹함이 묻어 있다. 그 손길에서 구워져 나온 그릇에는 언제나 구수한 흙냄새가 옥빛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청자(靑瓷)에는 비춧빛 하늘 냄새가, 백자(白瓷)에는 눈빛 흰옷 냄새가 난다.

금세 불로 일궈낸 그릇으로 맑은 첫새벽의 샘물을 떠 마신다. 그릇으로 태어나 그릇으로서의 첫 구실, 이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굽이치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 어디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마찬가지로 물과 불의 난리를 겪지 않고 만들어지는 도자기도 있을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인간도 아픔과 시련

을 겪은 만큼 성숙한다. 불을 만난 흙은 아픔을 승화하여 찬란한 빛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 나에게 오는 시련은 단련의 기회다. 절망의 시점에서 희망을 노래하자.

재앙 재(災) 자를 보면 위에는 내[川천]가 꼬부라져 있고, 아래에는 불[火화]이 활활 타고르고 있다. 곧 재앙이란 물과 불에서 온다는 뜻이다. 크게 보면 재앙도 필요의 악이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태풍과 해일도 드넓은 바다에 산소를 불어넣는 일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올해는 지구촌에 유난히도 물난리와 불난리가 많았지만, 모두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필연이었던지도 모를 일이다.

자기(瓷器)란 물의 반주에 흙이 노래하고, 불이 춤을 추면서 빛어낸 예술작품이다. 부스러기 질흙 태토(胎土)가 물과 불을 차례로 만나 인조 옥(玉)이 되는 이치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준다.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가정에는 도자기가 있다. 인간의 시간을 잇고 흙과 불의 시간만으로 살아가는 도공(陶工)이 있기에 영원 불변의 인조 옥인 도자기(陶瓷器)가 탄생한다. 귀한 도자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허심(虛心)의 미학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나서 죽을 때까지 '말'과 '그릇'을 사용한다. 그런데 말을 /말/이라 발음하는 까닭은 꼭 해야 할 말은 하되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주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릇

을 /그릇/이라 발음하는 이유는 그릇에 담긴 음식은 먹되 '그릇된' 짓은 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6천 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릇은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인간이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늘면서 그릇 만드는 기술도 발전해왔다. 이는 그릇 용어에 변천을 보면 알 수 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300도 정도의 열에 구우면 토기(土器)가 되고, 유약을 발라 구우면 도자기(陶瓷器)가 된다. 도자기도 둘로 구분하면 도기(陶器)는 800~900도의 열을 가해 구워진 장독과 같은 것이요, 자기(瓷器)는 1,200~1,300도의 열을 가해 구워낸 찻잔이나 백자, 청자 등을 가리킨다.

흙이 씨앗을 받을 때
생명의 노래가 들린다
그 노래의 끝은 꽃과 열매.
흙이 열을 받을 때
빛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 잔치의 끝은 도자기.

- 하나는 '입 구(口)'
- 둘은 '부르짖을 횡(𠂇)'
- 셋은 '물건 품(品)'

□ 냇은 ‘여러 사람의 입 집(冊)’

여러 입이 잡은 짐승 한 마리(犬類)를 보고 있다.

나뉘 먹으려면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 ‘그릇 기(器)’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면 인간은 그릇을 만든다. 그릇은 흙에서 와서 깨어지면 또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도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자란 음식을 먹다가 종래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흙은 영원한 안식의 고향이다.

그런데 점차 흙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대지를 마구잡이로 뒤덮어 버리며 인공사막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흙도 숨을 쉬어야 할 텐데…….

노원서예협회 회원들과 함께 1박2일로 경기도 이천 도예촌에 들른 적이 있다. 도자기에 철사나 안료로 붓글씨를 써보는 도서(陶書) 체험을 위해서였다. 비단의 글씨는 오백 년 가고, 화선지의 글씨는 천 년 간다고 했다. 아마 도서는 영원하리라.

생명력이 넘치는 흙 가슴을 가진 사람과 흙 묻은 손으로 차 한 잔 나누며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가을 물처럼 고백해야지. 겨울 불처럼 사랑한다고.

진리의 샘물이 책에서 솟는다

눈이 부시다. 아침 눈이다. 소리 없이 내린 눈이다. 눈은 눈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산하대지를 골고루 덮을 수 있을까. 초목의 눈도 있다. 새봄을 대비하기 위하여 늦가을에 준비해둔 나무의 모든 눈을 겨울눈이 포근히 덮곤 한다. 눈은 아마 육안(肉眼)은 없지만 심안(心眼)을 가졌나 보다.

간밤에는 서대문에 사는 제자가 보내 온 문학지를 읽느라 눈이 내리는 줄도 몰랐다. 모든 눈은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 깜박임이나 초목의 꽃눈과 잎눈이 트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빗자루를 들고 나가 차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차의 앞뒤 눈도 툴었다. 그리고 안전한 지하주차장에 빈자리를 찾아 차를 옮기고 다시 서재로 올라와 책을 펼친다.

순간 책 속의 활자들이 하얀 눈 위에 떨어진 흑진주로 다가온다. 하얀 종이가 눈으로 보인 탓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눈발에 과묵한 진주를 캐는 일이고,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밭에 소중한 생각과 느낌의 씨알을 심는 일이다.

독서는 문자의 숲 속에 작게 뿔려 있는 돌레길 산책이다. 마음의 부담 없이 그 길을 걷다가 먼 산이나 인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더러는 길가의 풀이나 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독서는 문자의 바다를 향해하는 일이다. 순풍에 돛을 맡기고 편안히 항해하기도 하지만 풍랑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도 가끔은 발생한다. 어찌다가는 배가 난파되어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를 잡고 사력을 다해 헤엄치며 나아가야 하는 때도 있다.

겨울의 독서는 아무래도 눈으로 마시는 술이다. 그래서 비교적 황홀하다. 계절이 주는 집중력과 술맛이 내는 열기로 추위를 녹일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아무리 황홀한 술일지라도 지나친 음주로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할 일.

독서삼여(讀書三餘)라는 성어가 있다. 삼여(三餘)란 세 가지 여가라는 말로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왕숙전(王肅傳)’에 나오는 말이다. 어떤 이가 매일 쪼들리고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며 동우(董遇)에게 배움을 청하자, 동우는 “삼여(三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삼여란 ‘겨울’, ‘밤’, ‘비 오는 날’을 말한다. 겨울은 1년의 나머지[冬者歲之餘^{동자세지여}]이고,

밤은 하루의 나머지[夜者日之餘^{야자일지여}]이며, 비 오는 날은 갠 날의 나머지[陰雨者時之餘^{음우자시지여}]다.

이 삼여를 물고기 세 마리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중국어로는 ‘물고기 어(魚)’와 ‘남을 여(餘)’의 발음이 /위/로 서로 같기 때문이다. 물고기 그림은 결국 여유를 가지고 독서를 하라는 뜻이 된다.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산속 절로 간 까닭도 물고기는 24시간 눈을 감지 않고 정진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빛이라곤 ‘해’, ‘달’, ‘별’이란 삼명(三明)에만 의존하던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삼여(三餘)란 말이 생겼다면 현대판 삼여는 어떻게 규정지를 수 있을까. 디지털 사회에서는 자연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24시간 환한 조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삼여의 규정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종이라는 자원을 대체한 새로운 콘텐츠인 E-Book 세상이 오고 있다. 무게도 두께도 없으며, 암실에서 환하게 읽을 수 있는 밝은 책 세상이 오고 있으니 삼여의 조건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의 학생 삼여는 ‘방학’, ‘시험을 마친 때’, ‘수업 시간 사이’이고, 직장인 삼여는 ‘휴일’, ‘하루 업무를 마친 때’, ‘자투리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 자투리 시간은 지하철, 버스로 이동할 때나 강의 시간을 기다릴 때, 또는 먹을 갈 때 등이다. 특히 지하철로 이동할 때는 책 읽기에 안성맞춤이다. 앉거나 서거나 간에 시선을 딱히 들 곳이 없는데 이때 책 읽기야말로 제격이다. 그야말로 틈새 공

략이다. 몰래 훑쳐 읽는 듯한 알싸한 맛. 더러는 너스레스럽게 강의 교재 연구까지 한다.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독서백편 의자현(讀書百遍意自見)’이나, 사내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에 실을 만큼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남아수독 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는 얼핏 들으면 지나친 주장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예전에는 무슨 책을 읽었다 하면 그 책을 외고 있다는 말이니 독서백편(讀書百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거서(五車書)는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두보의 《두공부시집(杜工部詩集)》에 나오는 말인데, 본디는 장자(莊子)가 친구 혜시(惠施)의 장서를 두고 한 말이었다.

책을 가리키는 한자, 책 책(冊) 자를 살펴보면 죽간(竹簡)을 엮어놓은 모양이다. 이 죽간으로 만든 책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은 ‘책 전(典)’이고, 죽간을 깎는 모습이 ‘깎을 산(刪)’이다. 다시 말해 죽간 책 한 권(卷)은 한 아름이나 되니 다섯 수레라고 해도 수백 권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수백 권의 책을 달달 원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오거서(五車書)’는 그 당시에 문자로 남은 지식의 총량에 가까운 분량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요즘의 책 권수와는 비교가 어렵다고 본다.

책을 세는 단위인 책 권(卷) 자의 아랫부분을 보면 두루마리의 옆 모양이 보이지 않는가. 요즘의 책처럼 한장 한장 넘기는 것

이 아니라 종이가 없고 죽간이나 목간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장자 시대의 책의 모습은 당연히 두루 말아놓은 형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의 초기 모습은 모두 죽간이나 목간에 쓰인 두루마리였다.

독서삼도(讀書三到)도 있다. 송(宋)나라의 주희(朱熹)가 주창한 독서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도(口到), 안도(眼到), 심도(心到)가 그것이다. 곧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눈으로 딴 것을 보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어 숙독하면 그 진의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삼도(三到) 중에서는 심도(心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후한서(後漢書)》에는 삼혹(三惑)을 들고 있는데, 인간이 빠지기 쉬운 ‘주(酒), 색(色), 재(財)’, 곧 술과 여인과 재물을 가리킨다. 삼혹 대신에 삼여를 찾아 독서로 즐기자. 삼혹은 마음을 닦는 데 방해가 되지만 삼여는 마음의 위안을 준다.

고독과 독서는 서로 통한다. 고독(孤獨)의 ‘독(獨)’자와 독서(讀書)의 ‘독(讀)’자는 발음이 같다. 중국 발음도 /뚜/로 서로 같다. 고독을 독서로 즐기자. 고독과 벗어나 외롭지 않나니……. 얼쑤. 얼이 쑥 살아난다.

이 긴 겨울밤 한 번쯤 독서삼매(讀書三昧)에 빠져 보자. 한국의 교통, 통신, IT, 수출, 자동차, 선박 부분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독서 경쟁력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맴돌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옳거니.

노숙자도 책을 읽는 일본이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독서량의 차이 때문이라는 어느 일본 지식인의 말이 떠오른다. 인류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알파벳, 한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더는 교실을 ‘고개 숙인 침실’로, 지하철을 ‘달리는 침실’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KTX까지도 ‘이동 독서실’로 만들자.

푹어지게 독서하다가 보면 진리의 샘물이 책에서 솟을 듯하지 않은가. 물론 장시간 책을 읽다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니, 가끔은 고개를 들고 먼 산의 눈을 바라보자. 아니면 눈을 감고 봄을 꿈꾸는 초목의 눈을 생각하든지…….

도검설 刀劍說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로댕 조각전 〈신의 손〉이 열린 적이 있다. “바위를 보면 이미 그 속에 내 작품이 숨어 있었다”라는 멋진 고백 때문에 개막식 날에 전시장을 찾았다. 맥박의 진동과 숨소리를 느낄 듯한 꿈틀거리는 근육에서 로댕의 칼과 정, 그리고 망치 소리가 들린다.

칼은 요리를 하기도 하지만 훌륭한 예술 작품을 빚기도 하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칼은 수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흉기로 변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칼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해진다는 점이다. 같은 물을 마시지만,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드는 이치와 같

다. 원자력과 컴퓨터 기술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전각(篆刻)을 취미로 하는 나에게 있어서 칼은 주로 돌을 새기는 도구로 사용된다. 칼의 여러 기능 중에서 새김질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새김질, 이는 인간의 본능에 해당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징표로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다. 크게 보면 종족 보존의 욕구도 그러한 본성의 하나겠다. 세계문화유산 역시 동물이 배설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듯 세계 곳곳에 인간의 영역을 큼지막하게 나타내 보인 것이다. 부드러운 나무보다 단단한 돌 위에 새기는 일이 더 힘들지만, 돌은 반영구적이고 수정할 수 없는 분명한 표현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엄숙하고 신성한 본능이라 할 수 있다.

인류 기록문화의 전이(轉移) 양상을 보면 칼로 새기는 문화에서 붓으로 쓰는 문화로, 붓으로 쓰는 문화에서 다시 인쇄 문화, 전자 문화로 발전해왔다. 전자문화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곧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컴퓨터에서 양자 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꿈의 컴퓨터로 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원시적인 새김질도 예술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영원히 같이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옛날의 종이는 돌이요, 오늘날의 돌은 종이인 셈이다. 키보드와 마우스로도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키보드와 마우스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칼이나 붓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고유섭 선생은 돌의 문화는 '쌓는 문명'에서 '새기는 문화'로 전개되었다고 전제하고, '쌓는 문명에서 새기는 문화로의 전개는 석기 문명 진전의 필연상'이라 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돌을 쌓는 문명이든 돌에 새기는 문화이든 따로 존재하지 않고 공존하며 이어져 왔다고 본다. 지금도 건축이나 토목 또는 조각 등의 작업에서 쌓는 문명과 새기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이 두 가지는 면면히 이어지리라 믿는다. 영주 부석사 석축과 잉카인들의 공중도시 마추픽추를 보면 쌓는 문명과 새기는 문화의 꽃이라 하겠다. 비록 글자를 새기지 않았으나 치더라도 돌의 접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절묘하게 칼로 깎고 또 쌓아냈으리라.

잠시 호흡을 고르고 문 앞에 둔 난분을 바라본다. 이름답게 '갈래져' 나간 잎과 꽃대의 자태를 보노라니 '갈래'의 어원에 대한 궁금증이 발동했다. 놀랍게도 '갈래'의 말 뿌리는 '갈', 곧 '칼'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생각해보니 칼에서 파생된 우리말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칼은 '불'만큼이나 인류 문명의 소중한 도구라는 믿음이 싹튼다.

칼의 옛말은 '갈'이다. 《훈민정음 해례》에 '갈 위도(爲刀): 같은

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분명히 '갈'이다. 갈처럼 생긴 바닷물고기는 '갈치'이고 갈처럼 생긴 대는 '갈대'다. 그리고 보니 갈땃잎이나 갈치는 비슷하게 생겼다. '갈'은 갈아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 '갈다'가 나오고, 잘 갈린 갈이라야 가를 수 있으므로 동사 '가르다'도 나온다. 길게 가르고 가르면 그 울을 '가늘다' 하고, 오래 가르고 가르다가 보면 '가루'가 된다.

갈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갈로 갈라놓은 듯이 하나에서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간 낱알을 '갈래'라고 하고, 하나에서 갈려 나온 낱알의 줄은 '가닥'이라 한다. 두 갈래로 갈라지면 '쌍갈래'지만,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면 '갈래갈래' 갈라졌다 하고, 여러 가닥으로 찢어지면 '갈래갈래' 찢어졌다 한다. 길이 갈라지면 '갈래길'이요, 매화나 벚꽃처럼 꽃잎이 갈라지면 '갈래꽃'이다.

몸에서 갈라져 두 갈래로 벌어진 다리 부분은 '가랑이'라 하고, 밑동이 두세 가랑이로 갈라진 무를 '가랑무'라 하며, 두 가랑이로 갈라서 땅아 늘인 머리를 '가랑머리'라 한다. 갈래갈래 나뉘어 가늘게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 하고, 가지에 붙어 있다가 갈래갈래 떨어져 마른 나뭇잎을 '가랑잎'이라 한다.

갈을 사용하여 동강을 내거나 끊어내는 것을 '자르다'라고 한다. 자르고 또 자르면 '잘게' 된다. '짧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다. 소문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떠들썩하면 소문이 '자자한' 것이고, 잘고 시시하여 대수롭지 않으면 '자질구레하다'고 할 수 있

다. 칼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치게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나 염려되지만, 우리말의 묘미에 새삼 매료된다.

또 하나의 갈의 쓰임은 물건의 가죽이나 표면을 얇게 벗겨낸다는 뜻의 '깎다'다. 물건 값을 깎기도 하는데, 이 말 역시 갈과 무관하지 않다.

한자로 칼은 '칼 도(刀)'와 '칼 검(劍)'이 있다. 도(刀)는 외날칼이고 검(劍)은 쌍날칼이다. 칼로 새기는 일을 '새길 각(刻)'이라 하는데, 놀랍게도 /각/이란 발음이 갈에서 온 두 동사 '갈다', '각다→깎다'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각(刻) 자 왼쪽의 해(亥)는 씨 핵(核)을 가리킨다. 따라서 각(刻)을 한다고 하면 아무것이나 새기는 것이 아니라 '씨앗', 곧 '핵'을 새겨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단어의 발음을 두고 그 까닭을 까다롭게 찾다 보니 까다로운 사람이 될 성싶다. 오늘은 칼을 너무 많이 휘둘렀나? 조자룡은 무던 칼도 잘 휘두르는데, 나는 간 칼로도 새기다 만다. 잘못 새기면 또 깎곤 하다가 까짓거 깎다가 안 되면 꺾지, 뭐.

여전히 간드러지게 갈래진 난초 잎은 탄력을 유지하며 곡선미를 자랑하고 있다.

인격적·학문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급 인물에 대한 명칭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서양에서는 신사(紳士)요, 동양에서는 군자(君子)라 한다. 순우리말로선 선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군자란 본래 덕행과 학식이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사실 경제적·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동양인이면 누구나 군자가 되기를 흠모해왔고, 특히 문인묵객(文人墨客)은 삶의 지표를 군자가 되는 것에 두었다. 군자란 본인에게 보람과 자부요, 남으로부터는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자연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동양인은 실로 다양한 식물 중에서도 군자의 덕성을 지닌 매(梅), 난(蘭), 국(菊), 죽(竹)만을 특별히 의인화하여 '사군자(四君子)'라 이름 짓고 문학과 회화의

소재로 즐겨 사용해왔다. 시서화(詩書畫) 삼절(三絶)을 표방하던 선조는 시와 서예와 그림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는데, 요즈음은 대개 사군자를 문인화에 귀속시켜 제도적으로는 시와 서예로부터 독립해가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시서화는 점차 분리되어 따로 놓고, 문인화도 서예적인 '군자문인화'와 회화적인 '그림문인화'로 나누어진 형편이다.

유교적 분위기가 강했던 낙동강 상류의 한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하자마자 군자언하며 서예와 사군자에 풍덩 빠지기 시작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작 청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줄 시(詩)는 등한히 하고 서화(書畫)에만 매진했으니 10년도 못 되어 싫증을 느낌은 당연한 귀결이다.

더욱 쑥스러운 일은 사군자를 공부하면서도 실물은 제대로 보지 못한 데 있다. 자라면서 대나 국화 정도만 보았지, 매화와 난초는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사군자를 '친'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더듬었을 뿐이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난초와 매화를 구경하러 삼남(三南)은 물론 제주도까지 달려가곤 했다. 채란(採蘭)을 위해 시골 야산을 헤맨 시절도 있었다.

쪽팔림은 순간이요, 실력은 영원하다. 사군자 작가지만 매화와 난초를 잘 모르니 묻는 게 상책이다. 현장에 달려가 어느 게 매화인지, 어느 풀이 난초인지 조근조근 물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으로 메우는 것이다. 앉아서 우두망찰할 것

이 아니라 현장을 뛰어다니며 오감으로 직접 느껴보자. 특히 비파는 중국의 소주, 항주에 가서야 비로소 실물을 접했다. 순간 이전에 관념적으로 그린 비파가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모른다.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 사군자를 다시 공부하게 된 것이다.

눈 속에 암향(暗香) 흘러 괴이하여 나섰더니
눈인지 꽃인지 분간키 어려워라
매마침 벌이 오가니 매화가 분명코나.

여기의 매화(梅花)는 설중매(雪中梅)다.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백매(白梅)를 시샘하여 눈이 내린지도 모를 일. 봄이 왔기에 매화가 피는지 매화가 피었기에 봄이 오는지도 알 수 없는 일. 매화를 가리켜 보춘(報春), 즉 봄을 알립, 또는 춘신(春信), 즉 봄의 소식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매화가 피어야 봄이 오는가 보다. 매화는 백화(百花)에 앞서 이른 봄에 홀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산한다. 매화는 그 품격이 세속에 물들지 않아 지조(志操) 있는 선비를 닮았다. 그리고 겨울에 피어 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선구자(先驅者)로 상징되기도 한다.

날을 듯 휘어지며 고이 뺨은 난초 잎새
야한 속살 들킬까 한밤 몰래 피었건만

꿀방울 향기 울림에 온몸을 들켰구나.

난초(蘭草)는 깊은 산 그윽한 골짜기에 홀로 피어 있으며 향기를 멀리 보내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일지사(隱逸志士), 즉 숨어사는 절개 높은 선비, 또는 유미인(幽美人), 즉 뽐내지 않으면서 겸손하고 그윽한 미인으로 불린다. 텅 빈 계곡에 몰래 숨어서 절개와 순결을 지키려 한들 난초의 애태우는 향기와 매혹적인 얼굴 때문에 어느 초부(樵夫)에게나 들키고 만다. 설령 초부가 통통 튀는 곡선미만 보고 떠난다 해도 난사(蘭麝) 향주머니 달고 나선 여인을 길에서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조심할 일.

간밤 서릿김에 온갖 꽃 시들지만
들국화 너는 어이 소금처럼 피었나니.
오호라, 별꽃 잔치를 들녘에 펼쳤구나.

늦가을 들녘의 국화(菊花)를 보면 간밤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내려와 놀다가 길을 잃은 듯하다. 서리를 무릅쓰고 핀 네 모습을 보고 오상고절(傲霜孤節), 즉 서리를 업신여기는 외로운 절개라 한다. 대지를 감췄던 안개가 걷히고 오후의 밝은 햇살이 동편 울 밑에서 곱게 화장한 국화를 비출 때의 모습을 보고 동리가색(東籬佳色), 즉 동편 울타리 밑의 아름다운 빛이라 한다. 다스한 봄바람

에 살포시 얼굴 내밀고 무더운 여름에 오롯이 자라나 늦가을 무서리에 매운 향기를 토하니, 문인을 머물게 하고 묵객의 붓을 흔들 수밖에 없다.

우후죽순(雨後竹筍) 연한 몸이 구름 밖에 솟구치고
북풍한설(北風寒雪)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나니.
갈대야 부러워 마라 허심견절(虛心堅節) 대로다.

대는 벼, 갈대와 같은 족속이지만 이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또 오래 산다. 그 비결은 마음을 비우고 매듭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속은 비우고 마디는 굳게 하며 평생 푸른 잎을 이고 있기에 대를 허심견절(虛心堅節), 즉 마음을 비우고 절개를 굳힌 군자, 또는 북창한우(北窓閑友), 즉 선비 방의 한가로운 동무라 한다. 봄에 죽순으로 불쑥 솟아나 보름 만에 자랄 만큼 다 자라고 여생은 속을 비우며 마디를 단단히 하는 데 온 정성을 쏟는다. 맑은 날엔 옥빛을 띠고, 바람 부는 날엔 노래하니 군자의 흥(興)이 이에 더할까. 삼라만상(森羅萬象)은 대개 한때가 있거늘 오직 대만은 1년 내내 한 빛이다. 눈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를 일러 특별히 세한고절(歲寒孤節)이라 하는데, 이는 국난에 충신지사(忠臣志士)의 모습과 꼭 닮았다.

사계절에는 각기 그에 걸맞은 군자가 있어서 선비는 항상 외롭지 않았다. 자연물인 사군자를 스승이나 벗으로 삼아 자신의 덕성을 기른 선비의 여유가 부럽다.

슬로우 푸드가 다시 주목을 받듯이 슬로우 아트인 사군자를 치기 위하여 먹을 갈아볼까나. 순간 문밖에서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간만에 공부 좀 해볼까 하는데 방해꾼 친구가 오나 보다. 방문을 열어보니 댓잎이 바람에 노래하고 울 밑 국화향이 온몸에 스민다. Oh, my friend, bamboo and chrysanthemum!

미국에서 건너온 차茶

더위가 지나치면 달콤한 낮잠은커녕 밤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이럴 때면 으레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표방하며 차라리 따스한 찻잔과 벗하며 독서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런데 오늘의 이 차는 어디에서 왔고.

공자는 가까운 것부터 잘 생각하면 인(仁)이 그 속에 있다고 했다. 생활 주변에서 늘 접하는 다양한 풀들도, 이들을 가려서 차로 만들면 자신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묻어난다. 밭에 마구 밟히는 그 흔해빠진 수수한 풀떼기들이 구안자(具眼者)의 눈에 띄이고, 채취되고, 정성스럽게 덥히고 비벼진 후에 마침내 그윽한 맛과 오묘한 향기를 지닌 차(茶)로 환골탈태(換骨奪胎)된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운 일인가. 평소에도 다양한 차를 즐겨 마셔온 터이긴 하나, 자생차에 대하여 관심했던 내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차들이 있었다.

“이 민들레는 약명으로 ‘포공영(蒲公英)’이라 하는데, 간(肝)과 담(膽)과 위(胃)에 좋은 작용을 하며 습열(濕熱)을 다스려준답니다. 즉, 열에 의한 종기 치료는 물론, 인후(咽喉)가 붓거나 열이 날 때는 그 열을 내려주고 해독 작용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또 말린 썩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요. 놀랍게도 먼먼 미국 땅에 썩뿐만 아니라 질경이, 뽕나무가 그리 흔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고국에 다니러 온 미국 제자 시인 박지현이 민들레차, 썩차, 질경이차, 뽕잎차 등의 미국 자생차를 정성껏 만들어 내게 선물로 건네주며 한 말이다. 박 시인이 차에 관한 한 가히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차 마니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 이민 가서도 그곳의 자생차를 손수 덥고 마시며 다인(茶人) 생활을 즐기는 줄은 미처 몰랐다. 빈티지 병에 소담스레 담긴 다양한 모양과 빛깔의 찻잎들……. 블로그를 통해 살펴본 시인의 다도일상(茶道日常)은 실로 벽찬 감동이었다.

경기도 양주의 차 박물관 ‘차우림’에 가서 다인들과 함께 노래하며 차담(茶談)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일탈을 꿈

꾸며 머리를 식히고, 잠시나마 망중환(忙中閑)을 즐기기 위해 찾아 나섰던 신명 나는 생활의 여백(餘白)이었다.

보이차(普洱茶)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고풍스러운 중국차를 원 없이 음미하며 일상의 근심을 삭히고 생각의 싹을 틔우던 그 시간, 그야말로 몰아지경(沒我之境)의 차 바다에 풍덩 빠졌다. 돌아오는 길에 이원종 관장님께서 수령 400년이 넘는 중국의 고수차(古樹茶) 소쿠리를 하나씩 손에 쥐어주었다. 감동과 감사의 연속이다. 차담망우(茶談忘憂)하며 이 차를 음미하는 순간마다 ‘차우림’을 잊지 못하리라.

돌아오자마자 고수다례(古樹茶禮)를 갖고 생각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살며시 피어오르는 차의 아지랑이는 하늘을 향한 분향(焚香)이요, 차의 오묘하고 고운 빛깔은 삼라만상이 혼효된 색(色)이며, 그윽한 향기는 내 순연(純然)해지고자 하는 영혼의 발심(發心)이다.

한 방울의 신비로운 맛이 혀끝에 감지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각(覺)을 체험하게 된다. 자연에서 온 것이 이제 우리 몸을 거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차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차를 덫는 과정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빚어내는 절묘한 시공인 삼중주(時空人三重奏)다. 차를 마시는 과정은 어떤가. 꽃잎은 다시 한 번 찻물 속에서 개화하며 하늘을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찻잎은 봄을 맞이하는 부활의 몸짓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충일감을 안겨준다.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다담이라 하는데, 속인(俗人)은 차의 맛과 향기에 관한 이야기에 그치지만 다인(茶人)은 차의 역사와 철학까지 더듬는다. 속인이 차를 마시는 일은 해갈을 위한 수분 공급이지만, 다인이 차를 마시는 일은 창공의 햇살과 대지의 바람까지 받아들이는 우주적 사고의 장이다. 그리고 음다인(飲茶人)을 생각하지 않는 재다인(栽茶人)은 차를 재배할 자격이 없고, 재다인의 손길과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는 음다인은 차를 마실 자격이 없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살청(殺靑) 기관이다. 녹색식물을 섭취했음에도 황색 변이 나오는 것은 몸속에서 살청이란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차를 덫는 일은 체외 살청이고 찜밥을 먹는 일은 체내 살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차를 마심으로써 소화의 도움을 얻고, 나아가 수명을 연장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진실로 차를 즐기는 다인들은 지나치게 예(禮)와 도(道)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세 끼의 밥을 먹듯, 물을 마시듯 차를 늘 옆에 두고 마신다. 차를 마심으로써 사탕 마음과 욕심을 하나씩 떨어내는 듯하다. 수선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다문화(吟茶文化)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행여 본

인도 모르게 지치고 탁해진 심신을 위해 차를 마심으로써 새 영혼으로 갈음할 수 있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면 차에 대한 지나친 아첨일까.

《동다송(東茶頌)》을 쓴 초의선사(草衣禪師)는 불가의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과 다도정신(茶道精神)을 유독 강조했는데, 이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평심(平心)이 곧 도(道)요, 선(禪)이요, 일상의 화두(話頭)라는 것이다. 도(道)를 취함에 있어서나 선(禪)을 행함에 굳이 관에 박힌 형식이나 잡다한 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기도하듯 차를 달인다. 차를 뒤고 비빈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며 우려낸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 우리는 다선일미(茶禪一味)에 이를 수 있다.

차를 마심으로써 마음을 옥죄는 그 어떤 번뇌와 구속으로부터 훌훌 벗어나는 자유로움과 일체 편견에서의 이탈은 물론, 삼매(三昧)와 해탈(解脫)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 차를 마심에 굳이 엄숙한 불교적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차분히 자기의 마음 받을 고요히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바로 음다명상(飲茶冥想)이고 낙다삼매(樂茶三昧)가 아니겠는가.

우리말로 왜 /차/라고 발음할까. 일상의 번잡한 일로 말미암아 생긴 뒤틀린 감정(感情)은 ‘차분하게’, 들뜬 이성은 ‘차갑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닐까?

바람처럼 향기처럼 흔적 없이 다가가리

더위가 심할수록 대와 친해지고 싶다. 방바닥에는 카펫 대신에 대 자리를 깔고, 잠을 잘 때는 죽부인(竹夫人)을 안고 자며, 이따금 합죽선(合竹扇)이라도 펼치면 친환경적 여름 나기로는 제격이리라.

대는 벼과 식물에 해당한다. 벼는 물론 옥수수, 보리, 밀, 갈대 등도 벼과 식물에 속한다. 벼과 식물은 생명력이 강하여 우리가 선호하지만, 무엇보다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곡류가 많아 인기 최고다. 특히 대는 줄기가 목질화(木質化)되고 마디가 튼튼하며 살아갈수록 속을 비움으로써 생명을 연장한다. 그리하여 비록 식물이지만 군자가 본받을 덕성(德性)이 많아 일찍이 사군자(四君子)의 하나로 부르고, 또 많은 문인묵객(文人墨客)의 입과 손에서 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대는 풀인가 나무인가. 이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줄기가 딱딱하고 키가 크기 때문에 나무처럼 보여 흔히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는 풀이다. 대가 나무라면 나이에 따라 생기고 줄기가 두터워져야 하는데 대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대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풀이라 할 수 있겠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도 연시조 〈오우가(五友歌)〉에서 대가 나무인지 풀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저리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키가 크고 단단한 걸로 보면 분명 나무인데, 식물도감에 의하면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규정하고 있다. 키가 큰 왕대만을 대나무라고 일컫는 때도 있지만, '대'에다 '나무'라는 말을 덧붙이지 말고 그냥 '대'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삿대', '장대', '숫대', '바지랑대' 등의 예에서 보면 '대'는 '긴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의 '대'도 모두 '대'에서 왔다고 봐야 한다.

왕대는 높이가 30미터, 지름이 30센티미터나 되는 것도 있다. 모든 대는 줄기가 꺾끗하고 둥글며 속은 비어 있다. 죽절(竹節)은 해를 더할수록 단단해지고, 죽순(竹筍)은 땅속줄기의 마디에서 그야

말로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돋아나며 식용으로 더없이 좋다. 잎은 좁고 길며 녹색(綠色)이다. 습기가 많은 땅을 좋아하고 생장이 대단히 빠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왕대, 솜대(분죽), 오죽(烏竹), 조릿대(신우대) 등이 흔하고 중부 이남과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대는 실용(實用)과 식용(食用)은 물론 허심(虛心)과 견절(堅節)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대/라는 발음은 /다이/에서 왔고, 이는 옛날 중국 남방의 명칭 /택/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일본말로 /다케(たけ)/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자로는 '죽(竹)'으로 쓰는데, 이는 줄기와 댓잎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순우리말 '죽죽'이란 부사어는 한자어 '죽죽(竹竹)'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식물 죽(竹)은 땅에서 위로 '죽죽' 뻗으며 올라가지만, 음식 죽(粥)은 입에서 목줄기를 따라 거침없이 '죽죽' 내려간다. '죽죽'은 '쭈쭈'과도 상통한다. 봄날 쭈이 쭈쭈 돌아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대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불에 탈 때 공기의 팽창으로 요란한 소리를 낸다. 그리하여 선조는 정초(正初)에 사람 왕래가 드문 새벽에 문밖에서 대를 태워 잡귀(雜鬼)를 쫓곤 했다. 잡귀가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잡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이른바 축귀초복(逐鬼招福)의 전통풍습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중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절(春節)로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실로 시끌벅적한 폭죽놀이를 한다. 그들은 아직 폭죽 행위가 귀신을 쫓고 평안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폭죽(爆竹)’의 중국 발음은 ‘축복을 알린다’는 뜻의 ‘보축(報祝)’의 발음과 흡사하다.

퀴즈 하나를 내보겠다. 방(房) 안에서 새가 날갯짓 하는 글자가 뭘까? 답은 ‘지계 호(戶)에 깃 우(羽) 자를 쓴 부채 선(扇)’이다. 그렇다면 왜 /선/이라 발음할까? 부채로 부치면 선선하니까.

우리말 ‘부채’는 ‘(바람이) 부는[吹] 채 > 불채 > 부채’로 분석이 가능하다. 부채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동사는 ‘부치다’다.

여름이면 방 안에서 새처럼 날갯짓 하며 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부채는 가볍고 멋있게 생겨 품위 있게 가지고 다니기에 좋고, 가격에 큰 부담이 없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에어컨과 선풍기를 대신하니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

부채의 으뜸 멋은 대와 종이의 결혼에 있다. 당연히 신랑은 대요, 신부는 종이다. 가끔 종이 대신에 비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견오백 지천년(絹五百紙千年)’이란 말처럼 비단은 수명이 반 천년 가지만 종이는 온 천 년이나 간다고 하니, 그놈의 결혼 한번 길기도 하다. 매일 바람을 피워도 떨어질 줄 모르는 ‘지죽열애(紙竹熱愛)’여!

紙與竹相婚(지여죽상혼)

生其子清風(생기자청풍)

종이와 대가 서로 혼인을 하여
그 자식을 낳으니 청풍이로다.

부채의 머금 멋은 직선과 곡선의 절묘한 조화다. 둥글부채든 쥘부채든 모두 직선의 대에 곡선의 종이가 어울려 만들어진다. 둥글부채를 단선(團扇) 또는 방구부채, 쥘부채는 접선(摺扇) 또는 접이부채라고도 한다.

개인적으로 부채의 딸림 멋은 부채에 대를 치는 일이다. 지면이 우툴두툴하여 부채만의 질감이 있어 더욱 좋다. 부채에 대 그림이 무엇보다 잘 어울리는 이유는, ‘대’ 하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종이의 치마폭에 묻혀 지내는 대에 활기(活氣)를 불어넣는 일이기도 하다.

유럽발 불경기가 세계로 번지고 있다. 가뭄에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부채(負債)를 날려버리기 위해 서도 부채질이 필요하다. 요새 세상에는 위로 임금이 안 계시니 단오선(端午扇)을 하사받을 일이 없다. 어려운 이웃에게 부채나마 선물해야겠다. 그리하여 바람처럼 향기처럼 흔적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부채 위에 시구(詩句)를 적어본다.

마음속 새 한 마리
바람처럼 다가가리.
바람 불어 좋은 날
향기처럼 다가가리.

綠風(녹풍)

淸風至心(청풍지심)

扇風至遠(선풍지원)

淸風至遠堅節聳立(청풍지원 견절용립)

時間許多不要急(시간허다 불요급)

淸風徐來月自笑(청풍서래 월자소)

녹색 바람.

맑은 바람이 마음에 이른다.

부채 바람이 멀리 이른다.

맑은 바람이 멀리 가고 굳은 마디 우뚝 섰다.

시간이 많으니 급할 일 없다.

청풍이 천천히 불어오니 달이 절로 미소 짓누나.

바위에 아로새긴 한민족의 꿈

누군가 나에게 “한국의 역사가 반만년이라며? 뭘 보고 그래? 증거를 대봐”라고 한다면 나는 빙긋이 웃으며 거침없이 “반구대 암각화(盤龜臺巖刻畫)”라고 대답할 것이다.

태초에 하늘이 열리고 이어서 땅이 지어졌다. 계절의 순환이 이어지고 마침내 한반도가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자리매김했다. 동해를 앞마당으로 하고, 일본열도를 담장으로 둘러쌌다. 그리고 보니 대륙을 드나드는 현관문이 바로 한반도다.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맥이 등지느러미를 세우면 동해에서는 아침 해가 태평양을 건너 찬란하게 떠오른다.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이 땅에 북방에서는 먼저 깨인 자들이 매서운 칼바람을 피해 이주해 오고, 남방에서는 모험심이 강한 자

들이 구로시오해류를 따라 이주해 왔다. 지혜로운 씨족과 의지 강한 씨족이 서로 만나 아이 낳고 더불어 살면서 한민족이란 특별한 종족을 만들었다. 어쩌면 그 터전이 울산 반구대 주변이었는데도 모른다. 더러는 산악 호랑이의 무서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더러는 바다 고래 떼의 장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폭 10미터, 높이 3미터의 ‘ㄱ’자 모양으로 꺾인 절벽암반 반구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다.

오래전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기 전을 선사시대(先史時代)라 한다. 한민족에게도 물론 선사시대가 있었다. 여름이 오면 더위와 다투고 겨울이 오면 추위와 싸우며, 가족과 더불어 살 집을 짓고, 배고프면 먹을거리를 찾았다. 공동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도 자연히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을 바위에 새겨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울산(蔚山) 대곡리(大谷里)의 태화강(太和江) 지류 천변에 새겨져 있는 반구대 암각화다. 반구대는 지명이요, 암각화란 바위그림을 일컫는다.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예전공 학생들과 함께 답사 여행으로 울산을 다녀왔다. 울산의 명물인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서석(書石)에 대한 공부가 주목적이었다. 울산의 명필 서호 이권일 선생의 도움으로 용의주도하게 접근하고 또 탐색할 수 있었다.

과거 고 최경환 옹 등의 마을 사람들이 물속에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 소문을 듣고 1971년 12월 25일부터 1977년까지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불교사적 조사팀은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한 최초의 보도는 1972년 1월 27일 자 <중앙일보>에 실렸다.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바위그림 연구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귀중한 유적으로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에 소재한다.

반구대(盤龜臺)는 울산 12경의 하나로 반구산(盤龜山)의 끝자락에 기암절벽이 솟아 있는 곳을 말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산의 모습이 거북이가 눕죽 었드린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 말 충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가 언양에 유배되었을 때 자주 찾아와 경관을 즐기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달랬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에서 조선시대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과 한강(寒岡) 정구(鄭逵)와 같은 학자들도 주변 경관을 즐기며 시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니 반구대와 그 주변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신석기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는 소중한 인류문화유산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사연댐이 지난 1965년에 축조된 이래, 반구대 암각화는 댐에 물이 차면 침수되고 댐에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등 반복된 침수 현상으로 마모와 균열 등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바위그림이

옛날엔 선명했는데 점차 흐릿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자맥질하고 있다. 흑여 숨이 차올라 암각화의 목숨이 다할지도 모를 일이다. 사연 많은 사연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의 것이 아닌 귀중한 인류문화유산 하나가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강바닥보다 높은 암반 위에 새겨져 있어 원래는 물에 잠기지 않았으나 댐 건설 이후에는 물속에 잠기기 일쑤여서 가뭄 때가 아니면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강 건너편 언덕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이맛살 찌푸리며 뜯어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비록 가까이서도 무심하면 못 알아보고 지나치겠지만, 바위 면에는 분명히 육지와 바다 동물, 사람과 배 등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지금은 방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망원경 옆에 커다란 그림판을 세우고 해설까지 붙여놓았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사연담이 식수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던 울산시가 간헐적인 침수로 훼손이 빨라지고 있는 국보를 잘 보존하기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댐의 수위를 낮추어 암각화가 항상 물 밖으로 드러나도록 조치했다. 사연담 수위를 52미터로 낮추면 반구대 암각화가 물속에 잠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젠가 김황식 국무총리, 최광식 문화재청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이 암각화 보존과 대체수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한 바 있다. 식수원 확보와 문화유산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식수원 일부 손실을 감수한 문화유산 보호 쪽에 손을 들었다. 옳거니. 반구대 암각화 보존 덕에 울산은 인류 최초의 고래도시로, 인류 최초의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만난 곳으로 그 명망을 더할 것이다. 아무렴.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문화유산 자체만 보존하면 되었는데, 현재는 유산을 있게 한 문화환경까지 보존해야 한다. 더구나 지자체장의 보존 의지가 평가목록에서 가장 중요하단다. 늦었지만 울산시의 반구대 암각화 보호 의지에 갈채를 보낸다. 한국인의 자긍심인 반구대 암각화가 지구인의 소중한 문화재로 거듭나서 제 위치를 영원히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모습 300여 점이 새겨진 바위그림으로 한민족 반만년 역사의 살아 있는 증거물이다. 한국역사의 첫 장면의 그림으로,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한국미술의 원형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그림은 반만년 전 선사유적으로서 중국, 유럽의 암각화와 조형원리가 서로 통한다. 그러기에 이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사실 암각화의 제작 시기에 대한 설은 매우 다양했는데 황상일, 윤순옥 부부 교수의 논문 <반구대 암각화와 후빙기 후기 울산만의 환경변화>에 의하면 5천~6천 년 전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후빙

기 바닷물이 밀려왔을 때 현재의 울산 시가지는 바다였고, 그 바닷물의 가장자리가 지금의 반구대 아랫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패총에서 발굴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마리의 사슴이 그려진 빗살무늬토기 조각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의 사슴 그림과 일치한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대표적 문양이 있는데, 이 토기 제작자와 반구대 암각화를 새긴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토기가 묻혀 있는 토층의 탄화물을 소재로 반감기를 따져 연대를 정밀 측정된 결과 이 토기의 제작 연대가 기원전 3천 년,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 반구대 암각화는 반만년 역사를 안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반구대 암각화는 국내 문화재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림과 글씨는 인간의 영혼을 담은 그릇이다. 다양한 그림과 글씨는 그릇의 모양이요, 작가의 영혼은 내용물이다. 무뚝뚝한 바위 위에 불꽃 튀는 칼질이나 평온한 화선지 위에 용트림하는 붓질, 그것은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심원한 놀이요, 예술 활동이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선사시대 우리 선조의 영혼이 그대로 담겨 있다. 종이가 아직 발명되기 전 암벽이 종이를 대신했고, 따라서 붓 대신 칼과 정으로 아로새긴 현존 최고(最古)의 그림이다.

말은 가장 기본적인 의사 전달 수단이다. 그다음은 글과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소리를 기록하는 녹음기와 움직임을 기록하는 동영상 녹화기의 발명은 근래의 일이다. 글과 그림은 쓰고 그리는 과정이 말보다 훨씬 어렵지만 오래 보존되는 장점이 있다. 종이 위에 쓰는 일보다 돌에의 새김질은 생명력이 강하여 더 오래간다. 반구대 암각화는 단단한 돌에 새겨져 있고 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강 건너편의 석벽에 새겨져 있어서 다행히 지금까지 오묘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바위에 아로새긴 한민족의 꿈은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지나온 반만년에 다가올 반만년을 이으며, 영원히 가장 소중한 한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도한다.

한, 그리고 한옥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세종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특별한 서예 마당을 펼친다. 연전에는 청계천 장통교 일원에서 선보였던 먹 잔치였다. 서울시 후원, 한국예술문화원 주관의 행사로 광장에다 광목을 넓게 펼쳐놓고 시민과 더불어 붓글씨를 즐기는 서예 퍼포먼스가 그것이다. 나는 이를 '라이브 서예'라 이름 붙였다. 나의 입장에서는 서예를 홍보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시민으로서 는 붓글씨를 통한 자기표현의 즐거움을 맛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많은 국외 관광객들이 들르기도 하는데, 이들에게는 한글의 예술성과 과학성을 알리고, 한국의 전통예술의 하나인 서예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좋은 문화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회(chance)가 오면 도전해(challenge)보세요. 당신의 운명이 확 바뀔(hange)겁니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cha-cha-cha)! 붓글씨(caligraphy) 체험의 기회(chance)로다!”

“여기는 한국 문화 체험의 하나인 서예 체험장입니다. 붓 잡을 기회(chance)를 놓치지 마세요.”

“한글은 인류가 꿈꾸던 최고의 글자입니다. 여기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ㄱ’에서 ‘ㅎ’까지, ‘ㅏ’에서 ‘ㅣ’까지 합창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붓으로 써 보이겠습니다. …… 이것은 자음도(子音圖), 저것은 모음도(母音圖)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쉽고도 간단한 과학적인 글자지요!”

라이브 서예는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라이브 서예가 선거 유세판과 어울려 소란한 가운데 치러진 적이 있다. 그날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와 붓질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런데 뜻밖에 영국의 노신사 한 분이 붓글씨를 써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인보다 한옥을 더 사랑하는 ‘순수한옥 지킴이’라는 별명을 가진 데이비드 킬번(David Kilburn) 씨였다. 그의 아내 한국인 최금옥 씨도 함께했다. 킬번 씨가 큰 붓을 잡고 쓴 내용은 ‘Hanok’이었고, 그의 아내가 추가한 내용은 ‘사랑해요’였다. ‘Hanok, 사랑해요.’ 한글 홍보에 한옥

홍보도 겸하게 되니 일석이조의 행운이었다. 더구나 외국인의 한옥 사랑에 모두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이날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글’, ‘한옥’으로 잡았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글’, ‘한옥’, ‘한지’, ‘한복’, ‘한식’, ‘한방’, ‘한약’, ‘한우’, ‘한반도’, ‘한국’ 등과 같이 ‘한(韓)’ 자가 붙는 우리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문(漢文)도 이제는 한문(韓文)으로 써야 한다는 절실한 다짐도 했다. 그렇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아름다운 추억을 되찾은 듯 열심히 메모까지 했다.

한(韓)은 삼한(三韓)시대부터 쓰였지만 본뜻과는 관계없이 ‘크다’, ‘많다’라는 뜻의 형용사 ‘하다’에서 왔다. 한(韓)은 또한 ‘하늘, 하나, 함께’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한자 한(韓)은 순수리말 ‘하다’의 관형사형, ‘한’의 음차였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韓國)이라 하면 ‘큰 나라’, ‘하나뿐인 나라’, ‘함께 사는 나라’의 뜻을, 한옥(韓屋)이라 하면 ‘큰 집’, ‘하나뿐인 집’, ‘함께 사는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옥은 초가집, 너와집까지 포괄하지만 대개는 기와집만을 떠올린다. 서민의 집은 대개 초가집이고 양반의 집은 기와집인데, 외형으로 보면 기와집은 지체 높은 양반이 살아서 그런지 지붕과 용마루가 하늘을 받들고 있는 형상이요, 초가집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땅을 감싸는 듯한 모습이다. 게다가 초가집

은 비바람 때문이겠지만 새끼줄에 뽕뽕 묶여 있어서 구속받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좌우지간 기와집과 초가집이 한데 어우러진 이 땅은 천지조화가 잘 이루어진 축복의 땅이란 확신이 생겼다.

한옥 밖에는 몇 그루의 나무와 우물이 있고, 한옥 안에는 맑은 공기와 은은한 햇살이 있어서 참 좋다. 한옥은 주변의 흙, 돌, 나무 등으로 만든 친자연적인 집이다. 그래서 무너지거나 불에 타더라도 폐기물 하나 나오지 않고 깨끗하게 자연으로 돌아갈 줄 아는 친환경적인 집이다.

서예를 즐기는 나는 한옥 재료 중에서 한지를 가장 사랑한다. 문에는 물론 벽과 천정에도 바르던 한지, 노란 콩기름을 발라 방바닥에도 바르던 질긴 한지, 더러는 한지로 옷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이불로도 사용했던 한지, 책을 만들어 한민족의 얼을 지켜냈던 한지. 이 한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기운인 햇살과 대지의 기운인 바람을 적당히 받아들이며 더불어 살맛나게 살아온 것이다. 한지가 햇살과 공기가 알맞게 드나들며 필터(filter) 역할을 하는 덕분에 한옥은 살아 숨 쉬는 집이 되는 것이다. 지기(地氣)를 받아 지은 한옥이 천기(天氣)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집이 되고 만다. 하늘과 땅이 만나 생(生)을 낳는 한옥이다. 살며 사랑하며, 삶의 보람을 안겨주는 사람의 집이 한옥이다.

더러는 한옥의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실은 약간의 불편함에서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 탄생했던 것이다. 신발을 땃들 위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고개를 적이 숙이고 문지방을 조심스레 넘는 데서부터 예절이 생겨났다. 우리가 편리 위주의 서양식 아파트에 살고부터는 전통예절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 이웃집의 도마소리와 책 읽는 소리, 애 우는 소리가 들릴 때는 정(情)도 묻어났는데, 철문과 페어글라스로 꼭 막힌 아파트에서는 옆집에서 누가 죽어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 살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살아서는 양택(陽宅)에서 지내고, 죽어서는 음택(陰宅)에서 보낸다. 태어나기 전에도 어머니 몸속의 작은 우주인 자궁(子宮)에서 우주인처럼 유명하면서 살았다. 자궁은 작지만 종족 보존을 위한 절대적인 집이다. 집에서 태어난 우리는 공부도 집에서 하고 결혼도 집에서 하며 애도 집에서 낳고 끝내 죽음도 집에서 맞이한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가보면 집의 어원이 '짚'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한다. 밖에서 보면 짚으로 이은 지붕(짚옹, 집옹, 집우)만 보인다. 집을 뜻하는 한자 집 가(家), 집 실(室), 집 궁(宮), 집 택(宅), 집 우(宇), 집 주(宙) 등에는 공통적으로 원시 움집 모양의 집 면(冫) 자가 덮고 있다. 발음이 /면/인 것은 집이 비바람이나 한서(寒暑), 짐승, 해충 등으로부터 피해를 '면

(免)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외에 집 옥(屋)은 곤한 몸(尸)을 이끌고 돌아와(至) 쉬는 곳 이요, 집 당(堂)은 신을 숭상(尙)하는 곳(土)으로, 당집을 가리킨다.

이번 주말에는 구불구불 자란 동신목(洞神木) 느티나무가 지키고 있는 고향을 찾아볼까나. 구불구불 굽은 개울 따라 난 방죽 길을 더듬어 마을 어귀를 돌아들면 구불구불한 토담에 에둘린 고향집이 아련히 보일 테지.

3월이면 전국의 학생이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다.

왜 학교 가니? 공부하러. 공부해서 무엇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꿈꾸는 ‘성공(成功)’. 그런데 이 성공을 위한 공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준비 + 기회 = 성공’이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사람’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준비(準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옳거니.

수평 준(準)은 ‘물 수(水) + 새매 준(隼)’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물 수(水)를 보면 일단 ‘수면처럼 평평함’, 곧 ‘수평(水平)’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매 준(隼)은 나뭇가지[十] 위에 덩그렇게 앉아 있는 새[隹]의 모습으로 ‘새매’를 가리킨다. 창공을 유유히 나

는 새매를 보면 역시 수평을 유지하며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은 땅의 수평, 새매는 하늘을 수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준(準)은 절대적인 '수평'을 뜻한다. 여기에서 '평평하다[平평]', '고르다[均均]', '법도', '본보기로 삼다' 등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것을 '표준(標準)', 기본이 되는 표준은 '기준(基準)', 평균적인 생활 상태의 정도는 '생활수준(生活水準)',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은 '준거(準據)'다.

그리고 준회원(準會員), 준우승(準優勝), 준결승(準決勝) 등의 예에서처럼 '준(準)' 자는 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서 '그 명사에 비길 만한 구실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 /준/이란 발음에는 '뛰어나다'는 뜻이 있다. 말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준마(駿馬)'이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준재(俊才)'다. 준재(俊才)는 재주와 슬기가 빼어나므로 '준수(俊秀)하다'라고 한다. '준걸(俊傑)'도 '준재(俊才)'와 비슷한 말이다.

갖출 비(備)는 '사람[人]이 화살이 꽂힌 화살 통을 차고 있는 모습'이다. 입(卬)은 '화살 깃'이 변한 것이고 용(用)은 통 통(桶) 자에서 보듯이 '통'을 뜻한다.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사냥을 위한 화살을 준비하고 다녀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여기에서 '준비하다', '갖추다'의 의미가 생성되었다.

참고하기 위하여 갖추면 '비고(備考)', 골고루 갖추면 '구비(具備)', 갖추어두는 행위는 '비치(備置)', 갖추어둔 물건은 '비품(備品)', 미리 갖추어 쌓아둬는 '비축(備蓄)', 대응하기 위하여 갖추는 '대비(對備)',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갖춘 기록은 '비망록(備忘錄)' 이рода.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이다.

준비된 학생(學生)은 마음이 한가롭고, 또 3월이 기다려질 것이다. 새 학기 준비물로 학용품(學用品), 참고서(參考書), 가방, 실내화(室內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마음 다짐'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아싸가오리.

설날이란 한 해의 뜻을 세우는 날이다. '설'의 어원이 한 살, 두 살 할 때의 '살'에서 왔다고 하나 뜻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보면 '서'다, 세우다[立]의 미래형 '설, 세울'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날을 한자어로 나타내면 입일(立日)이 된다. 새해가 섰으니 뜻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덕담(德談)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들을 청(聽) 자의 오른쪽 덕(德)은 덕(德) 자의 원형이다. 聽 자는 귀[耳]를 좃[王] 세우고 덕담을 경청하는 모양이다. 최고의 설득술은 경청에 있다. 남의 말을 진정으로 잘 들어야 하는 큰 집[廣]이 시청(市廳), 도청(道廳), 구청(區廳) 등과 같은 관청(官廳)이다. 관청 청(廳) 자를 보라. 놀랍지 않은가? 민원을 잘 듣는 일이

관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란 얘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와의 색깔로 이름 붙인 대통령 관저 청와대(靑瓦臺)도 청와대(廳瓦臺)로 적는 게 이곳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멋진 기와집이 되리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베푸라는 격언이 있다. 나도 평생 배우면서 살지만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살다가 보니, 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제자로 하여금 벽찬 감동을 안고 희망의 길을 걸어 성공의 고지를 정복하게 하는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 노하우를 전한다 해도 여기엔 진정성이 문제가 된다. 진정성이 없이는 가르쳐도 효과가 없으며, 베풀어도 벗이 될 수 없다. 선거에서도 진정성이 없는 후보는 좋은 공약(公約) 대신에 빌 공(空) 자 공약(空約)만 남발한다. 진정(眞情)이란 가슴 밑바닥에서 나오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리킨다. 참되고 애뜻한 정으로 다가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연결하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진정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한다. 많은 이들이 성공 비법을 이야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비법이란 비밀스러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데 있다. 최초의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주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의 길을 안내한다는 것이 축스럽긴 하지만 직업상의 습관이니 용서하길 바란다.

첫째는 건강한 신체다. 우리의 정신은 몸뚱이라는 단칸방에서 한평생 세 들어 산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몸뚱이는 원 소유주인 대지에게 돌려주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다. 미우나 고우나 내 영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일생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몸에 감사하며 몸 청소 잘하고 쾌적한 몸 환경을 꾸려나가도록 노력해야겠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둘째는 약속(約束) 지키기다. 장부의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고 하지 않았는가. 글자의 모양으로 보면 약(約)은 실로 묶음 이요, 속(束)은 나뭇단을 묶어놓은 모습이다. 곧 약속은 양자 간 시공간의 묶음으로, 약속하는 순간 자신의 자유를 내놓고 스스로 구속하는 일이다. 구속이 싫으면 약속일랑 아예 하지 말 것이며, 일단 약속했다면 반드시 여유롭게 지켜야 한다.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삼청로터리클럽 회원을 위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놀라운 일은 영하 10도의 찬 날씨에도 모임 시각 15분 전에 이미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차 한 잔씩 나누었고, 정각에는 여지없이 특강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각계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의 모임이라 역시 다르구나.

셋째는 준비하는 일이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준비 없이 기회만

노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실력을 미리 무장해놓고 나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준비해놓고도 기회가 오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녕 기회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준비된 자의 마음만은 편안하지 않은가.

넷째는 메모하는 일이다. 둔한 붓이 총명함보다 낫다. 적지 않아 불안해 하는 것보다 적어놓고 여유를 갖는 편이 현명하다.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일이 메모하는 일이다. 남이 보는 공 장소에서 펜을 꺼내어 메모하면 낮이 깎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메모 이후에 붙은 실력은 영원하다. 쪽팔림은 순간이요, 메모는 영원하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메모, 사진 촬영, 녹음, 녹화까지 가능하니 가히 기록 천국이라 할 만하다. 얼썩.

다섯째는 창의적 독서다. 무작정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는 수동적인 인간을 만들고 만다. 석가나 예수와 같은 성인들은 타고난 지혜를 갖고 있었으니 독서를 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네 같은 범인은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얻고 지혜의 샘에 이를 수 있다. 예비지식을 쌓은 뒤에 독서를 해야 창의력이 솟구친다. 이른바 스키마(schema) 독서법이다. 곧 사전에 예비지식과 의문을 가지고 독서를 할 때 창의적이 아이디어가 솟구친다.

여섯째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선생님이나 선배 또는 자기가 개척하고자 하는 분야의 선협자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한다. 직업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묻기

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전문가는 나의 길라잡이다. 묻는 순간 앞길이 환하게 다가온다. 내 운명이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일곱째는 긍정의 미학이다. 하면 된다는 무한한 자기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한다. 자신과 환경에 대한 긍정으로 무한 가능성의 잠재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희망과 행복도 긍정에서 나온다. 밝은 면을 보면 심신도 밝아지고, 어두운 면을 보면 심신도 어두워진다. 긍정적 생각은 성공을 낳고, 부정적 생각은 실패를 낳는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살다가 보면 좌절도 많고 자신에 대하여 화(火)가 날 때도 잦다. 성공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를 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이다. 긍정의 미학이란 화(火)를 화(和)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더욱 '라온 마음'으로 성공을 위한 덕담을 나눠야지. 뭔가 모르게 덕담을 통한 '이름 예감'이 든다.

바람과 믿음

우리의 바람[希風]은 바람[風]이요, 우리의 믿음[信]은 미[水]이다. 인간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 물처럼 믿음직하게 살고 싶어 한다. 바람[風]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지구를 썩지 않게 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자신을 겸손하게 지키면서도 삼라만상에 스며들고 모든 동식물에게는 영양분을 실어 나른다.

바람과 물의 덕은 부드러움에 있다. 그 부드러움으로 자연이란 멋진 조각 작품을 낳는다. 특히 산 위의 장엄한 바위나 바닷가의 웅크린 조약돌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다가 보면 그 조각 작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람과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믿음으로도 멈출 수 없는 것은 시간이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공간이다.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은 3형제다. 돌림자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은 즐거운 시간과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해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영원하기에 멈춤 없이 흘러가고 공간은 무한하기에 경계 없이 굴러가지만, 인간은 영원하지도 무한하지도 못 하기 때문에 치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보면 싸우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도 영역 다툼, 먹이 다툼, 이성 쟁취를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동물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쟁이란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온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 중 하나일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인간이 건강을 찾는 일은 시간을 극복하고자 함에서, 넓은 땅과 집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을 극복하고자 함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돈을 벌고자 함은 위의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리라. 금(金)이나 원유는 유한(有限)하다. 독도와 같은 섬은 물론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은 이어도조차도 유한하다.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시공을 얻기 위해 유한한 돈을 벌려고 버둥거리다가 유한한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이 유한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종교, 예술, 철학 따위라고 생각한다. 유한한 인간이 종교, 예술, 철학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무한을 꿈꾸며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이 거룩하기도 하다.

인간은 좁은 육신을 짊어지고 짧은 인생을 굴리며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한다. 종교는 무한의 공간인 극락과 천국을 제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환생과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 예술은 인간의 시간의 경계를 잊어버리도록 노래하게 하고, 공간의 경계를 잊어버리도록 그림을 그리게 한다. 그리고 철학은 인간의 이러한 모든 소망을 실현 가능케 하는 ‘생각’이라는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생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올바른 생각이 생각나지 않아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청춘들이다. 허걱.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인간의 몸을 조금만 살펴보면 생각에서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머리다. 이것은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라는 무언의 가르침이리라. 얼쑤. 눈은 왜 입보다 위에 있을까. 적게 말하고 많이 보라는 뜻이리라. 옹거니. 귀는 왜 입보다 위에 있을까.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이리라. 잘한다. 게다가 입은 하나인데, 눈과 귀는 각각 두 개씩이나 된다. 이는 더더욱 많이 보고, 더욱더 많이 들으며 살아가라는 뜻이리라. 견문(見聞)이로다.

어디 더 깊이 생각해보자.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면 되지만, 입은 먹으랴 말하랴 바쁘기만 하다. 눈과 귀는 각각 두 개씩이나 되면서도 보고 듣는 입력(入力) 기관의 역할만 하면 되지

만, 입은 하나밖에 없으면서도 먹어야 하는 입력(入力) 기관의 역할과 말해야 하는 출력(出力)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바쁘다, 바빠. 헐. 그러므로 입방아는 찧어도 눈방아, 귀방아를 찧는다는 말은 없다.

또 생각해볼까나. 두 눈은 앞쪽을 향해 있으나, 두 귀는 좌우를 향해 있다. 두 눈이 앞쪽으로 나 있는 것은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라는 뜻이 아닐까. 두 귀가 서로 반대쪽에 있는 것은 ‘반대쪽의 의견도 모두 균형 있게 들어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이다.

코는 왜 길고 아래로 향해 있을까. 공기의 통로가 긴 것은 찬 공기는 덥게 하고, 더운 공기 차게 하여 알맞은 온도를 폐에 공급하고자 그렇겠지. 아래로 향한 것은 혹여 비가 오더라도 빗물은 배제하고 공기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겠지. 코는 얼굴에서 가장 돌출한 부분이라서 자존심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여 일을 그르칠 정도이면 ‘큰코다친다’라고 하며 주의를 준다.

그럼 폐가 신장보다 위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폐로는 하늘을 호흡하고, 신장으로는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라’라는 뜻이리라.

손은 발보다 위에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발로 이동하여 손으로 먹고살기 때문에 구태여 그 중요성을 얘기하라면 손이 더 소중한다고 본다. 현대로 올수록 교통수단의 발달로 발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손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두 손은 더욱더 바빠졌다.

나무에는 가지[枝^지]가 있듯이 인간에게는 사지[肢^지]가 있다. 그래서 왕년에는 사지선다(四枝選多)형의 문제가 많았다. 사지선다형이란 네 가지 선택지 가운데 가장 적당한 답을 고르는 문제방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지(四肢)를 보고 만들어낸 문제유형이 아닐까. 그러나 요즘은 오지선다(五枝選多)형의 문제가 대세다. 이것은 문제를 푸는 인간의 한 손가락이 다섯 개인 것을 보고 만들어낸 문제유형이 아닐까.

우리 몸의 어느 부위인들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으랴. 평생 우리의 영혼이 세내어 사는 하나뿐인 몸.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차례나 집세를 달라고 조르는, 더러는 간식까지 요구하는 옴팡진 몸이다.

이러한 몸을 왕(王)으로 모시는 비법이 있다. 벌령 땅[土^토]에 드리누워 보시라. 내 몸이 ‘흙 토(土)’ 위에 ‘한 일(一)’ 자를 이루니 ‘임금 왕(王)’ 자가 된다. 그렇다. 땅에 누우면 누구나 다 왕이 된다. 얼씨구.

바쁜 일손을 잠시 놓고 방바닥에 몸을 던져보자. 너도 왕이요, 나도 왕이다. 오늘은 생각 끝에 바람도, 믿음도 모두 이루었다. 앓싸.

성년(成年)의 날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이란 어른이 되는 성년(成年)일까, 성이 자유로워지는 성년(性年)일까, 기운이 왕성한 성년(盛年)일까. 발음이 비슷하면 뜻도 통한다. 모두 어울리는 말이지만 '성년(成年)의 날'이 맞다.

성년(成年)이란 신체나 지능이 성숙하여 자주적으로 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나이를 말한다. 성년(成年)이라 할 때의 이를 성(成) 자는 '정(丁) + 무(戊)'로 이루어진 글자다. 정(丁)과 무(戊)는 각각 십간(十干)의 넷째와 다섯째의 천간에 해당하는 글자다. 정(丁)이란 식물이 우뚝 자라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것을, 무(戊)란 무성하게 다 자란 모습이다. 따라서 성(成)은 자랄 대로 다 자라서 튼실한 상태가 된 것을 뜻한다. 2013년부터

만 19세, 우리 나이로 스무 살을 성년(成年)이라 하는데, 성년이란 키는 자랄 만큼 다 자라고 신체의 각 부위의 충실 지수가 극대화 된 나이를 말한다.

성년(成年)의 날이란 성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成人)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날이기도 하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연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놓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未成年者)여, 너무 성급하게 어른 흉내를 내지 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기대하노라. 그대들도 머잖아 성스런 성년이 되리니. 성인(成人)이 된다는 것은 성인(聖人)은 못 되어도, 성인(成仁)은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仁)', 곧 '사랑과 덕'을 갖추어야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 날을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한 게 재미 있다. 인생을 1년으로 칠 때 5월은 성년이 되는 때쯤으로 볼 수 있다. 흐드러지게 피웠던 그 치명적인 아름다운 꽃을 아낌없이 훌쩍 벗어버리고 이제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때다. 24절기로 볼 때는 여덟 번째의 절기(양력 5월 21일경)인 소만(小滿)에 해당한다. 소만은 만물이 점차 성장(生長)하여 가득 차는 절기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에 급급했지만, 성년이 되고부터는 넘치는 부분이 있거들랑 남에게 봉사도 해야 한다. 성년의 또 다른 의미

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나눌 때가 되었다는 공유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셋째 주일까? 셋이란 숫자는 ‘서다’, ‘세우다’에서처럼 ‘자립(自立)’을 상징하기 때문이리라. 왜 하필이면 월요일일까?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성년의 날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일본이 단연 가장 성대하게 치른다. 일본에서는 ‘성인의 날(成人の日)’이라 하여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음력 정월 1월 15일로, 이후에는 양력 1월 15일로 했다가 2000년부터는 매년 1월 둘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큰 행사를 치르고 있다. 미국은 투표권과 관련하여 성년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성년을 21세로 치는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도 있고, 23세로 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지만, 대개 2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례로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있다. 이는 관례·혼례·상례·제례를 가리키는데, 이 중 처음으로 치르는 관례(冠禮)가 오늘날의 성년식이라 할 수 있다. 관례란 ‘갓 관(冠)’ 자가 말해주듯이 청소년이 머리에 관을 쓰고 성년이 되는 의식으로 주로 양반계층에서 행해졌으며, 일반 백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여자의 경우는 계례(笄禮)라 하여 대개 혼례식의 일환으로 혼례 직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계례란 약혼할 때 여자가 땅았던 머리를 풀고 쪽을 찌던 의식으로 ‘비녀 계(笄)’ 자가 말해주듯이 쪽진 머리를 뒤로 동여 묶고 비녀를 꽂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장가든 남자가 머리털을 끌어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 맨 것을 ‘상투’라고 한다. 상투의 상징적 의미는 ‘하투(남성의 생식기)’가 다 자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이 머리를 쪽 찌기 위해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을 ‘가르마’라고 한다. 이 ‘가르마’의 상징적 의미는 ‘밑가르마(여성의 생식기)’가 그만큼 성숙했음을 뜻한다. 허걱.

예전의 청소년은 남녀 불문하고 머리를 뒤로 뺏아서 내렸는데, 관례와 계례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자신의 심벌을 머리에 노골적으로 엮고 다녔다고 볼 수 있다. 알고 보면 부끄부끄. 특히 여성의 비녀는 남성의 심벌을 닮았는데, 비녀를 꽂고 다닌다는 것은 “나는 남자로부터 꽃힌 여자이니, 임자 있는 몸이요”라고 말없이 알리는 절묘한 효과가 있다.

남자는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로 관례를 치르고 나서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시는 법을 배운다. 어른이 주는 술을 예의 바르게 받아 마심으로써 이날부터 음주가 가능했고 본명(本名) 외에 ‘자(字)’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성년이 되었음을 세상에 알린다.

오늘날 성년의 날에는 흔히 장미 스무 송이와 향수를 주고 키스를 한다. 장미 스무 송이는 스무 살의 열정을, 향수는 인품을, 키스는 사랑을 뜻하리라. 스무 살! 그 빛나는 청춘에 힘찬 갈채를 보낸다.

푸르게 숨 쉬는 5월에 발갛게 익어가는 성년의 꿈이여, Oh, happy twenty!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지금부터 더 멋진 청춘, 더 맛

난 인생을 보내야 돼.

언제나 소중한 그대, 이제 성인이 되었군.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소비적, 즉흥적으로 생활해서는 아니 되오. 넘치는 열정으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리. 《대학(大學)》에서는 일일신 우일신(日日新又日新)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날로날로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성인이 된 당당함으로 사회에 나가 역할 분담을 잘하고, 소신껏 일하며,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줄 아는 국민으로 거듭나야 하리.

성년의 날은 성년이 되는 젊은이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날이다. 성년이 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여,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

성년의 날에 성년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붓으로 써서 보여주곤 하는데 금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歲不我延(세불아연)

靑雲之志(청운지지)

熱情再生(열정재생)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출세할 뜻을 품고

열정으로 거듭나라.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 했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노자(老子)》에서는 대기면성(大器晚成)이라 했다. 늦을 만(晚)을 여기서 면할 면(免)으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큰 그릇은 완성이 없기 때문이다. 크게 될 인물일수록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의 지혜를 터득하라.

춘불경종 추후회(春不耕種秋後悔)라 했다.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된 후에 후회하게 된다. 도연명(陶淵明)의 〈잡시(雜詩)〉 중에 나오는 구절로 종을 쳐볼까 한다.

盛年不重來(성년부중래)

一日難再晨(일일난재신)

及時當勉勵(급시당면려)

歲月不待人(세월부대인)

젊은 시절은 거듭 오지 않으며

하루에 새벽을 두 번 맞지는 못 한다.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느니.

끝없는 길

길을 걷는다. 몰라볼 정도로 잘 정리된 추억의 고향 들길을 편안한 마음으로 걷는다. 자동차는 도로표지판과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지만, 내 몸은 길 도우미인 눈과 귀로 판단하고 걸어간다. 아무래도 걷기는 운전보다 안전하지만 험한 길, 오르막길이나 갈림길을 만날 때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가든 돌아가든 미국 시인 프로스트처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떨칠 수 없다. 우리의 인생길은 한 몸뚱이의 외길밖에 허락되지 않으니.

자전거를 탈 때 오르막길을 만나면 힘들다가도 내리막길을 만나면 덩으로 간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그 상쾌한 기분은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다. 설령 내 인생길이 현재 오르막길일지라도 짜증 내지 말지니. 분명

히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을지니.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다니면 큰길이 된다. 인간도 자주 만나야 정(情)의 길이 생기는 법이다. 그런데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의 길은 누구에게나 힘든 길이다. 누군가 나를 믿고 나의 잘못된 길을 따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길이 아닌 곳을 걸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서산대사(西山大師)의 계송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도 이 계송을 유달리 좋아하여 먹 자취를 남긴 바 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금일야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눈을 밟으며 들관을 갈 때는

함부로 어지러이 걸어가지 말라.

오늘 내가 지나간 발자국은

후인의 이정표가 되고 말지니.

들길은 다시 산길로 이어진다. 눈앞에 길이 길게 놓여 있다. 길

다고 길인가. 그 길이 주목받고 있다. 길은 길을 걷는 자에게 길의 저편에 길(吉)함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길을 걷는 자가 생기고 여러 사람이 다짐으로 큰길이 생긴다.

길도 많다. 앞길, 뒷길, 옆길에 산길, 들길도 있고, 물길, 하늘길이 열리나 했더니, 요즘엔 올레길, 둘레길 등 새로운 길이 줄곧 생기고 있다. 걷기 문화의 열풍에 따라 만들어지는 길이다. 마음 먹고 떠나야 하는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은 물론이고 산과 내를 끼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도 올레길, 둘레길 만들기에 한창이다.

《사기(史記)》에 ‘도리불언 하자성혜(桃李不言下自成蹊)’라는 말이 있다. ‘복숭아나 자두 같은 과실이 익으면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따 먹으러 모여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래에 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덕과 학식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그를 사모하는 사람이 모여든다. 물론 권력과 금력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겠지만…….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노요지마력 일구견인심(路遙知馬力日久見人心)’이라는 말이 있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길은 통행하는 길, 도로를 가리키렸다.

맹자(孟子)는 ‘의자인지정로야(義者人之正路也)’라 했다. ‘의(義)라는 것은 사람이 가야 할 바른길이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길은 도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다.

한자에도 길을 뜻하는 글자가 여럿 있다.

길 로(路) 자는 ‘족(足) + 각(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족(足)의 ‘지(止)’는 나가는 발이요, 각(各)의 ‘치(攴)’는 돌아오는 발이다. 족(足)의 구(口)는 발의 윗부분을, 각(各)의 구(口)는 움집 입구를 가리킨다. 일을 마치고 제각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에서 ‘각각 각(各)’ 자가 만들어졌고, 결국 ‘길 로(路)’는 ‘집에서 나가고 돌아오는 길’의 의미가 된다.

경(逕)은 좁은 길을, 경(徑)은 지름길을, 가(街)는 네거리를 가리킨다. 도리(道理)를 뜻하는 도(道) 자도 나중에는 도로(道路)라고 할 때처럼 길의 의미로 확장된다. 강원도(江原道)에서처럼 도(道) 자가 행정구역 단위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도(道)라는 행정단위가 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이라고 할 때의 ‘스’이나, 한자 사람 인(人)을 보면 두 갈래 길이 서로 만나는 이미지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므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한다. 회자정리(會者定離)를 알면서도 꼭 만나고 싶어 한다. 사랑으로 만나면 헤어질까 두렵고, 미움으로 헤어지면 만날까 걱정된다.

큰 안목으로 보면 만남도, 헤어짐도 없다. 무한으로 유한을 보면 유한의 연속이 곧 무한이다. 조선 중기 학자 김인후가 엮은 《백련초해(百聯抄解)》의 한 연(聯)이다.

山外有山山不盡(산외유산 산부진)

路中多路路無窮(노중다로 로무궁)

산 밖에 산이 있으니 산이 다함이 없고
길 가운데 길이 많으니 길이 끝이 없네.

그런데 끝이 있는 길이 있다. 인생길이다. 꽃 피듯 화려하게 나
타났다가 잎 지듯 훌쩍 끊어지고 마는 삶. 짧은 인생이지만 영생
을 꿈꾸고 좁은 육신이지만 우주를 꿈꾸는 존재가 인간이다.

조을시리棗栗柿梨

명절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지독한 전통이 있어서 민족대이동
(民族大移動)이 계속되고 있다. 명절을 전후하여 물길은 물론 바
닷길, 하늘길까지 귀성객들로 빼곡하다. 명절을 쇠러 명절빔을 차
려입고 길을 떠나는 마음은 하늘처럼 행하다. 하늘의 구름처럼 외
롭게 살아가다가 헤어진 피붙이를 만나 쌓였던 얘기를 들관처럼
나눈다.

떠들썩하게 명절 전날을 보내고 나면 명절 아침에는 어쩔 수 없
는 경건으로 차례상 앞에 둘러서서 차례(茶禮)를 지내게 된다. 차
례상은 유별나게 푸짐한데, 제물을 진설(陳設)하는 데에는 집안에
따라 복잡한 격식이 있다.

차례상은 대체로 다섯 줄로 진설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조상이

앉아 계시는 신위(神位) 입장에서 생각하여 진설한다. 첫째 줄은 쟈메, 송편 등의 주식, 둘째 줄은 젓가락으로 집기 어려운 적(炙) 종류, 셋째 줄은 숟가락으로 떠서 드실 탕(湯) 종류, 넷째 줄은 안주용 포와 나물 및 가끔 들고 마실 식혜, 끝줄은 디저트용 과일과 과자를 놓는다. 또 신위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대추, 밤, 감, 배, 기타 과일, 과자 순으로 놓는다. 여기에서 특히 대추, 밤, 감, 배 등은 빼놓을 수 없는데 이를 조율시리(棗栗柿梨)라고 한다.

그런데 차례상 또는 제사상을 진설하는 데에는 말들이 많다. 좌우(左右)와 동서(東西)가 헷갈리고, 신위(神位) 중심이나 제관(祭官) 중심이냐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생겨난 한자성어가 ‘타인지연 왈리왈시(他人之宴曰梨曰柿)’다. ‘남의 잔치에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한다는 뜻으로,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나섬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우리 속담은 ‘남의 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인데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의미다. 재미있는 것은 감과 배의 순서 때문에도 아직 논란이 많은 것이다. 진설 방법은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각 집안에 전해오는 관습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놀라운 것은 제상 과실의 상징적 의미다. 대추가 가장 먼저인 것은 씨가 하나로 한 분뿐인 임금을 뜻하고, 밤은 한 송이에 세 톨이 박혀 있으므로 삼정승(三政丞)을 나타낸다. 그리고 감(곶감)과 배의 씨앗은 각각 여섯 개, 여덟 개이므로 육조판서(六曹判書)와

팔도관찰사(八道觀察使)를 대신한다. 그 외 참외, 수박, 포도 등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일은 씨가 많으므로 수많은 백성(百姓), 곧 억조창생(億兆蒼生)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니 차례상에는 한 나라의 모든 분을 모신 형국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선조는 자연의 열매를 보고 국가 체제를 만든 듯하다.

대추는 한자로 대추 조(棗)라고 한다. 갈고리 모양의 가시 네 개가 보이는데, 대추는 대조(大棗)에서 온 말로 다른 이름은 목밀(木蜜)인데 이름처럼 잘 익으면 꿀맛이 난다. 조상(祖上)과 조정(朝廷) 대신을 모심에 대조(大棗)가 없을 수 없다. 대추나무에는 가시가 많아서 가시 자(刺) 둘을 위아래로 붙여 썼다. 옆으로 붙여 쓰면 가시 극(棘)이 된다. 가시와 칼로 함께 찌르는 무서운 글자는 찌를 자(刺)다. 가시와 창으로 동시에 찌르면 자극(刺戟)이요, 말로 변죽을 울리며 찌르는 것은 풍자(諷刺)로다.

밤은 밤 울(栗)로서 전서에는 나무 위에 가시 달린 밤송이 세 개가 붙어 있다. 밤에는 가시가 있으니 전울(戰慄)을 느끼게 한다. 나중에 ‘두려워하다’는 뜻의 한자로 두려워할 울(慄) 자를 새로 만들었다. 지금 중국에서는 간체자 썩(울)로 통용하고 있다.

감은 감 시(柿)로서 쉽게 시(柿)로 쓰기도 한다. 시(柿) 자는 갑골문과 금문에는 보이지 않고 소전에 처음 보이는데 시장 시(市)가 발음을 나타낸다. 익기 전에는 청색으로 뽀얀맛이 나지만 익으면 안팎이 붉은색으로 단맛이 난다. 껍질을 깎아 만든 곶감은 적

갈색으로 달콤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콧감은 연중 보관하기가 쉽고, 따라서 시장에 내다 팔기에 좋으므로 시(市) 자를 붙인 것이다. 갑자기 홍시(紅柿) 생각이 나지만 차례를 지내고 먹어야지.

배는 배 리(梨)로서 '이로울 리(利) + 나무 목(木)'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이로운 나무'라는 뜻이다. 속담에 '배 먹고 이 닦기'란 말이 있듯이 얼마나 이롭고 유용한 과일인가. 후식으로도 커피와 비길 수 없는 최고 명품이다. 이화(梨花), 황리(黃梨)의 예가 있다.

여기서 리(利) 자를 살펴보자. 이 글자는 본래 '날카롭다'의 뜻이었다. 칼[利]로 벼[禾]를 베는데, 벼알이 푹푹 떨어지는 모습이다. 즉, 칼날이 날카롭다는 데에서 출발하여 의미가 확장되어 '이롭다'의 뜻도 지닌다. 예리(銳利), 권리(權利), 이용(利用), 이익(利益) 등의 예가 있다.

마르지 않는 의욕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살아온 그대, 명절도 넉넉하게 보내시길.

휴식(休息) 없는 휴가(休暇) 없다

강의 중에 손을 드는 학생이 더러 있다. 질문이 있어 손을 드나하고 얼굴을 살펴보면 어벌쩍하면서 표정으로만 한몫을 보려 든다. 이내 질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쉬' 또는 '웅가' 생각이 난 모양이다. 내적 불만의 외적 해소!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긴장의 끝!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 돌아와 앉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덩달아 시원해진다.

감탄사 '후유'를 줄여서 '휴'라고 한다지만, 한자 쉼 휴(休) 자와 발음이 같다. 이 말은 어려운 일을 끝내거나 고비를 넘겼을 때 크고 길게 내쉬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도중 그 일이 너무 고되어 힘에 부치거나 시름이 생길 때 나오는 소리이기도 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 사실 쉴 시간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니 어쩌다 생긴 휴가라도 쉴 줄을 몰라서 어정쩡하게 넘기기 일쑤다.

어느 광고 카피가 생각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일에 대한 계획만큼이나 휴식에 대한 계획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멋지게 쉴 줄 알아야 한다. ‘재(財) 테크’만큼이나 ‘휴(休) 테크’도 필요하다.

동사 ‘쉬다’에서 형용사 ‘쉽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본다. 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얘기일까. 반기니 반갑고, 즐기니 즐겁듯이 쉬니 쉽구나 하는 식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그냥 쉽다는 것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쉽’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휴식(休息)’이다.

쉴 휴(休) 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일하고 난 뒤에, 아니면 새 일을 구상하기 위해, 어쩌면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쉽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새로운 일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다. 알고 보면 사람만이 쉬는 게 아니다. 밭도 쉬어야 하니, 이를 휴경(休耕)이라 한다. 땅에도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부치던 땅을 얼마간 묵히기도 하는 것이다.

사실 진정한 쉽의 의미는 쉴 식(息) 자에 다 들어 있다. 식(息) 자는 ‘자(自) + 심(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自)는 ‘코’를

가리키고 심(心)은 ‘심장’을 뜻한다. 진정한 휴식이란 ‘코로 숨 쉬고 심장이 뛰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율신경계의 움직임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휴식이란 말이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휴일(休日)에 쉬지 않고 지나친 놀이로 인하여 오히려 몸을 더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긴 병이 ‘명절증후군’, ‘휴가후유증’, ‘월요일병’ 등이다.

따지고 보면 영원한 휴식은 영면(永眠)인데, 동양에서는 코를 가리키는 자(自)에 중점을 두어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심장을 가리키는 심(心)에 중점을 두어 ‘심장이 멈추었다’라고 표현한다.

여행 중 잠시 쉴 수 있는 방이 휴게실(休憩室)인데, 여기서의 쉴 계(憩) 자 역시 휴(休) 자, 식(息) 자와 마찬가지로 ‘쉬다’의 뜻이다. 그런데 식(息) 옆에 ‘혀 설(舌)’ 자가 붙어 있는 게 재미있다. 이는 적당한 먹을거리로 배를 달랠 수도 있고,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분자분 대화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학적으로 보면 휴식(休息)은 말없이 쉬는 것이요, 휴게(休憩)는 대화를 나누면서 쉬는 것이라 하겠다.

여름에는 피곤하지 않은 진정한 휴식을 위하여 휴가(休暇)를 내자. 휴가의 겨를 가(暇) 자는 ‘날 일(日) + 빌릴 가(假)’로 이루어져,

쉬기 위한 날(日)을 직장으로부터 빌린다(假)는 뜻이다.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주는 유급휴가를 연가(年暇)라 하는데, 연가를 얻기 위해서는 청가(請暇)를 해야 한다. 촌가(寸暇)라도 내어 망중한(忙中閑)의 여유를 누리보자. 얼씨구~. 휴가 때 몸을 더 혹사시키면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적어도 마지막 하루는 절대 휴식이 필요하다. 서구 사회는 물론 국내에도 여가(餘暇)를 선용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겠다. 절씨구~. 이게 바로 여가학(餘暇學)이로다. 잘한다~.

‘빌릴 가(假)’의 전서 형태를 보면 언덕 밑에서 손을 꼬부려 광물을 채취하는 모습이다. 자연으로부터 금은보화를 캐내어 즐기지만, 결국 죽으면서 자연에게 되돌려 주는 형국에서 ‘빌리다’의 의미가 생성되었다.

겨를 가(暇)와 비슷한 모양의 글자 중에 거짓 가(假) 자가 있다. 날을 빌리면 ‘겨를’이 생기는데, 사람을 빌리면 ‘거짓’이 생긴다? 맞는 말이다. 개를 키우는 이유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설득력이 있다. 거짓 가(假) 자에 사람 인(亻) 자가 붙어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결국 인간만이 거짓을 만든다는 게 아닌가? ‘거짓’이 없으면 진실도 없고, 가짜가 없으면 진짜도 없다라고 하면 지나친 인간 비호일까?

‘진짜’, ‘가짜’라는 우리말은 한자어 ‘진자(眞者)’, ‘가자(假者)’에서 온 것 같다. ‘가게’라는 말도 길가에 멋대로 만든 가짜 집이란

뜻의 ‘가가(假家)’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에서 자연을 벗 삼으며 한가(閑暇)한 삶을 누린 우리 선조가 많다. 벼슬이 없으니 문 앞에 마차 소리 시끄러울 일 없고 청탁받을 일도 없다. ‘한가하다’라는 의미의 한자는 한(閑)과 한(閒)이 있다. 낮이면 ‘한(閑)’처럼 문 닫고 나무 침상에 누워 쉬고, 밤이면 ‘한(閒)’처럼 문 열고 달을 희롱하며 쉬는 멋이 진정한 휴식이다. 문자학에 의하면 한(閒)은 본디 ‘사이 간(間)’자의 원형이었다. 월(月) 자가 문(門) 위에 올라가기도 한다. 서예전에서 이 글자를 만나면 대개 /간/으로 읽어야 한다. 글자를 잘못 썼다고 욕하다간 우사를 당하게 된다.

여가(餘暇)를 즐길 줄 아는 풍류적인 삶을 누리자.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를 가질 때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물질적 여유도 좋지만, 이는 엄연히 한계가 있으니 욕심 부릴 일이 아니다. 삼시(三時) 세 끼 거르지 않고, 오척(五尺) 단구 눕힐 만한 자리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욕구가 모든 국민에게 충족되는 세상이 행복지수 최상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많은 돈으로 인한 피곤한 여가는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

수차례의 벼슬을 사양한 조선 중종 때의 학자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선생의 시 〈술회(述懷)〉에 나오는 시구다. 여름휴가 중에 염념(念念)해볼 만하다.

富貴有爭難下手(부귀유쟁 난하수)
林泉無禁可安身(임천무금 가안신)
採山釣水堪充腹(채산조수 감충복)
詠月吟風足暢神(영월음풍 족창신)

부귀는 다툼 있어 손대기 어렵지만
자연은 금함이 없으니 심신이 편안하다.
산나물 캐고 물고기 잡아 배를 채우고
풍월을 읊조리자 화창해지는 이 정신.

늪의 미학美學

느티나무 잎 하나 빙그르르 휘돌며 떨어진다. 내 삶의 끝자락도 저와 같으렸다. 어느 바람에 지는 줄 모르는 낙엽이 땅에 떨어지기까지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것은 분명히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이다. 낙엽 지기 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름다운 단풍이었다. 말년의 인생 모습도 단풍처럼 화사(華奢)하고 장엄(莊嚴)한 파노라마(panorama)이어라. 적어도 나의 경우는 봄꽃보다 가을 단풍을 더 아름답게 본다. 아침이슬도 아름답지만 해 질 녘의 저녁놀은 더욱 아름답다. 청춘(靑春)도 아름답지만 노년(老年)만은 못하리…….

‘삶의 유혹(誘惑)’과 ‘죽음의 공포(恐怖)’,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 고자 고민하는 것이 인생의 참공부다. 삶의 유혹 중에는 명리(名

利)가 가장 크다. 골프 황제 우즈를 보니 색(色)도 선택 사양이다. 저녁 식사로 로브스터(lobster)를 드시든 주먹밥을 처먹든 배출할 때는 모두가 똥이다. 따지고 보면 이 몸에 든 것은 똥밖에 없고, 진 것은 죄밖에 없다. 삶의 유혹에 빠지지만 앓는다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사가 오케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늙음의 내리막길이었다. 등산도, 인생도 오르는 길 힘들지만 내려가는 길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삶의 길을 멋지게 내려가기 위해 늙음의 미학을 찾아보는 것이다.

늙음의 미학 제1장은 '비움의 미학'이다. 비움의 실천은 '버림'으로써 여백을 만드는 일이다. 버림이란 말이 맞지만 너무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 점잖게 '나눔'이라 해도 좋다. 꽃이 비록 아름답지만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처녀가 설령 아름답지만 처녀를 버려야 옥동자(玉童子), 옥동녀(玉童女)를 낳을 수 있다. 죽음이란 '버림의 끝'이다. 성취(成就)의 청춘도 아름답지만 버림의 노년은 더욱 아름답다. 이것이 늙음의 미학이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손바닥을 펴고 죽는 것은 모든 소유로부터의 비움이다. 생의 가장 큰 가르침은 죽음이다. 선현(先賢)은 죽음으로써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준다. 채운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운 만큼만 채울 수 있다. 집지양개(執之兩個)요, 방측우주(放則宇宙)로다. 두 손으로 잡아보았자 두 개일 뿐이요,

놓으면 우주가 내 것인 것을.

늙음의 미학 제2장은 '노련(老鍊)의 미학'이다. 노련(老鍊)이란 단어에는 늙을 로(老) 자를 쓴다. '노(老)' 자에는 '노련하다'는 의미가 있다. 오랜 세월의 경륜에서 오는 노하우(knowhow)가 있어 노인은 노련한 경험의 결정체다. 컴퓨터라는 괴물이 나와 손놀림이 빠른 젊은이에게 항상 뒤쳐져 보이기도 하지만, 노인은 적어도 그 기계의 종이 되지는 않는다. 노인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 신중함이 있다. 술을 마셔도 젊은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도옹(不倒翁)이란 별명이 붙은 것이다.

늙음의 미학 제3장은 '점잖음의 미학'이다. 노인이 되면 언행(言行)이 무겁되 어둡지 않다. 품격(品格)이 고상하되 야하지 않다. 그래서 '점잖다'라는 말이 성립된다. 곧 '젊지 않다'는 말이다. 젊은이처럼 감성에 쉬이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지공거사'로서 젊은이의 잘못을 보고도 잘 나무라지 않음은 힘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러한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고자 함이다. 점잖음, 그것은 중후한 인생의 완결관이자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아름다움이다.

늙음의 미학 제4장은 '생각의 미학'이다. 노인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그러다 보니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지혜의 샘물이다. '늙은이(늘그니)'

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이다. 생각이 깊고 많기 때문이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염려하고 가문을 지키면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사고(思考)의 ‘고(考)’ 자는 ‘늙을 로(老)’ 변에 속하며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노인회(老人會)나 기로연(耆老宴)은 생각이 많은 분들의 모임이다.

늙음의 미학 마지막 장은 ‘3분의 2의 미학’이다. 흔히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항변하는데, 이 말은 사실이다. 정신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에 3분의 2에 불과하다. 60세면 40세로 생각하고, 90세면 60세로 생각한다. 마음마저 육신과 똑같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삶이 위축된다. 죽는 날까지 젊은이의 기상으로 살아가야 한다. 젊은 생각으로써 씩씩한 만년을 맞이해야 한다. 인류의 평균연령이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온 세상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퇴직의 새벽을 맞이하면 인생 리모델링(remodeling)을 반드시 해야 한다.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다.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소망하던 오늘이다.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일러 총명(聰明)하다고 하는데, 총(聰)은 귀가 밝다는 뜻이요, 명(明)은 눈이 밝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눈과 귀가 어두워진다.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세히 볼 수 없고, 또렷하게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없다.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훈련을 평생 해온 그들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찰떡같이 얘기해도 쑥떡같이 건성으로 들어버리니

낭패(狼狽)로다.

아름다움의 끝은 죽음이다. 그 단풍잎이 어느 이름 모를 바람에 느닷없이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죽는 것이, 오복의 하나인 고종명(考終命)이다.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 매우 위태(危殆)한 고비를 일러 사생관두(死生關頭)라 한다. 사관(死關)은 죽음의 관문(關門)인 것이다. 낙엽 지듯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고종명이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은 식도(食道)인 ‘목’과, 기도(氣道)인 ‘숨’이 끊어진다는 말이다. 밥이 맛을 잃으면 30일 만에 죽게 되고, 공기가 맛을 잃으면 3분 만에 죽게 된다. 순간의 유명(幽明)이다. 나뭇잎 떨어지듯, 정전되듯, 눈 깜짝할 사이에 밝음과 어둠이 새벽 별 보듯 또렷하다. 신의 품에 다가가는 아름다운 구속…….

나의 경우 책, 벗, 붓 삼우(三友)로 만년을 준비하고 있다. 사유(思惟)의 대자유, 자유(自遊)의 대자유 속에서 늙어가는 즐거움을 그대는 아는가?

우스갯소리라 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격언이 있다. 누구나 아는 분명한 세 가지…….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빈손으로 죽는다.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도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여섯 가지 사실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는 ‘죽음’이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을 일도 없을 텐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죽어야 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영생은 영혼의 몫이다.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우주를 생각하면 짧은 인생과 좁은 육신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과 무한을 약속하는 종교와 예술을 지어냈나 보다.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人間), 그래서 삼간(三間)이다. 여기의 시간은 ‘빛’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행히 빛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비춘다. 광무사조(光無私照)라. 빛은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다. 빛이 만물에게 공평하듯이 빛이 만들어낸 시간도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는 시무편애(時無偏愛)라 하면 되겠다. 시간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 빈부귀천에 따라, 의인악인에 따라 빛과 시간이 공평하지 않다면 얼마나 열 받는 삶일까. 그래서 잘난 놈, 못난 놈 따로 없이 누구나 똑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똑같은 땅을 발로 밟고 살아가다가 속절없이 생(生)을 마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빛과 시간처럼 죽음도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빛과 시간을 막을 수 없듯이 죽음도 거역할 수 없다. 고로 죽음 앞에 모두 겸허해야 한다.

인간은 혼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기도 혼자서 한다. 혼자서 죽는다는 사실. 설령 동반자살을 한 사람일지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차가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운 벗들마저 모두 두고 혼자서 죽어간다. 그만큼 죽음은 냉엄하다. 강물이 속절없이 바다에 닿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이를 수밖에 없다.

혼자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덜 고독하고 싶어 한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겸허해진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난 몸은 죽음도 단 한 번이다. 따라서 부관참시(剖棺斬屍)와 같이 두 번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빈손으로 죽는다. 태어날 때 빈주먹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도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고로 본전인생(本錢人生)이다.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라는 말이렸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베풀라'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배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뜻이다. 한때는 '배워서 남 주나?'라고 했지만, 이제는 '배워서 남 주자'라고 해야 한다.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정녕 깨달았다면 인생의 최고 덕목은 아무래도 '비움'과 '나눔'이렸다. 하늘처럼 배우고 살면 해·달·별을 매달고도 무너지지 않고, 빛과 소리처럼 나눔을 실천하면 우주를 이룰 수 있다.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꼭 찬 삶. 내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내일이 아니었던가. 누구도 내일을 자신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때 영원(永遠)을 사는 것이 되고,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길 때 무한(無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둘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이다. 현대인은 대개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뜻밖의 장소에서 죽는 일은 유족이나 친지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어디서 죽든 흠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을 대하면 달인(達人)을 뵈듯 존경스럽다. 죽음 앞에서 허무한 삶. 어차피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만나야 한다.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오늘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동그란 안경을 걸친 멋진 털보 아저씨, 스티브 잡스. 그는 갔지만 애플사와 명언은 남아 있다.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이 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방종한 삶을 살 필요는 없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일회성의 인생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소중한 삶이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 이치와 같다.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이다. 대개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으로 죽겠지만 전쟁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은 육신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 있는 동안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양생(養生)을 통한 무병장수(無病長壽)에 대한 열망은 도가(道家)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의 바람이었다. 한테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 질병(疾病)이다. 금세기의 질병 중 인류의 최대 적은 암(癌)과 에이즈. 어찌나.

남산의 유서 깊은 서울클럽에서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김민기 회장 이임 및 김진호 회장 취임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건강지성(健康至誠)’이란 네 글자를 휘호한 적이 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 없이 오래 사는 것도 고역이렸다.

지성(至誠)이란 말은 《중용(中庸)》에 나온다. 문자학적으로 보면 ‘지(至)’ 자는 하늘을 날던 새가 땅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한 번도 뇌진탕에 걸린 바 없으니, ‘지극하고 절묘하

다’ 하겠다. ‘성(誠)’ 자는 ‘말한 대로 이룬다’라는 뜻이다. 거짓 없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이를 수 있나니, 여기에 ‘정성(精誠)’이 필요하다. 에이즈를 예방하고 ‘지극한 정성’, 곧 지성(至誠)으로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펼친 서예 퍼포먼스 라이브 서예(live calligraphy)였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힐링 서예(healing calligraphy)라고나 할까. 정신활동과 육체운동을 겸비한 라이브 서예를 즐기면 힐링 효과는 물론 부귀보다 소중한 건강 증진 효과까지 톡톡히 볼 수 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얼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건강 노하우를 세 가지로 요약해볼까나. 이 세 가지는 건강하게 잘 늙은 법으로, 생의 의욕을 더 해주리라 믿는다.

첫째, 언제나 웃음을 잃지 말고 긍정적 마음으로 살아갈 것.

둘째, 절식 속에 알맞은 운동을 즐길 것.

셋째,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살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언제나 어렵다. 그래서 웃음으로 즐기며 쉬운 것부터 도전해보자는 것이다. 건강! 돈과 명예보다 가치 있는 건강이기에 지성으로 돌보아야 하지 않을까.

몇 년 전 미아삼거리에 풍덩예술학교가 설립되었다. 척박한 땅에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의 하나인 미아리, 그중에서도 승인시장 안에 세운 학교다. '풍덩'이라는 교명은 '몰입(沒入)'의 의미가 있다. 한 마디로 재래시장에 예술의 옷을 입혀 상가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였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미아리 텍사스 등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 곳에서, 늦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에 미아리상가협의회와 풍덩예술학교가 손을 잡고 '美미아리 축제'라는 이름으로 잔치를 벌였다. 모두 잔치 분위기에 풍덩 빠진 날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속은 예술에 풍덩 빠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목구비(耳目口鼻)에다 촉각(觸覺)을 더하여 오감(五感)으로 마시는 황홀한 술이다. 이를테면 미술(美術)은 눈으로 마시는 아름다운 술이요, 음악(音樂)은 귀로 마시는 즐거운 술이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서예(書藝)란 어떠한 술인가? 음악적인 운필의 결과로 회화적 조형이 나타나니 폭탄주 아니면 칵테일 정도가 되겠다. 순간순간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붓을 운전해 가다가 보면 잦은 음주 운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쓰는 취필(醉筆)은 아니지만 노래와 춤이 있는 행복한 음주 운필이라 할 수 있다. 붓글씨를 쓰는 일은 묵향을 주향(酒香) 삼아 시흥(詩興)에 젖어 소나 말을 타고 붓 쟁기를 끌며 모래밭, 자갈밭, 풀밭, 바위 기슭 등을 지나가는 기분이다. 서예란 신출귀몰(神出鬼沒)하는 붓털이 부드러운 화선지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서 손끝에 와 닿는 그 은밀한 전율은 어떤 오락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예술이란 종교와 함께 시간상으로 영원하고 공간상으로 무한한 세계다. 예술작업의 결과는 제한된 인생을 연장하여 영원하게 해 주고, 한정된 삶의 공간을 무한히 확대시켜 준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갈파했다.

과학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예술은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지만,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설명한다. 그래서 예술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웅변이 되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 예술의 문법에서 설명은 필요 없다. 느낌만 있을 뿐.

우주의 씨앗은 빛과 소리다. 빛이 발아하여 눈을 즐겁게 해주면 공간예술이요, 소리가 발아하여 귀를 행복하게 해주면 시간예술이다. 너무 고상하게 얘기했다. 예술은 분류 기준에 따라 공간예술과 시간예술, 시각예술과 청각예술, 조형예술과 공연예술,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구상예술과 추상예술, 모방예술과 창작예술 등으로 나누지만 예술을 분류한다는 자체가 비예술적 행위다.

이왕 내친김에 타임머신을 타고 원시시대로 돌아가 예술(藝術)이라는 말의 뿌리를 건드려 볼까나. 예(藝) 자 머리의 풀 초(艹)는 불쏘시개, 중간에 있는 예(彳)의 오른쪽 환(丸)은 구부리고 앉아 있는 사람, 그 왼쪽은 췌기에 나무막대기를 꽂아서 비비며 불을 일으키는 모양, 그리고 아래의 운(云)은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보니 당시의 최고 예술은 불을 만드는 일이었네. 술(術) 자의 가운데 출(尢)은 나무껍질을 벗기는 모양에서 기술을 뜻하고, 바깥의 행(行) 자는 사방으로 퍼진다는 의미다. 옳아, 예술은 기술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공유의 뜻이네.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기예(技藝)와 학술(學術)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예술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솜씨만으로는 안 되고

배움도 필요하다는 뜻이겠다. 휴~

그런데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가를 위한 예술이어서는 안 된다. 예술이란 예술 생산자나 예술 소비자와 같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예술활동을 하며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노래방에서는 누구든 노래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는 누구든 공을 찰 수 있듯이, 예술도 일상에서 모두가 즐기고 느끼며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

췌, 주의해야 할 한 가지. 감동하면 예술이지만 흥분하면 외설이다. 감동은 지속적이고 기를수록 좋지만 흥분은 순간적이고 가라앉힐수록 좋다. 행복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감동이다. 감동이 없는 예술은 따분하다.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할 때 창작 의욕이 발동한다. 작가 스스로 감동 없이 일궈낸 작품은 예술 소비자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감동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감각을 일깨우고 정서를 길러야 보다 큰 감동을 획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동도 부단한 연습이 있어야 표현과 수용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눈, 귀, 코, 혀, 피부 따위의 오관(五官)이 늘 깨어 있고 생각이 열려 있는 자만이 크게 감동할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아무렴.

흔히 서예라 하면 표구를 통한 완성된 작품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쓰는 과정의 쏠쏠한 재미가 장난이 아니다. 라이브 서예란 몰래 써서 표구한 '박제된 서예'가 아닌 현장성 있는, 살아 있는 서

예를 말한다. 안중근 의사의 옥중 글씨나 왕희지의 <난정서>와 같이 현장에서 오는 생동감이 묻어날 때 비로소 명필의 반열에 들 수 있다. 쓰는 내용도 시의적절(時宜適切)하고, 쓰는 과정도 삶이 묻어날 때 붓을 잡은 사람은 더 큰 흥과 신명을 얻고, 관중은 붓놀림에 자신의 마음을 엮고 공감할 수 있다. 붓가락에서 오는 쩡한 감동. 붓으로 노를 저어라, 에헤라 디야~.

가끔 들르는 노원의 모 일식식당에서 당호(堂號)를 부탁해 왔다. ‘지호락당(知好樂堂)’으로 이름 붙였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서로 잘 알고, 서로 좋아하며, 서로 즐기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은 당호다. 본래 이 말은 《논어(論語)》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知之者不如好之者) 호지자 불여낙지자(好之者不如樂之者)’로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의미다.

무렵었지만 성현의 말씀에 ‘낙지자 불여몰지자(樂之者不如沒之者)’라는 구절을 더하고 싶다. ‘즐기는 것은 빠지는 것만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복잡다단한 세상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퐁당 빠져보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는가.

어떤 교수가 자기가 저술한 책 제목으로 ‘불광불급(不狂不及)’을 사용하여 히트한 일이 있는데, 사실 ‘미칠 광(狂)’ 자에는 진실성과 방향성이 없어 보인다. 단지 ‘미쳐야 미친다’라는 발음의 유사성에

서 오는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서 만든 말일 뿐이다. 현대인의 기계적 삶이 오죽이나 무미건조하고 모래알 같은 삶으로 비쳤기에 ‘미치라’고까지 갈파했겠는가.

열정도 재능이다. 열정을 영어로 ‘passion’이라고 하는데, ‘passion’ 없이 ‘pass’ 할 수 없다. 알아서, 좋아서, 즐겨서, 빠져서 하는 일은 하늘과 땅만큼 그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그 대상이 예술이라면 더한 열정으로 몰입해야 한다. 예술은 ‘지(知)’보다는 ‘정(情)’에 가깝다. 그래서 예술은 ‘앎’보다 ‘좋아함, 즐김, 몰입’의 요소를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 중 공통점 하나는 퐁당 빠져 즐겼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뜻하는 바를 즐기는 삶! 60조 개의 세포가 기립박수를 보낼 것이다.

깊은 생각과 다양한 느낌의 숲속에서 너를 찾는다.
상상의 언덕 끝에 서서 미소 지으며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너.
그리움은 설렘을 낳고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기다림은 허비가 아니라 준비임을 알기에
오늘도 순수와 열정으로 그 끝없는 미로를 찾아 헤맨다.

너에게 빠지고 싶다, ‘퐁~덩’

